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本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오픈몰 : www.sanchon.com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2일 수요일(주간) 제38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아·태 장애인게임 관심을

부산은 아시안게임 열기로 한창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 이어 10월 26일부터 열리는 아·태 장애인 게임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애를 넘어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을 보여주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는 국민의 무관심이라는 장벽 앞에서 꺾일 위기에 놓였다.

2002 부산 아·태 장애인 게임을 불심(佛心)으로 치르겠다고 적극 나선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 관심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9월 24일 부산시청을 방문, 아·태 장애인 게임의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혜총스님을 비롯한 개금, 금정, 두송, 양정청소년수련원 등의 관장 스님들은 1천만원을 모금, 개·폐회식 입장권을 구매했다. 이 밖에도 사찰과 소속기관에 홍보 현수막 게시, 일반 경기 관람, 개·폐회식 입장권 구매 확대 등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부산불교복지협은 10월 18일 열리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주제를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정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불자들의 의지 표현이다.

이처럼 불교계의 지원은 10월 26일~11월 1일 열리는 아·태 장애인게임에 참가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42개국 9천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4백만 국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향해 내미는 관심의 손길이어서 더욱 값지다.

장애인들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촉발제가 되어 현재 아시안 게임 서포터즈로 활약 중인 불교계 신행단체와 사찰들의 활동이 이후 열리는 아·태 장애인 게임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불교 콘텐츠사업 '본격 시동'

이미지 등 '원형자산' 디지털세계 새 가치 창출

콘텐츠 공모 단청문양 등 3건 선정

"창작영역 확대땐 세계적인 경쟁력"

탱화 속에 등장하는 신장들이 게임의 주요 캐릭터로 개발되고 단청장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문양이 디지털 기술로 재가공 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

불교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 등 원형 자산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개발 보급이 디지털 사회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원형들에 대한 관심도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발표한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서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연구' 등 3건의 불교관련 콘텐츠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의해 폭파된 바미안 대불이 3D 기법으로 디지털 복원되기도 했고, 청소년 포교를 겨냥한 불교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제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 사회의 핵인 콘텐츠 분야에서 불교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민족의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전적과 인물 등 이 분야에서 활용할 소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 때문에 연구기관과 벤처기업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불교의 원형에 관심도를 높여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작 불교계에서는 아직 불교원형의 콘텐츠화에 대해 전격적으로 발을 담그지 못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과 영상자료 확보 등 초기단계의 투자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각 종단의 캐릭터 개발 성과와 일부 스님들의 개별적인 노력, 불자 기업인들의 꾸준한 관심이 불교계의 콘텐츠 산업 활성의 희망을 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은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차별성을 담보해 독창적인 창작영역을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특집 6·7면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아린제 추기경 조계사 방문 로마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아린제 추기경(사진 가운데)이 9월 23일 조계사를 방문, 주지 지홍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았다. 아린제 추기경은 이어 한국의 집에서 종교지도자협소속 종단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종교 화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제공= 평화신문

중국불교협 새회장 일성스님

부회장 20명 선임, 종단협 축하전문 보내



중국불교협회 새 회장에 일성(一誠)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중국불교협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북경의 한 호텔에서 제7차 전국대표회의를 열어 제7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명예회장에 거리에랑지예(扎木貝), 회장에 일성, 상무부회장에 성휘(聖輝), 이사회비서장에 학성(學誠) 스님을 선출했다. 이 회의는 또 부회장에 정혜(淨慧), 명화(明學), 근통(根通), 계인(戒忍), 각성(覺醒) 스님과 도슬인(刀述仁) 거사 등 20명을 선임했다.

2000년 5월 전임 조박초(趙朴初) 거사의 입적이후 2년 만에 중국불교협회 새 회장에 선출된 일성스님은 위앙종 제 10대 종정(傳人)으로서, 강서성 진여선사 및 보봉사의 방장을 겸임하고 있다. 1927년 호남성 망성현 출생으로, 49년 출가 후 강서성불교협회 회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강서성 정치협상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11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26일 회장 정대스님 명의로 일성스님의 회장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중국불교협회에 보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북불교계 북경서 회동

7~10일 … 관심사 논의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평화통일불교협회 등이 10월 7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평불협(7일)과 진각종(8일) 종단협(9일) 조계종(10일) 대표단 등은 7일~10일 조불련측과 개별 접촉을 갖는다.

종단협과 태고종은 이번 접촉에서 단청불사 및 단청 기술자 방북 지원 문제,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 평불협은 금강국수공장 지원 문제 등에 대해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종단대표단 3차 방북문제를 비롯해 평양 컴퓨터보급소 개설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창간 8주년 특집 I 포함
금주 32면 A판 16면 B판 16면 발행

구독료 이달부터 월 5천원

기존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10월부터 4개면 증면 28면 발행

10월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릅니다.

구독료 조정은 창간이래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간이후 구독료 변동상황

일 시	발행면수		구독료(원)
1994.10.15	16	→	4,000
1997.1.1	20	→	4,000
1997.10.1	24	→	4,000
2002.10.1	28	→	5,000

그동안 불교계 다른 신문은 약 33%가량 구독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더 많은 면수에도 불구하고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신문 1부당 순수 제작원가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발송비·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24면 발행체제를 10월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9월말 현재 구독자인 경우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10월부터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새 구독료를 적용합니다. 한편, 1년 단위 구독신청에 적용해오던 할인제도는 폐지합니다. 영구 구독신청의 경우는 현행 50만원에서 62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신문제작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시멘트 법당 한국불교건축공예는 기초부터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건축공예로 사찰 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될 사찰
흥내는 낼수 있어도 "금"과 "은"의 가치는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안내
■ 건축사업부 건축, 설계,시공,법당,요사채,납골당 등
■ 의식구사업부 번, 연
■ 해외사업부 중국, 미양마,베트남 진출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63-12
대표전화 02)494-4890-1

서울 법당54평(2002년 8월 준공) 경기 법당30평 요사30평(2002년 10월 완공) 대구 법당74평 (2002년 10월 15일 상량) 강릉 법당40평(2003년 5월 완공 예정)
서울 법당42평 요사220평(2002년 12월 완공) 부산 법당140평 지장전 140평(2002년 12월 완공) 전북 법당30평 나한전 20평(2002년 11월 완공) 진해 법당30평 요사30평(2002년 10월 완공)
파산 법당35평(2002년 10월 완공) 포항 법당35평, 요사채50평(2002년 11월 완공) 대구 법당 30평 지장전30평 (2002년 10월 완공) 화주 영각전54평(2002년 10월 완공)

사 설

다시 첫 마음으로

우리의 화두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이 땅의 불국 정토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참구하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계불교의 역사 속에서, 내지는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요익중생의 문화를 계승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했던 수많은 선지식들처럼.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승보살정신을 기반으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예인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장정의 닻을 올린 지

삶속의 불교위한 8년

8개성상.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은 지칠 줄 모르는 철마처럼 달려왔습니다. 사회병리현상, 인간소외, 생태계파괴, 사찰환경파괴, 생명윤리 등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들 제반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파사현정의 심정으로 반인권적 반불교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 별도의 불교적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섭수와 절복을 통해 불조의 혜명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질주하는 말이 사물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듯 본지 역시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성과 아쉬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달리는 길이었기에 사과의 말씀 대신 정도를 걷는 신문, 정론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창간한다는 각오로 사시(社是)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항해 역시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간 8주년을 맞이하는 본지의 각오는 새롭기만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가 그 특징이듯 불교계에도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사에서도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불교언론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면을 새롭게 구성하고 증면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승단, 행정, 시사,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고, 수행, 신행, 생활, 문화를 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난 뒤에도 주위에 적극 권유하는 돌려보는 신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IT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자 미디어부를 신설하여 불교계의 전자신문을 주도해 왔습니다.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라 독자

정보사회 대응 새 출발

제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적 내지는 실용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 주간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깊이 있는 해설과 신행안내, 다양한 정보의 수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면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정과 도전정신은 지니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적 사명감 속에서 한국불교문화의 도약과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불교문화 창달에 신기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독자 제현의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며, 창간 8주년에 즈음한 저희들의 각오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TV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법계구분 휘장 내년부터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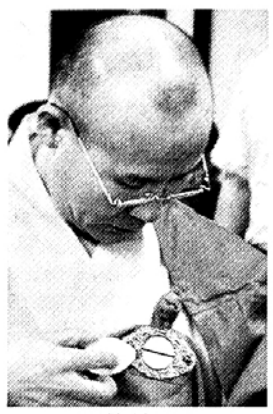
조계종법계위 확정 여섯 색상 구별…반대여론 만만찮아

대종사=황금색 | 대덕=적색
종사=청색 | 중덕=녹색
종덕=황색 | 견덕=가사색

조계종 스님들이 가사에 법계(法階)를 구분한 휘장(표식)을 착용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9월2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보성)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앞으로 스님들은 여섯 가지 색상에 백동을 소재로 한 소형 휴대폰 크기의 타원형 휘장을 부착해야 한다. 실시 시기는 내년부터다.<관련기사 4면>

가장 낮은 법계인 견덕(4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10년 미만)의 휘장은 가사색, 중덕(3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10년 이상)은 녹색, 대덕(2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20년 이상)은 적색, 종덕(1급 승가고시 합격자, 법랍 25년 이상)은 황색, 종사(종덕법계 수지자, 법랍 30년 이상)는 청색, 대종사(종사법계 수지자, 법랍 45년 이상)는 황금색이다.<휘장시안 5면> 휘장에


◇가사에 휘장을 착용한 모습

는 법계명칭을 한글로 새겨 넣기로 했으며, 다만 종덕의 황색은 대종사의 황금색과 유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사도 법계에 따라 조수를 달리해 착용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계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견덕은 7조, 중덕은 9조, 대덕은 15조, 종덕은 19조, 종사는 21조, 대종사는 25조 가사를 착용하게 된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한 눈에 어떤 급의 스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이렇게 될 경우 비구계만 받으면 큰 스님(?)이 되는 현재의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휘장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율원과 선원은 물론이고 강원에서도 반대여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일부 종회의원과 지방 사찰의 주지, 재가불자들 역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휘장 패용에 반대하는 이유를 종합하면 △스님들이 과연 휘장을 착용하고 다니겠는가 △일반인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비쳐질 것이다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만 승가질서가 잡히는가 등으로 요약된다. 휘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제실무연구회는 이같은 논리를 반박한다. 2000년 8월 스님과 학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법계에 맞는 의제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법계를 구분하는 데는 휘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휘장 패용과 관련한 객관적이고도 절적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명우 기자

13대 중앙종회의원 31일 선출

조계종 선관위, 21~23일 입후보자 등록 11월6일 결과 공고

조계종 제13대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직선직 중앙(교구)종회의원 선거가 10월 31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10월 27일 선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일정을 확정, 9월25일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10월1일 선거공고 이후 10월2일부터 8일까지 거주승 신고를 해야 하며, 10월 21~23일 3일간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직능대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0월25일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마감이 이뤄지며, 27일에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가 소집돼 20명의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날은 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도 함께 진행되며, 28일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된다.

10월31일 오후 1시부터는 24개 교구에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며, 11월6일 선거결과가 공고된다.

한명우 기자

6일 조계사 대웅전 해체 고불식 봉행

창건 92주년기념 경내서 사진展도

조계사 대웅전의 해체보수 불사가 오는 6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최근 일주문 건립 기반 공사와 가람확대 등의 불사를 벌이고 있는 조계사(주지 지홍)는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조계사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고불식을 봉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창건 92주년 기념행사로 조계사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전을 연다. 19~27일 조계사 경내에서 마련되는 사진전에는 창건 전후의 모습, 도심 속에서 수행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조계사의 최근 모습 등 다양한 사진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주지 지홍 스님은 "열린 사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대웅전 해체불사 고불식과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불자들은 물론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하는 쉼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2-2115

김철우 기자

국제포교사 고시 시행

조계종 포교원, 11월10일

조계종 포교원은 국제포교사 고시를 11월 10일 시행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분야별로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를 거쳐 각각 00명씩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까지. 포교원에서 실시한 연수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0일 총무원, 포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02)720-7060

박봉영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한·베트남, 함께 세계로…

'회당사상과 밀교' 국제학술대회

진각종,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진각종이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동아시아 밀교사상사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17~18일 이틀간 서울 성북구 통리원에서 연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이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 국제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회당사상과 밀교'.

국내 학자 13명과 해외 학자 4명 등 총 17명의 불교학자들이 참가하게 될 이 학술대회는 △회당사상과 종교적 실천 △밀교의 성립과 전개 등의 분과와 각 분과별 4~5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17일에 열리는 분과에서는 '회당사상의 체계와 특성', '회당의 수행과 실천' 등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 18일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手印)에 대한 사례 연구', '티베트의 밀교수행과 만다라' 등 5개의 소주제가 발표된다. (02)913-0133

김철우 기자

2002년 한국·중국·일본

국제 무차 禪 대법회

21세기 禪으로써 인간성 회복


서옹[西翁]대종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진제[眞際]대종사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에서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인간의 참된 본래 모습을 잃고 정신적으로 깊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정통 조사선을 선양하여 현대인들로 하여금 오묘한 禪의 진리를 알고 행하여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케 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세계 인류평화에 기여코자 고불총림 방장 서옹대종사,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 진제대선사,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대선사,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대선사를 모시고 '국제 무차선 대법회'를 갖습니다.

'참나를 찾는 禪수행'은 진정 인류의 모든 갈등과 반목을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활발발하고 자유자재로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이가 해운정사 무차禪법회에 함께 하셔서 무한한 법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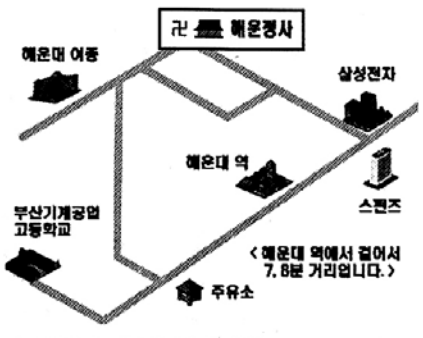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뿌리를 같이 했고
만물은 나로 더불어 한 몸이로다."


정혜[淨慧]대선사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종현[宗玄]대선사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일 시 : 2002년 10월 20일 9:30 ~ 15:00
■장 소 :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TEL : 051)746-2256, 4812
준비사무실 : 051)746-4768
www.seon.or.kr
■증 명 : 법전대종사, 서옹대종사, 서암대종사, 월하대종사
■주 최 : 전국선원 수좌회 지도위원회,
전국선원 비구니 선문회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주 관 : 국제 무차선 대법회 조직위원회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교육원·포교원
전국선원수좌회, 고불총림 백양사, 불교계 언론사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정각회
대한불교진흥원,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에서 내려서 걸어오세요.

■ 대중공양금 동참구좌 : 국민은행 119-01-0324-888 해운정사, 부산은행 032-01-043458-9 해운정사, 농협 909-17-002300 해운정사

경찰청 문화재지킴이 · 단속반 인력확충 불구

비지정문화재 도난 되레 급증

◆연도별 문화재 도난 현황(1994년~2002년 7월)-문화재청 자료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 계	
연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계	회수합계
1994	0 0	0 0	13건 270점	4건 270점	13건 270점	4건 125점
1995	1건 13점	0 0	6건 666점	1건 18점	7건 679점	1건 18점
1996	2건 2점	2건 2점	14건 1,945점	1건 4점	16건 1,947점	3건 6점
1997	5건 99점	1건 11점	18건 950점	4건 7점	23건 1,049점	5건 18점
1998	9건 27점	3건 3점	26건 979점	3건 396점	37건 1,006점	6건 399점
1999	7건 27점	5건 23점	25건 118점	1건 1점	32건 145점	6건 24점
2000	6건 12점	2건 3점	22건 827점	5건 13점	28건 839점	7건 16점
2001	3건 4점	1건 1점	16건 248점	1건 1점	19건 252점	2건 2점
2002	7건 405점	0 0	6건 811점	0 0	13건 1,216점	0 0
계	40건 589점	14건 43점	148건 6,814점	20건 565점	188건 7,403점	34건 608점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올해 들어 급증해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2001년 7월)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력 확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9월 24일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는 811점으로, 이는 지난 해 248점의 3배가 넘는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확대, 문화재 보수공사 부실시공, 석조문화재 안전 문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문화재 도난 여전= 고흥길(한나라당) 의원과 조배숙(민주당) 의원 등은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난 당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188건 7천403점에 달하며, 회수한 문화재는 34건 608점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9년간 도난 당한 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40건 589점인데 비해 비지정문화재는 148건 6천814점에 달해 비지정문화재의 관리가 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01년 이후에도, 2001년에는 248점(16건)으로 전년도(25건 118점)에 비해 줄었으나 2002년에는 811점(6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고 의원 등은 "지난 해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는 국보 238호 소원화개첩 등 3건(4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경상남도 민속자료 1호인 석마를 비롯해 7건(405점)으로 급증했다"며 문화재 도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액 턱없이 부족= 정동채(민주당) 의원은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통도사와 해인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 금액이 많아야 5억원 안팎이다"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박물관은 30%, 관장지의 전시관은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도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이 5억원 내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박물관 건립비 50여억원의 10%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고 거들었다.

◇국보급 석탑이 기울고 있다= 국보 20호인 불국사 다보탑, 국보 21호 석가탑, 국보 112호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이 0.6~1.0도 기울었다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신영균(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이 지난 2000년 12월~2001년 9월 이들 국보급 석탑에 대해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다보탑과 석가탑은 북북서 방향으로 각각 0.6도, 0.9도,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은 남동쪽으로 1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몇 년에 걸쳐 실시한 기울기 변화 점검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어 탑의 기울기가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전문가들도 1도 기울기는 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다. 다만 이들 석탑이 조성 당시부터 기울어진 것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목조문화재 부실 공사= 문화재 보수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도 집중 거론 대상이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전남 순천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과 약사전(보물 302호), 영산전(보물 303호) 등이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공사 중 약품 과다 살포로 목재가 부식되고 단청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방염 공사를 받은 전남 나주시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394호), 전남 순천시 정혜사 대웅전(보물 804호), 경북 경주시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문화재청 국정감사 … 작년 248점의 3배

성보박물관 지원 · 보존대책 등 따져

정부 내년 문화예산 편성

불교관련 예산 187억원

신규사업 '전통사찰 안내 시스템 구축' 포함

내년도 정부의 문화 예산 중 불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4억여원 늘어난 1백87억8천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문화 예산을 1조2천8백15억원으로 편성, 9월25일 발표했다. 이 규모는 문화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로, 올해 1조2천1백15억보다 7백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문화 예산은 일반회계 정부예산 1백11조7천억원의 1.15%로, 2000년 이후 4년째 문화예산이 정부예산의 1%를 넘어섰다.

이번에 확정된 불교 관련 예산은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사업에 51억2천만원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4억원 △내년 말 완공예정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1백2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비는 올해 70억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 1백2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두 1백9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항목 가운데 불교 관련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4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문화재보수비는 올해보다 2백억원이 늘어난 1천7백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전통문화와 유적역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재 안내원을 배치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후원금

1. 불자님은 복지단체나 불교계 목적사업 등에 대해 연간 몇 회정도 후원금을 내십니까?
①5회이상 ②3회이상 ③2회 ④1회 ⑤내지 않는다
2. 후원금을 내신다면 그 액수는?
①10만원 이상 ②5만원 이상 ③3만원 이상 ④2만원 이상 ⑤1만원 이하

설문 참여: 10월 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0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본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달부터

'현대불교'가 10월부터 4개면 증면과 더불어 대대적인 지면혁신을 단행합니다. 다면화되고 급변하는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뉴스 제공을 위해 28면으로 늘어난 지면은 A판 12면, B판 16면으로 섹션화 합니다. 또 시원한 사진 배치와 함께 컬러면도 종전의 4면에서 총 12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면 일대 혁신… A판 12면 · B판 16면 섹션화

수행 · 책 · 생활정보 강화, 컬러 12개면으로 확대

이번 지면개편을 통해 현대불교는 품격높은 정보, 예리하고 공정한 논평 등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파사현정'의 정신을 담아갈 것입니다. 승단과 시사, 불자회 소식, 불자들의 움직임이 주가 되는 섹션 A는 현장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섹션 B의 제작 기조는 '아름다운 삶, 수행하는 불자'입니다. 모든 지면을 참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수행'으로 회통시켜갈 것입니다.

새 지면 새 기획

'우리 불자회는요' (A-7면)
최근 직장직능 불자회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신행 거사 불교를 이끌어 가는 직장 불자회의 활동, 단체장 동정 등을 보강합니다. 각 단체의 회원이 쓰는 불자회의 특색과 자랑이 담긴 '우리 불자회는요'가 신설됩니다.

지방 (A-11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불교계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면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지방의 다양한 소식을 과감하게 발굴, 중점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삶 · 사람 (B-13면)
현대불교가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는 순일무잡한 禪의 경지를 읽고자 합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위, 종교를 초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독자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참된 불자로 살아가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B-14면)
불교는 다경전 다방편의 종교입니다. 나이나 신분, 학식 따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이 설해져 있는 점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불교 신행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에서는 불교의 여러 수행 방편을 사전적 개념 소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바라밀 현장 (B-15면)
실천 없는 앎은 공허합니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빼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바라밀'이 따르지 않는다면 박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살행의 현장을 찾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불교 궁극의 실천행을 구체적 모습으로 그려 보이겠습니다.

불교미술의 美 (B-17면)
한국 문화의 핵을 이루는 불교문화는 유형 문화재에 있어서도 70%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난을 통해서 불교의 조형 세계에 녹아든 불교 사상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낳은 당대의 현실과 불교가 어떤 형태의 만남을 이루었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해명해 보겠습니다.

책 세상 (B-18 · 19면)
인터넷이 정보 전달의 총아로 자리 잡을수록 '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숙성된 정보 제공이나 인류의 앞날에 대한 성찰은 책이라는 형태가 제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여 출판 소식을 2개 면으로 늘였습니다. 불서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문을 열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전문가의 심도 있는 서평을 상설화하여 불교 출판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불교공부 가이드 (B-20면)
본지 상임논설의원 차차석 박사가 쓰는 불교이야기입니다.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생활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 I (B-23면)
여성 건강 노인 복지 알뜰 가계 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불자다운 삶의 무늬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내용들로 독자 여러분들의 충직한 파출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생활 II (B-24면)
남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남의 불행에서 교훈의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동지의 입장에서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가 남지심 씨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방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해결해 나갈 길을 찾아봅니다.

IT (B-27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 따라잡기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전문 지면이 격주로 선보입니다. 전국 사찰의 디지털 불사를 심층 소개하고 불교관련 콘텐츠 소개, IT 업계 CEO 이야기 등을 알차게 다룹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원만성취 나라번영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훤히 열리도다

世界的 禪筆 天馬圖 구도적 예술세계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2002년 5월 제7회 작품전을 거행한데 이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원만성취기원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의 원만성취와 나라번영을 기원하는 불교문화제전을 봉행하며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10월 13일(일) 오후 6시(10월11~10월13일까지 오전 11시~오후 6시)
❀ 장 소 : KBS 부산방송국 갤러리(수영구 남천동)
❀ 기념불교문화강연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교수님의 기념 강연
❀ 기념품증정 : 불교경전, 호신불 목걸이등 기념품 증정 •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玉龍子대길상도의장은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국제적인 인증과 함께 대길상도가 전세계에 전파되지고 있습니다

부산 금강불교 아카데미 총동문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TEL:621-8548~9, 611-8548~9 FAX:625-2741

천년古刹앞에 고층아파트 '웬 말'

서울 미타사 8m거리에 '15층 콘크리트 병풍'

스님·신도 200여명 시공사에 중지요청

비구니 승방으로 이름난 천년고찰 서울 미타사(주지 자원)가 절과 불과 8m 거리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 때문에 질식위기에 처했다. 전통사찰의 보호는 고사하고 조망권 확보도 안된 채 미타사 정문은 물론 대웅전까지 14층 높이의 콘크리트 장막이 병풍처럼 쳐진 것.

미타사와 성북구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은 9월 25일 보문동 현대건설 아이파크(Ipark)조합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최소한의 문화환경권 보호를 촉구하며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절 쪽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지어 법당을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약속위반인 만큼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성북구청도 26일 보문동 Ipark조합에 민원이 야기된 103동에 대한 건설중지 공문을 보냈으나, 건설사는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Ipark조합은 2000년 1월 1차 아파트 사업 승인시 성북구청이 보문사와 미타사에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Ipark조합은 '절의 진입도로 4m확충과 법당쪽으로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을 만들어 주변환경을 고풍스럽게 하겠다'고 제의, 미타사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2차 사업계획변경시 설계도를 변경하여 미타사와의 사전에 합의된 동의조건의 약속을 어기고, 2000년 3월 절 쪽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미타사는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계종 총무원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민·형사상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타사 총무 원호스님은 "비구니 수행도량인 미타사 20여 대중일동은 최소한 사찰앞에 콘크리트 장벽을 쳐놓은 103동을 철거할 때까지 목숨걸고 정진 하겠다"고 천명했다.

보문동 미타사는 고려 원종 원년(서기 970년) 혜거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명 '탑골 승방'으로 널리 알려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미타사·성북구 사암연합회 스님과 신도들이 9월25일 아파트 건설현장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경부고속철 민관협(대구~부산) 불참키로

대책위 "정부 약속 어기고 문화재 시굴강행"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과 관련 구성키로 했던 민관협의체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성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종교대책위가 민관협의체에 불참키로 결의하면서 경부고속철 노선 변경을 위한 반대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정산·천성산 고속철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9월 24일 임기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전에는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협의대상 구간인 법기리와 임기리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종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도관스님은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의 태도는 노선 변경이나 협의체 구성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민관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를 통한 노선 변경을 기대해왔던 대책위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노선변경을 위한 관통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 공약 이행 촉구,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환경·경제적 측면) 개최, 관통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 분도수녀회 함께 하는 생명사랑 촛불시위 등 노선 변경을 위한 반대 운동의 수위를 높혀나갈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프간 소형댐 건설 지원

정토회, "전쟁피해 극심-난민구호 착수"

20여년간 계속된 내전과 5여년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을 위해 정토회가 소형댐 건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아프가니스탄을 답사한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아프가니스탄의 현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인도 불가촉 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을 한 경험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토회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쟈 지역 중 변두리인 6개 마을 2,150명의 주민들에게 폭 8m, 길이 25m 소형댐을 만들어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해 식량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댐은 흙과 돌을 위주로 약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르쟈 근교 하잔드라 등 6개 마을 300여 아이들을 위해 교실 8개, 교무실 1개, 사무실 1개로 구성된 10칸 짜리 교실을 짓기로 했다. 건축 방식은 흙벽돌을 위주로 한 전통방식을 지으며 재료, 기술, 노동력 등은 현지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인근 큐베마릭 학교 학생 200에게는 1년치 분구류, 교복, 신발 등을 지원한다.

칸다하르 근교 빤즈웨이 군에서는 1,062명의 학생들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교실 17개와 신축이 필요한 교실 16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2,0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1년 동안 1인당 문구류 10달러, 교복 및 신발 20달러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빤즈웨이 군 겨울옷과 이불을 지원하고 어린이 3,000여명에게 텐트학교를 설치해줄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대불청 회장선거 27일

조계사청년회 정상옥(44) 지도위원장이 27일로 예정된 대한불교청년회 신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다시 한번 초발심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청년회, 자신감을 갖는 청년회'를 기치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 후보는 대불청 회관 건립 기금 확충, 대불청 상조회 구성, 지도법사단 구성, 만해대학 재정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해 온 정 후보는 조계사 청년회 회장, 대불청 중앙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상암동에 BBS 미디어센터

서울市에 용지매입 신청, 2004년 착공

불교방송(사장 김규칠)이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내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방송미디어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불교방송은 지난 7월 24일 방송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 상암동 226-2번지에 위치한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7만 2,346평 규모다. 이 안에는 방송시설을 비롯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IT관련업체 등 뉴미디어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1,431평의 부지신청을 해 놓은 불교방송을 비롯해 MBC, KBS 영상사업단, CBS, YTN 등 다수의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국이 30일 용지매입 허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방송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암동 B5-3지구 2개 필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2004년에 착공해 200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는 라디오 FM스튜디오를 포함해 인터넷 방송국, 불교영상제작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10억원을 포함해 건물 건립까지 650억원 이상이 소요돼 성사여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스님따라 생명 살리고 싶어요"

한 시민, 사랑의 장기기증에 동참

지난 8월 사경에 이른 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간 기증을 해 화제를 모았던 도우스님. 이번에는 스님의 미담을 전해들은 한 시민이 사랑의 장기 기증 레이스에 동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이상빈(37·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씨. 이 씨는 8월21일 도우 스님의 간기증으로 새 생명을 되찾은 환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조건 없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했다.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스님을 보고 싶다"는 이씨의 소원을 전해 들은 도우스님은 9월 25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씨를 방문했다. 스님은 이씨의 손을 잡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함께 펼쳐가자"고 다짐했고, 이에 이 씨는 "도우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내 간 기증을 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도우스님은 "간 기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격려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너무나 뜻 깊은 일"이라고 기뻐했다.

장기이식 수술을 한지 1달을 맞아 거의 회복 단계에 있는 도우스님은 이달중 양산 통도사로 내려가 수행자의 길을 다시 걸을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위덕大, 조계종에 군승문제 결단 촉구

위덕대 군승장교 선발대학 지정 문제와 관련, 조계종과 진각종의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진각종은 9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 불교종단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고, 종단 차원에서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덕대는 지난 9월 26일 '군승문제에 대한 조계종의 대아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조계종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1월 군승문제 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태종 금강불교대학과의 연대모색, 진각-위덕 군포교 백서 발간 등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위덕대 박희택 기획과장은 "법률자문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끝까지 군승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목탁소리 가사휘장 고민해야 할 이유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9월 25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법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사에 부착키로 한 휘장의 시안품을 놓고 모양과 색상, 재질에 대한 토론을 벌인결과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불교계 신문 취재기자들의 생각은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우선 가사에 금속으로 된 휘장의 부착 모습이 어쩐지 승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여섯 가지 색깔로 법계를 구분함으로써 승가를 '계급화'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였다.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중진 스님들과 선원 강원 등의 견해를 들었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불교의 평등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대다수가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군인이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스님도 있었고, 법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식 외 다른 방법은 없느냐"며 금속 휘장 패용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스님도 적지 않았다.

조계종은 6년 전부터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부터 시행된 사미의제 착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따라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가위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진정한 승가 위계는 '제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계가 너무 엉망이어서 '제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계급화'가 돼서는 곤란하다. 현실성이 없거나, 대부분이 공감하지 않는 제도는 혼란만 부를 뿐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의제실무연구회가 찾아야 할 답도 바로 이것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김도원

총무 서덕재 교무 정도웅
재무 지설혜 노전 김구해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윤인오, 오귀분

사부대중일동합장

삼광사 신도회

◇총무위원 김종기 ◇기획위원 조수웅
◇교무위원 김수웅 ◇조직위원 이영균
◇재무위원 이화순 ◇홍보위원 김형대
주량월자 ◇섭외위원 문경용
신순옥 ◇부녀위원 김화순
◇사업위원 민철규

지회장단

◇부산진구지회장 한옥현 ◇동래구지회장 김석홍
◇남구지회장 장군섭 ◇해운대구지회장 하기수
◇금정구지회장 이상호 ◇북구지회장 차재철
◇영도구지회장 이병호 ◇사하구지회장 김범두
◇동구지회장 구영회 ◇서구지회장 윤철준
◇중구지회장 최종경 ◇강서구지회장 송종관
◇연제구지회장 이선장 ◇수영구지회장 강재복
◇사상구지회장 문찬철

삼광사 정기법회 : 매월 양력 1일, 2일 오전 11시 지관전 불교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 (051) 808 - 7111~5 FAX : (051) 803-1332
인터넷 삼광사 (http://www.samkwangsa.or.kr)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사미반 00명

구비서류

①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⑤주민등록초본 2부
②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⑥호적등본 2부
③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⑦건강진단서 2부
④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⑧은사스님 추천서 1부

준비물

①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②입학금 ③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입방 ◆서류제출일 - 불기 2546년 9월 10일 (양력 2002년 10월 15일) 화요일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6년 9월 11일 (양력 2002년 10월 16일) 수요일
◆입방일 - 불기 2546년 9월 12일 (양력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문의처

● 전화 (055) 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인사 승가대학 주지 수봉세민·학장 정혜지오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와 발전이 시작됩니다

·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준공

2002년 9월 27일(금)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병원현장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테이프 절단식이 9월27일 정문앞에서 개최됐다. 왼쪽 6번째부터 조계종 원로회의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장 도원스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송석구 총장,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전일본불교회 오타니코신회장.









◇환자들의 신체고통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선센터(왼쪽 위), 골수염 백혈병 장기이식등에 꼭 필요한 최첨단 무균실 입구(왼쪽아래)준공식에서 법문하는 조계종정 법전스님. 뒤로 보이는 건물이 동국대 불교병원 전경(오른쪽 위),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4개동을 연결시킬 수 있게 설계된 드넓은 병원로비(오른쪽 아래). 사진=고영배 기자

양·한방 협진 최첨단시설 완비

동국대 불교병원 27일 준공식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등 사부대중 5천명 참석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이하 불교병원)' 건립은 2천만 불자와 동국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총 1000병상…강북지역 최대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벽돌 한장 한장을 올려준 1만여명의 불자들이 있었기에 건립될 수 있었다.

동국대는 9월 27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 재단이사장 녹원, 원로의장 도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송석구 총장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병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국대학 악사여래의 본원을 받들어 병원을 낙성하니 바로 이곳이 한량없는 보배를 지닌 곳"이라며 "모든 중생이 이곳을 찾아 몸을 다스리면 질병이 소멸되고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했다.

불교병원의 특징은 불교교리에 입각한 인간중심의 건축, 국내 유일의 저 체온실 등 최첨단 시설, 호텔처럼 안락한 환경, 병원 정보화의 결정체, 양·한방 협진 시스템 등이다.

'인간중심적인 병원'을 기치로 내건 불교병원의 가장 큰 원력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선(禪)센터와 환자 치유법회를 여는 법당을 특별히 마련했다.

불교병원은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뉴욕주립대, 중국중의학대학 등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양방과 한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협진체제를 구축한 불교병원은 27,626평 부지에 대지 8,885평, 건평 3,041평 양방 800베드, 한방 200베드 등 총 1000병상을 갖춰 강북 지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불교교리에 입각한 건축도 돋보인다. 사법인(四法印)을 상징하여 4개동으로 이루어진 불교병원은 사성제(四聖諦)를 의미하여 4층으로 건립된 외래진료동, 12연기(緣起)를 의미하여 12층으로 건립된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례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불교교리 입각해 건축

주출입구는 불교의 실천수행 가르침인 팔정도를 의미하는 열주기둥 여덟 개를 세웠고 외곽의 기둥 10개까지 합해 우주를 상징하는 18계(界)를 표현했다.

병원내부는 호텔처럼 안락한 시설을 자랑한다.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외래진료동, 입원동, 중앙지원동, 영안동의 4개동이 서로 연결되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배치돼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시설은 국내 병원 중 가장 우수하다. 16개의 수술실과 국내 최초로 심장수술을 위한 저체온(15℃이하 수술실을 국내 처음으로 갖추었으며, 골수염, 백혈병, 장기이식 등에 꼭 필요한 무균병실 등이 있다. 성인병, 노인병 전문 클리닉을 개설, 진료시스템과 연결된 종합건강센터와 무수한 응급환자들이 드나들 응급의료센터도 성인실과 소아실로 구분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든 병실 안에도 화장실을 갖추어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병실의 병문안도 각 병동에 마련된 3개의 DAY ROOM에서 만날 수 있어 다른 환자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저체온 수술실 국내유일

정보화 시설도 수준급. 동국대 의대 한의대 학생들이 수술실의 수술 장면을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강의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의학전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장례식장은 VIP용 4실을 비롯하여 일반실 14실, 총 18실을 두고 있으며, 불교식 장례를 위한 영정단이 기존 병원보다 넓은 것이 인상적이다. 송석구 총장은 "동국대 불교병원에 드는자 모두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탐진치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 병원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향기롭게 은혜입는 거룩한 도량으로 영원히 간직되도록 불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스님·불자 평생진료 도입"

재단 이사장 녹원스님 인터뷰

▲30년 전부터 불교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공 소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와 같은 대형 병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 동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전 불자들의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넉넉지 못한 경제 환경에서도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 불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병원, 암센터등 고양시내 4개 종합병원과 차별화 대책이 있는지요.

"우리 병원의 치료대상은 육체적 질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 고통의 원인인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참회와 하심, 선과 명상, 끊임없는 보리행을 통하여 종국에는 심신 공히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이 우리병원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재단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아 개원이 늦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원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아시고 보아주시면 반드시 원만한 타결책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불교병원은 스님과 불자들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이제야 명실공히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불자들에게 평생 진료제도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편안히 이용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개원 왜 늦어지나

정관개정지연 전문인력확보 난항

9월 27일 준공한 동국대 불교병원이 왜 곧바로 개원하지 않는가에 불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원래 12월 개원에서 빨라야 내년 3-5월로 미뤄진 가장 큰 원인는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생된 전문의료인력 수급 차질 때문.

현재 이사회에서 병원 직제와 인원등을 규정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전체인력 576명 가운데 280여명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고도 합격여부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나머지 296명에 대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한 뒤 의료장비 구입과 시험가동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계종 특위, 동국학원, 동국대가 개원을 앞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동국대 이사장, 총장, 의료원장 인사를 앞두고 새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며, 불교병원이 결국 희생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특위는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검증된 인적자원을 확보해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 조계종 승려이사들은 '송 총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반응. 송석구 총장은 '이사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했고, 일을 강력히 추진하다보니 오해가 있다'는 얘기.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입장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학교와 병원의 신뢰도와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상개원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하여 유급위기에 놓인 동국대 의과대 학생회는 "10억여원의 시설관리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학교가 조속한 개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사휘장 6가지 색상 육바라밀의 뜻 담겨



의제실무연구회가 디자인한 휘장은 지혜의 눈을 상징하는 타원 모양으로 가사에 부착하게 된다.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4.2cm이며, 타원형 안의 원은 지름 2.9cm다.

여섯 가지색상은 육바라밀에서 착안한 것으로, 견덕(가사색)은 '인욕' 중덕(녹색)은 '정진' 대덕(적색·사진아래)은 '열정' 종덕(황색)은 '풍요' 종사(청색)는 '용기' 대종사(황금색·사진 위)는 '포용'을 상징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심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의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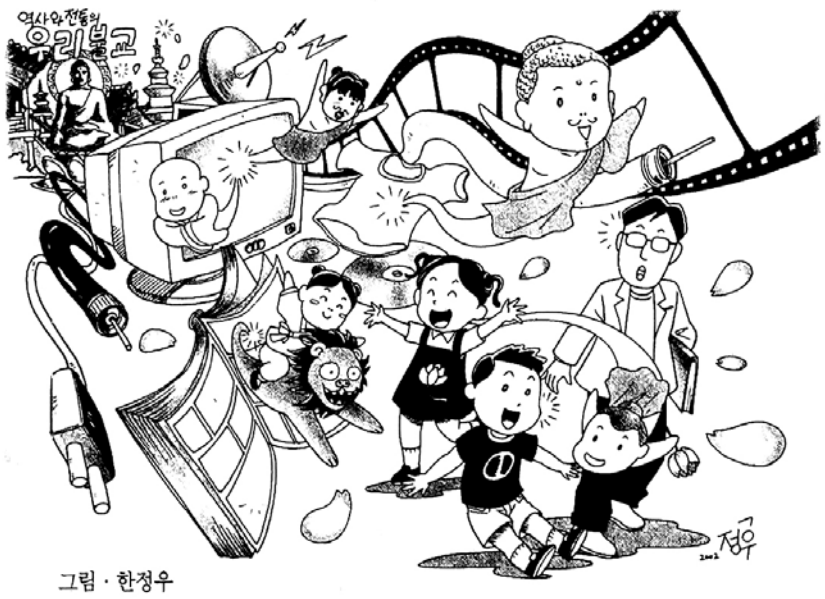


그림 · 한정우

무궁무진한 소재 활용 미래佛敎 희망을 연다

정보사회의 핵심은 콘텐츠다. 콘텐츠의 경쟁력이 정보사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콘텐츠 개발 · 보급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콘텐츠 산업도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도 그 규모면에서 뒤질게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창의력이다.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무한 창작이 가능한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풍부해 엄청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불교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굳이 산업적 측면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불교를 알리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흥해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콘텐츠는 사람의 창의력과 감수성 등 지식을 이용해 만든 상품이다. 즉,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순수 창작물이 문화콘텐츠에 해당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연꽃, 만(卍)자, 코끼리, 법륜마크 등을 주로 이미지화해 의류, 악세사리 등에 약간씩 사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단을 비롯해 개별사찰, 신행단체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나 캐릭터를 개발해 포교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계종은 총무원 산하 행사기획단을 중심으로 지난 96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한 캐릭터는 아기부처님, 동자승, 꽃비 휘장 등 120여점 정도. 지금은 불교행사 현수막, 포스터, 신도카드 등에까지 캐릭터가 활용되어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타종교와도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총무원 전산실에서도 불교종합정보센터인 달마넷을 통해 10월경 플래쉬 애니메이션 공모를 실시, 불교문화콘텐츠 저변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행사기획단 박상희 간사는 "불교가 그동안 옛날 것으로만 인식되었는데 캐릭터 개발 이후 주위로부터 불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봉축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봉축 웹카드가 네티즌 불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문양을 정리해 CD로 무료 배포했고, 외국인들을 위해 영문 불교미술전문사이트 코바(http://www.buddhapia.com/eng/koba/index.html)를 개설, 인터넷 상으로 불교미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계사, 운불련 등 일부 사찰과 신행단체에서도 로고와 심벌마크를 개발해 문서나 봉투, 사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불교문화콘텐츠는 캐릭터가 중심을 이룬다. 게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음악 등 영상세대들이 좋아하는 영역에는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저변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님들의 정보화 인식, 즉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투자금액의 수십수백배 이상의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영상세대다. 불교계에서 청소년들의 구미에

창작가능 시나리오 · 캐릭터 등 큰 잠재력
종단 · 사찰 · 신행단체 상징물 포교에 효과
게임 · 애니메이션 부문 아직 미미한 수준
영상세대 걸맞는 질높은 내용 개발돼야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등 불교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진각종은 지난 98년부터 시각이미지 통합작업을 실시해 심벌마크를 비롯 진각서체 및 '깨침이'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고 바인더, 노트, 휴지케이스 등 해마다 포교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올 8월 불교문화 강습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불교문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불교문화 대중화를 통해 현대화된 종단 이미지까지 창출하고 있다.

진각종은 또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종단내에 영상자료팀을 구성하고 현재 영상소스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에 영상관련 청소년 동아리 결성을 추진하고 인터넷 방송국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부다피아 홈페이지(www.buddhapia.com)에서 봉축 웹카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듯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질높은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종단이나 사찰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힘들다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국가가 공공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문화원형 콘텐츠디지털화 공모 등을 활용해 볼 만 하다.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 정부는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불교계도 종립학교 등에 문화콘텐츠 인재를 양성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호남대 인터넷미디어학부 정석규 교수는 "종단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플레쉬 애니메이션 경연대회와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한다면 불교문화콘텐츠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은 불교문화콘텐츠는 어린시절부터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불교사상을 일상생활화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불자적 심성을 길러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세계 5대 문화콘텐츠國 목표"

인터뷰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리문화 원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한국과학원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삼성전자 미디어콘텐츠센터장(전무) 등을 지낸 IT · 문화콘텐츠산업 전문가다. 서병문 원장에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진흥원은 2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출판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 제작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기술, 자금, 인력지원 등 중소 콘텐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 제작, 공급, 마케팅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적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를 개발 ·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문화콘텐츠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월령공주' 등의 명작들은 일본의 문화가 멋지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콘텐츠의 특성에 맞도록 자국의 문화 특징을 잘 가공해서 넣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용어인 CT(Culture Technology)란 문화콘텐츠를 제작 · 유통하는데 필요한 지적 노하우와 물리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콘텐츠'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정부는 CT를 정보기술(IT)등과 더불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원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과 관련된 각종 1차 자료를 말하는데,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전자책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에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와 콘텐츠 개발자들은 우리의 불교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사업과 그 기술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세계화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형콘텐츠화 사업공고를 했을 때 총 22개의 선정작 중 3개(13%)가 불교관련 문화원형소재였다는 것을 봤을 때 불교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CT'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
독창성 · 차별화로 세계시장 진출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콘텐츠화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에 기초를 하되 '차별성'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개발된 콘텐츠가 관련 기반산업의 콘텐츠 창작역량 활성화와 세계적인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독창성과 차별화 전략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을 위한 진흥원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수출산업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콘텐츠 생산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해외시장 진출 최우선화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산업 인프라 발전기반 구축 △지방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정립 등의 5대 중점 추진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내외의 문화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5%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문화콘텐츠수출대상'을 신설하고 우수업체를 선정 시상할 예정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며 우리 문화원형 중심의 경쟁력 있는 창작콘텐츠 제작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콘텐츠리소스센터(KCRC : 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를 구축 ·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식 기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2년 9 · 10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화보 / 틱낫한 스님과 플럼 빌리지 2002 여름 수련회 이모저모

불교쟁점 / 무엇이 불교적인가
• 과연 판리어본만을 불교 원전이라 할 수 있는가
- 불교 근본주의자의 잘못된 경전관과 그 폐해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아이스 에이지(ICE AGE)
-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불교적 가르침을 찾는다

특별기고 - 지난 호 특집 '외국인 스님의 국내 정착 문제'에 대한 반론
• "외국인 스님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만난 불교문화
• 진홍섭 선생의 잊을 수 없는 유적 조사 - 봉화 북지리 석반가사유상과 마애여래불

컬러회보
• 사찰의 또 다른 멋, 벽화를 찾아서 -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특별기획 시리즈 / '생명' ① - 불교에서는 사형(死刑)을 어떻게 보는가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사형에 대한 기존의 찬, 반 논의를 넘어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함께 불교에서 보는 사형(死刑)에 대해 조명한다.
• 사형제도 왜 논란이 되는가
• 기독교 입장에서 본 사형
• 불교에서 보는 사형

탐방 / 한 · 몽불교문화교류법회를 다녀와서
몽골 불교의 오늘 - "몽골에는 불교는 있지만 부처님 말씀이 없다"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석굴암
• '불목하니 헌화가(獻花歌)' 2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719-2606, 팩스 : (02)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현장…

"게임 통하면 교리 쉽게 익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세울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문화콘텐츠다. 특히 엄청난 문화적 잠재성을 가진 불교문화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미래시대 불교를 주도해 나갈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 현장을 소개한다.

◐ 적경스님

적경스님(남양주 봉인사 주지)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흥미있게 불교교리를 가르치고 불교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스님은 현재 '탄이의 불교여행 모험(가칭)'이라는 불교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 캐릭터 작업도 끝났고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탄이의 불교 여행 모험'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모습이 없다. 마치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무예와 검법의 재미까지 가미시켰다. 교리에 대한 문답과 상황에 따른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성은 어느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적경스님의 게임동자캐릭터.

◐ 정석규 교수

호남대학교 인터넷미디어대학 정석규(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교수는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2차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자로 선정, 한국 불화(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국적 캐릭터로 재창조해 내고 있다.

불화속에는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그리고 보살이나 호법신의 명을 받아 직접 일을 수행하는 판관, 귀왕, 사자, 야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한다.

"한국불화는 계급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친화적 캐릭터 개발이 용이하여 포켓몬스터나 디아블로 게임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게 정 교수의 신념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불화와 관련된 국내 서적을 모두 구입해 문헌 조사를 마친상태.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 김정현 학예연구관이 캐릭터를 선정해 고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탱화전문화가 고영을 씨가 그린 밑그림을 일러스터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불교적 특성이 강한 2D, 3D, SD 캐릭터 100여종과 이들 캐릭터를 이용한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캐릭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누구나 무료로 캐릭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미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석규 교수가 개발한 사천왕캐릭터.

◐ 엔알케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청장 만봉스님, 서울 신촌 봉원사를 비롯해 전국 유명사찰 단청 8000여점이 스님의 작품이다. 그 가운데 문양위주의 작품 500점과 스님의 단청기술이 한 불자 기업에 의해 원형보존된다.

포장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엔알케이(사장 정명희)는 지난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제 2차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서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 연구'라는 아이디어를 내 공모자로 선정,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만봉스님의 단청문양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엔알케이가 불교문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정명희 사장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문양을 활용해 집안의 상징 등으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깊었고, 귀국한 뒤 줄곳 신촌 봉원사를 원찰로 신행생활을 해 자연스럽게 만봉스님의 단청과 불교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문화원형사업 공모를 보고 만봉스님이 올해 세수 93세로 연로한 것에 착안, 스님의 단청기술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



◇엔알케이가 만용스님 단청문양을 비행기에 적용한 모습.

탱화등장인물을 한국적 캐릭터로
단청문양 디지털화 작업 진행중
삼국유사 설화 50편 애니메이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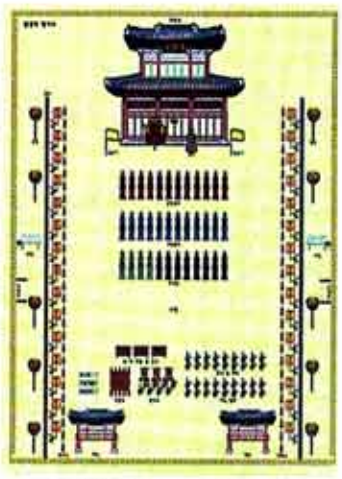
만봉스님도 정명희 사장을 위해 현재 직접 문양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스님의 그림은 스캔후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옛 건물에만 사용되는 단청문양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현대적 문양으로 거듭나고 있다.

◐ 투알엔디

고려시대의 팔관회는 불교를 배경으로 행해진 의식이지만 국내외에 고려의 정치, 외교적 독립성과 우위성을 천명하는 자주, 실리 외교의 장이며 국부 증대에 기여한 국제무역박람회장이었다.

(주)투알엔디(사장 최재완)는 '고려 팔관회의 국제박람회 요소를 소재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아이디어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제 2차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에 채택됐다.

투알엔디는 '팔관회'의 국가의례적 모습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비주얼 요소의 복원을 통해 정치와 외교, 문화와 종교, 무역 등 3가지 관점에서의 특성을 게임 시나리오화할 계획이다.


◇투알엔디의 팔관회 이미지 맵.

이를위해 역사연구회 대외관계사반 소속 소장학자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팔관회 참관, 신촌 봉원사 영산재 자료확보, 목포 해양박물관 답사 등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8월13일~19일에는 고려시대 흑산도의 교역항으로 유명한 명주 등 중국 일대를 돌며 문헌수집을 완료했다.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 전문회사인 투알엔디는 내년 6월까지 현대적 시각으로 팔관회를 재 복원해 시나리오 형태, 캐릭터, 이미지, 배경화면 등으로 콘텐츠화해 게임 등 산업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 시공테크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져 버린 것들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시공테크(대표이사 박기석)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코리아비주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지, 백제를 대표하는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불교문화재와 중국 당나라때 활약했던 고선지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을 3D로 복원했다.

1988년 설립된 시공테크는 10여년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오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이르기까지의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그 종류만도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불교관련 사진자료만도 5천여점이 넘고, 불국사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중창되기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있어 사찰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다. 아직까지 전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공테크는 이같은 자료를 이용해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라는 두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영문판까지 출간되어 현재 외국 박물관 등에서 구매 요청이 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은 불교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한국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31일 설립됐다.

한국문화를 말할 때 불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획단은 불교문화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캐릭터, 시나리오, 게임, 음반 등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교문화 운동을 펼쳐 그 저변을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통한 불교문화 인프라 구축 등 산업적 인프라 구축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창립과 함께 불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우선 '아름다움과 깨달음-근 현대 의술작품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국 순회 전시회를 기획하고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 전시후에는 속초, 여수 등 지방 중소 도시를 돌며 불교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 동국역경원

지난해, 37년간의 불사끝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동국역경원은 2001년부터 10년간 국고지원 40억원을 포함해 총 80억원의 경비를 들여 한글대장경 재번역작업과 전산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엄경 등 불자들이 많이 읽고 있는 일부 경전은 전산화가 이미 끝난 상태다.

◐ 이종욱 교수

위덕대학교 국문과 이종욱 교수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 130여편 가운데 설화의 배경이 된, 지명이 확인 가능한 50여편을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군신화, 박혁거세, 화랑연화 등 삼국유사 앞부분에 실린 10여편의 설화들을 동화로 각색해 애니메이션작업을 마쳤다.

김두식 · 이한길 기자

조계사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고불식

한국불교 대표사찰이자 도심 속 열린 사찰 조계사는 대웅전을 보다 여법하고 안전하게 중수하는
수불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고불식을 봉행합니다.
까지 않으신 모든 사부대중께서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불기 2546년 10월 6일(日, 음력 9월 1일) 오전 11시
내용 | 팔리어 삼장 봉헌, 대웅전 해체보수불사 선포, 석주큰스님 법어
대웅전불사 원만성취기원108배, 판화작가 강행복 作 조계사 판화 탁본 배부, 범종 타종 체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문의 | 종무소 (02) 732-2183~4 홈페이지 www.ijogyesa.net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홍 합장

창건 92주년 기념행사

창건기념 음악회
주제 : 맑은 환경, 청정한 마음
일시 : 10월 26일(土) 오후 7시
장소 : 경내 야외무대
출연 : 범능스님, 시명스님, BBS 아나운서 이현정
조계사 합창단(특별출연: 아리랑가무단)

조계사 변천사 사진전
제목 : 조계사, 시간의 흐름展
기간 : 10월 19일(土) ~ 27일(日)
장소 : 경내 야외전시장
* 조계사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합니다.

조계사포럼 세미나
주제 :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지구의 재발견
일시 : 10월 24일(木) 오후 2시
장소 : 불교회관 1층

추계 사생대회
일시 : 10월 27일(日) 오전 10시
장소 : 대웅전 앞
참가대상 : 어린이, 청소년
참가부문 : 시, 수필, 그림

한마음 운동회
일시 : 10월 20일(日) 오전 11시
장소 : 풍문여고

목어 깨달음의 길목



"아아! 초목은 무정물인데도 때가 되면 낙엽져 떨어진다"

송대(宋代)의 대 문장가 구양수가 가을 소리를 들으며 탄식한 말이다. 무정물인 초목도 시드는 때가 있는데 온갖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탄식이 뒤따른다.

가을을 느끼는 감회들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무언가 쓸쓸하고 허무한 느낌이 많은 것 같다. 휀지 옆구리가 휑하니 빈 것 같은 느낌, 거기로 찬바람이 휘잉~ 불어드는 느낌…,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에 처연해 지곤 할 것이다. 거둘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리는 가을의 기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일까? 아니면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어차피 시들어 지게 마련인 생명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아픈 감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자연의 순환으로 본다면 낙엽지고 시드는 것도 생명의 한 과정일 따름이다. 가을과 겨울의 심판이 없다면 어찌 봄의 새로운 태동이 있으랴! 그런 각도에서 크게 보면 죽음도 보다 차원 높은 생명의 한 과정일 따름이다. 나의 삶만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큰 생명의 한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무상한 것으로 따지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에 대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삶과 죽음에 초연하며,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쉽게 주어질 수 있는 답안은 사랑에도 애견(愛見)과 자비(慈悲)가 있다 하는 것일게다. 애착에 바탕한 감상적인 사랑과, 무상함을 꿰뚫어 보며 집착없이 베푸는 사랑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집착과 무지 때문에 애견(愛見)이라 불릴망정, 그것이 바로 대비심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원래 그런 것을…" 하는 무심함보다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덧없는 사랑이라도, 그 때문에 오는 덧없는 감상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싶다. 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의 조그만 망상일지라도….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아파트값 인상도 망상 · 집착에서



정기문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정부는 최근에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소위 '9 · 4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금년 들어 벌써 세 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의 대책이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응급처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신도시 개발, 양도세 개편, 재산세 개편, 아파트 청약제 개선, 심지어 교육정책까지를 망라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그야말로 종합 대책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투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부동산 안정대책의 수단으로 삼는단 말인가.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워낙 높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부동산값이 치솟는 근본적 이유가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교육정책을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을 전도시키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은 왜 항상 불안정한가?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부족과 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첫번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규제나 조세 정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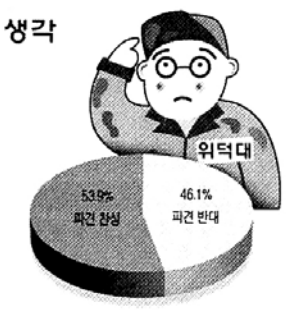
또 부동산 시장에 과열된 투기가 문제가 된다면 투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투기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투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세상의 모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다. 도처에 투기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려 있는데, 그것들은 제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규제나 처벌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것'이라면 저것을 없애려면 이것을 제거하는 길 밖에는 올바른 길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강원도 산골 집값의 열 배, 백 배가 되는가? 서울 강남의 집이 우리에게 그 만큼 더 안락하고 편리함을 주기 때문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서울 강남의 집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 속으로 만들어 낸 망상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지어낸 망상들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들어 낸 망상에 집착하여 삶을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군승파견



최근 조계종은 진각종의 종립 위덕대를 군승파송학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

'위덕대 군승파견' 반대 안해 53.9%

사한 결과 총 응답자 76명 가운데 41명(53.9%)이 공감하지 않는다, 35명(46.1%)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2명(48.9%)이 군법사 수급문제 해소, 10명(22.22%)이 군포교 여건개선, 6명(13.3%)이 종립학교 활성화와 위상제고 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8명(47.4%)이 종지종통의 차이로 인한 혼돈, 14명(36.8%)이 기존 군승단 운영의 혼란이라고 답변했다.

생명윤리법안 찬 · 반 '팽팽'

최근 '체세포 복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싸고, 종교 · 시민단체와 생명공학계 사이에서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의 착상 · 임신 · 출산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정자와 난자를 파는 행위,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과 같은 이종간 착상 등도 금지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는 연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종교 · 시민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명윤리란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둔 점과 관련,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윤리측면서 종교 · 시민단체들은 환영

생명공학계 치료용 배아 연구 길 막혀

생명공학계는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조차 어려워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치매와 파킨스병, 당뇨병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인간 개체 복제만 금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들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어설명

▶배아=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8주 내지 9주까지를 배아라 한다. 배아연구 허용범위는 각 세포가 예정된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원시선의 출현(수정후 약 14일째) 전까지.

▶배아 줄기세포= 초기 배아의 내부 세포층에서 채취하며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

▶체세포 복제= 인간의 몸에서 세포를 확보한 후 여기서 추출된 핵을, 난자에서 제거된 핵에 이식해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생명윤리법 인간존엄성 확보 의미 유전자 조작 · 도덕성 문제는 별개"

기고 김용정(생명윤리자문위 자문위원)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의 특징은 '생명공학 발전'보다는 '생명윤리 존중' 쪽에 무게를 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불교계를 대표하여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만드는 데에 동참했던 만큼 그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본인은 유전자 조작과 윤리 · 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명공학은 유기론적 ·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유기론적으로 보면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윤리 · 도덕적 문제는 결과에 대한 예측일 뿐이다. 복제했다고 똑같은 수는 없다고 본다. 각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업까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창조가 신의 고유 권능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다.

조건이 맞으면 생겼다 조건이 맞으면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적 시각이다. 조건의 창출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달려있다면 예상되는 이후의 문제 역시 인간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이번 복지부안은 원칙적으로 과기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은 양 부처간에 잘 협의 될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폭탄테러국 소녀에 신장 기증

죽어 한생명 살린 이방인

팔레스타인 측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에서 숨진 스코틀랜드 출신 대학생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한 팔레스타인 민족의 소녀를 살려냈다.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 이스라엘에 유학 온 이 대학생이 치료 중 숨지자 가족들은 그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고, 신장은 이식 대기자 명단의 순서에 따라 한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이식됐다. 숨진 대학생의 가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이지 국적과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해 다툼의 근본을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셨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말고, 자비심으로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스코틀랜드대 학생의 팔레스타인 소녀에의 신장기증은 인류애의 표현이다.

▨그들을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숫타니파타

▨누가 네게 성내어도 성냄으로 갚지 말라. 악에 대해서 악한 마음 내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 없애야 한다.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마땅히 성현이라 부를 수 있다. 잡아함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昻明人中師一点
통일부장관상수상
天開眞人 泰日大師 作品
동양미술대전특선 및 동경 국제서화대전 문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 치매, 중풍등 각종 병마를 이기는 법회에 동참하시어 만수무강 하시는 대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웅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훔한터, 수맥차단, 초상, 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학업, 진학, 고시 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고 본 종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천년에 한번드는 서성명성의 우담바라의 비밀과 동방의 대운으로 15진주 대도통군자를 배출하며 삼라만상 영과혼 일체창생을 얻는 진인경신도통 임오경전 대법회에 입문하시어 종교통일 세계평화통일 불국정토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상통 천문하달 지리의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천지인을 통철하는 진개의 무위진인 최상승법의 기도에 그대를 초청하오니 이 득도로써 生과 死를 제도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이세상의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무위진인의 스승은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관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心

대도통군자 15진주. 동방의 대운으로
生과 死의 창생 진인경신도통대법회

제72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임오년 10月 18日 子시와 19日 오시(음9月 13, 14日)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잣대를 얻어 천안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잣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하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후천 미륵 달마도법의 요즘의 시대는 팔조신장이 지구촌을 삿삿히 인과법으로 중음신과 잡신(수마,인마,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겁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용맹정진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건강 수명 장수 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인간에게는 주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와 하늘에 의지하거늘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고 도를 통하여 어디에 쓸려고 고행하십니까! 이번 법회에는 생명을 노리는 중풍, 치매, 혈압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이러한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오니 입문하시어 견선득도하여 수명장수 하소서.

● 입제 : 10월 18일 금요일(해시) ● 해제 : 19일 토요일(해시)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85, 25, 95, 26, 303, 142, 26-3, 102번 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미륵 진인 경신 도통회장 天龍眞人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진불선원장 泰日法師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禮敬室長 閔法顯

■ 總務院長 李雲山
副 院 長 尹慈月　副 院 長 成修琮
副 院 長 成圓峰　企劃監査室長 禹慧空

總務部長 金越海　教務部長 金法性
財務部長 劉智弘　事業部長 林虎溟
社會部長 金一蘆　糾正部長 金慶潭
教任部長 高東佑

■ 中央宗會 議長 朴芸谷
副議長 柳旰潭

■ 中央護法委院長 金法藏
副院長 金月雲

▷총무원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 화 : 02) 745-2030 / 팩 스 : 02)745-1615
www.taegonet.com(총무원) / www.ibudnews.com(한국불교신문)

1902~2002
회당

참여 화합 회향

즐거운 신행, 하나되는 신행, 함께하는 신행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만다라 세상 진각증이 함께 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http://www.hoedang.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 泓 坡
副 院 長 金 智 攝

總務部長 黃法明　教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朴松月　副 議 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 주 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전 화 : 02)763-0054 / 팩 스 : 02)763-5851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원로원장 : 양지은 감찰원장 : 장혜운 포교원장 : 박보산 문화원장 : 김보경

총무원
총무부장 허지웅　규정부장 한보각　총무국장 송보혜
재무부장 정보문　사회부장 이법진　재무국장 박정혜
교무부장 장보일　포교부장 박보민　교무부장 강보연

서울종무원장 채정수　전남종무원장 최보담　충남종무원장 한보각
경기종무원장 김보인　울산종무원장 김청운　부산종무원장 황월담
광주종무원장 허지웅　인천종무원장 박보산　경남종무원장 김보경
경북종무원장 정호진

종회의장 남지산　부 의 장 이보운, 신지담　사무총장 편보성
상벌위원장 이보운　선관위원장 김보경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 총본산 칠보정사 전화 : 055)883-7771 · 7790 / 팩스 : 055)882-9916

대한불교 조계종

혜 원 정 사

조 실 고산 혜원
주 지 원허 효명

고산장학회
선지식회
자비회
만불회
지장회
관음회
연꽃부부회
선원대중
혜원합창단
청년회
대학생회
중 · 고등학생회
어린이회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 4동 1113-1번지
▷ 전 화 : 051)866-7771~3 팩 스 : 051)866-7777

찬 덕 연 등 제 작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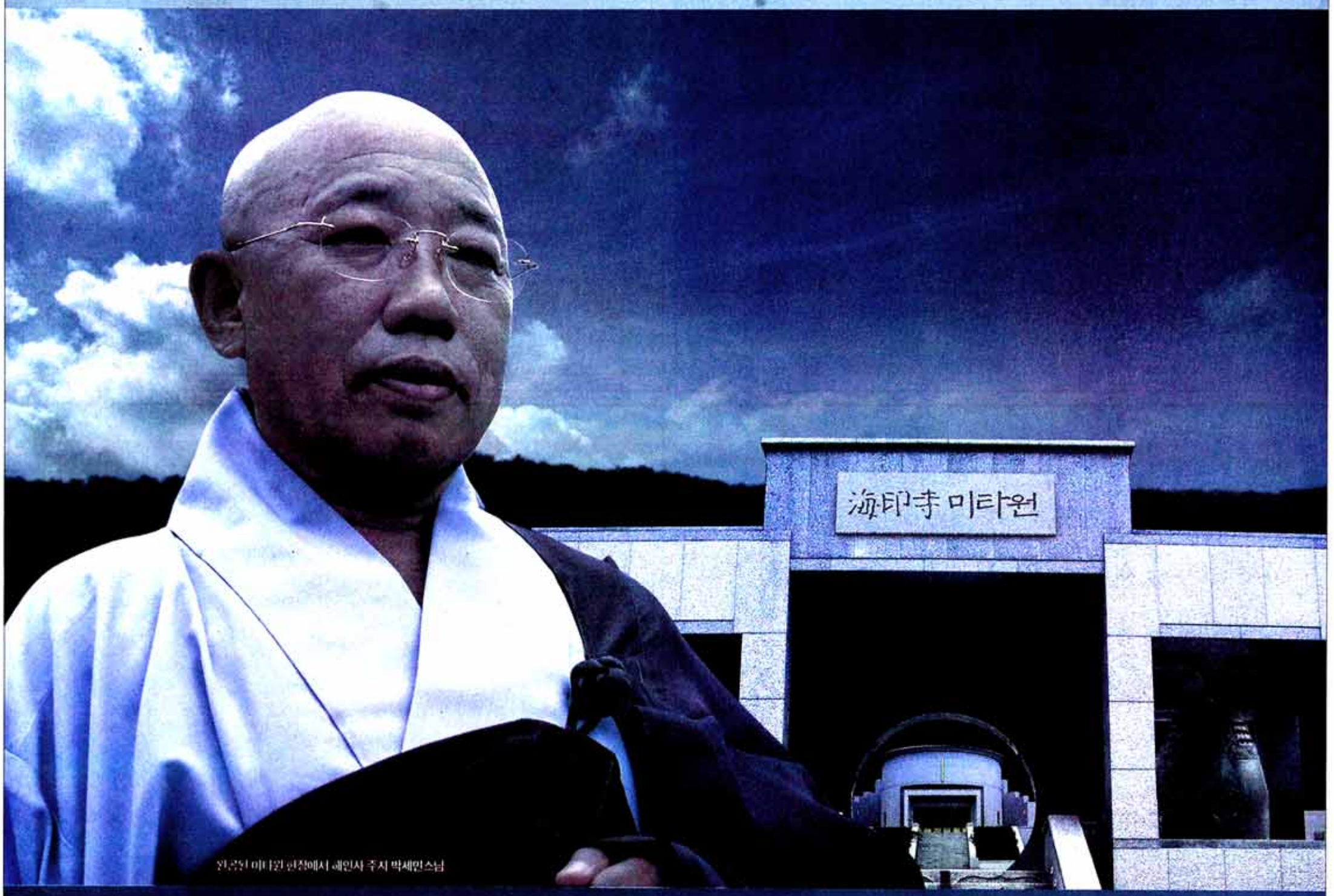
대표 김기찬

직 원 일 동

각종 연등 · 연등용 전선케이블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www.chanduk.com

합천 해인사가 고양시 벽제에 납골추모사찰 미타원을 운영합니다



완공된 미타원 현장에서 해인사 주지 박세민스님

일정 : 2003년 8월 4일(월 음 6월 7일)
장소 : 고양시 대자산 해인사 미타원 극락보전
문의 및 접수 : 031-963-7588

해인사 미타원, 대림산업이 만들었습니다
합천 해인사가 운영합니다

묘지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해, 잘못된 장례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대림산업과 합천 해인사가 이름을 걸었습니다.
대림산업이 만들어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납골추모사찰, 해인사 미타원-
이 땅의 장례문화를 바로세우겠습니다.

- 대대로 왕족들이 고른 명당, 경기도 대자산 위치
- 대기업 건설사로는 최초로 대림산업 100% 완공
- 종교적 사명에 따른 합천 해인사의 정성어린 운영

상 담 안 내
(031)963-7588
한정되어 있어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합니다. 서둘러주십시오.

왕족들이 고른 명당 중의 명당, 경기도 대자산 위치
경기도 대자산은 성령 대군, 최영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전국의 명당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명당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海印寺 미타원
www.mitawon.or.kr
시행 : 해인사미타원 시공 : 대림산업

일주문



제2회 회당문화축제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9월 30일부터 2일까지 울릉도 도동항 광장에서 제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관문사 창건 4주년 기념식
춘광 관문사 주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서울지부 32주년과 관문사 창건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불어 창립 16주년 법회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은 12일 오후 4시 부산 여여선원 6층에서 창립16주년 기념법회와 하루찻집을 개최한다.



영남불교대학 졸업식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은 9월 25일 3층 대법당에서 2년 대학과정 4년 대학원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김용옥 씨 초청 특강
정우 서울 구룡사 주지는 7일 도올 김용옥 씨를 초청해 '싯달타의 고행'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종교사회복지대표자 워크숍
지거 종교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회장은 9월 25~26일 양평 동야루에서 종교사회복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해지역 위문품 전달
해공 영천 충효사 주지는 9월 17일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쌀 20kg짜리 300포대를 영천시와 죽장면에 전달했다.



경산지역 문화탐방
무이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장은 9월 24일 지역 중증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산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경찰청에서 금강경 법문
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9월 26일 경찰청 법당에서 금강경-색신을 여읜 법신 여래'를 주제로 법문했다.



호국연무사 불사금 전달
휴명 진각종 대전교구청장은 9월 14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교육관 상량식장에서 교육관 건립 불사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미얀마로 성지순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교구본사 신도회장들과 함께 9월 26일부터 미얀마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3일 귀국한다.



한일요가대회서 연설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은 13~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요가대회' 개막식에서 '아유르베다의 재인식과 요가의 세계화' 주제르 연설한다.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1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제2회 NGO 명상학교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3~4일 서울 우이동 봉도수련원에서 제2회 NGO 명상학교를 개최한다.



금강경독송회 군법당 위문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9월 15~19일 21개 전방부대 군법당을 위문하고 〈금강경〉〈마음 닦는법〉 등 7만여권을 보시했다.



조선불화초본 특별전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12일까지 동국대 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병진스님 소장 조선불화초본 특별전을 개최한다.



'선시시심' 출판기념회
조흥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은 6일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시집 〈선시시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제9차 화엄광장 개최
정해숙 화엄광장 좌장은 4일 오후 7시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오늘의 눈으로 불교공동체를 본다'를 주제로 제9차 화엄광장을 개최한다.



불교산악인련 총재에 선출
김정길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 부총재는 9월 27일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대 총재에 선출됐다.



어린이 장학금 수여식
김흥국 불자가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호텔 2층 장미홀에서 10명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는 '둥지청소년의 집'

"새 보금자리 필요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 납자(衲子)가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느 집 담장 아래에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어린 남매가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홀로 된 엄마가 연년생인 그들은 버리고 떠나간 것이었다. 이 오갈 데 없는 남매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것이 지금의 '둥지청소년의 집' 시초다.

95년 학교와 가깝고 주위 경관이 좋은 대부도에 아이 30여명이 둥지를 틀었다. 부모들의 이혼 때문에 온 아이, 로 온 아이들에게 원장 스님은 야단이나 매질은 하지 않았다. 가정의 따뜻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둥지를 스님이 운영한다고 해서 정기 법회가 열리거나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신 스님 혼자 아이들 숙소 위에 위치한 자현사에서 기도를 드린다. 자연스레 부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주로 기술학교로 간다. 사회에서 혼자 독립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에도 진학시키고 싶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비싼 학원에 보낼 능력도,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현 숙소 철거 … 공부방 · 장애아 편의시설 계획

소요비용 5억, 현재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



◇둥지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모여 공을 찬다.

줄 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것보다 둥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건 잠시 맡겨둔 아이들을 부모들이 찾아 갈 때다. 남은 아이들이 자신이 혼자라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인식하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둥지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현 숙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공부방과 PC방,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5억 정도 비용이 예상되지만 많은 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둥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아직 우리들의 나뭇가지 모으기가 더 필요하다.

주소: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21
전화번호:(032)883-9033
계좌번호:농협053-02-100544(예금주 둥지청소년의 집)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새 중국불교협 회장 일성스님은 누구?

마조 선사상 재조명에 노력

근대 고승 허운대사 제자 … 선종 중흥 기대

2년전 조박초 거사의 입적 이후 일찌감치 중국불교협회 회장으로 거론되어 온 일성스님은 마조도일 선사의 주석도량인 보봉사에서 마조 선사상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 선종의 몇 안되는 선사중의 한 분이다. 중국 근대선종의 태두인 허운(虛雲, 1840~1959년) 대사의 제자로서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 및 보봉사의 방장을 겸임하고 있는 일성 스님은 2000년 8월 17일 한중선학대회를 주최하면서 한국 불교계에 알려졌다.

1949년 망성현 세심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56년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에서 허운 노화상을 모시고 각고의 수행에 매진했으며, 1959년 성복 대화상으로부터 위앙종의 법을 받아 제10대 전인이 됐다. 문혁 당시의 고초를 소식(素食)으로 견디며, 불철주야 독경과 참선으로 용맹정진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일성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진여선사는 묵조선의 근본도량으로서, 신라 구산선문 중 맨 마지막 산문인 수미산문(須彌山門)과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황해도 해주에 광조사를 열어 수미산문을 개산한 이엄진철(利嚴眞澈 : 870~936) 선사가 운거도응(雲居道膺 : ?~902) 선사를 찾아와 이 도량에서 법맥을 이어왔다.

특히 강서성 진여선사는 농선병행(農禪竝行)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진여선사는 자급자족의 원칙과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청규정신을 고수하며 참선과 운력이 일치하는 선풍을 진작하고 있다.

3만여개의 사찰, 25만여명의 스님, 1억 3천만여명의 불자가 있는 중국의 선종 중흥이란 중책을 짊어진 일성 스님을 바라보는 중국 불자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일성 스님은 부처의 경지가 바로 평상심(平常心)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마조 선사의 '즉심즉불 비심비불(卽心卽佛 非心非佛)'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승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불교 지원책이 거의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도 불교 중흥의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호주 '사우스 멜버른 헤럴드'가 9월 21일자 북경발 보도에서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에서 불교가 컴백(come back)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불교가 개혁개방이후 중국인민의 '정신적 공황(spritual vacuum)'을 메우는 민족종교로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외국인 함께 하는 법회 신설할 것"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신임회장



"국제포교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꾸준히 포교활동을 펼치는 일이 중요한데도 자격만 품수하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월 24일 조계사불교대학 1강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조우영 회장(미8군 1통신여단 작전운용관 · 사진)은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제포교사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형적인 활동에 치우친 기존의 운영방식을 과감히 탈피,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회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생각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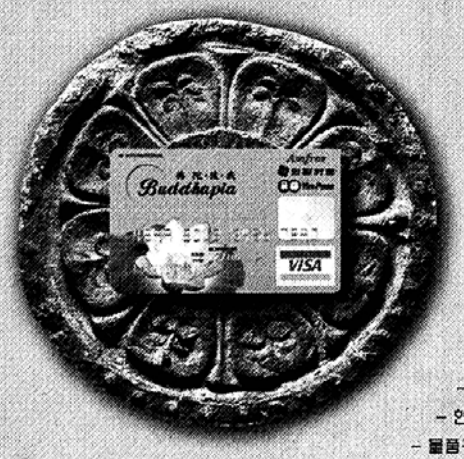
서울 삼보선원 개원법회
서울 삼보선원(주지 동흔)은 9월 26일 점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수원 용주사 정락스님 등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주지 스님은 "오늘 참석한 여러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아져 법회가 열렸다"고 말하고 "수행정진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박물관 '양산 … '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9월 24일 부산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양산(梁山)의 역사와 문화 2000년' 특별전을 기획전시실 및 기증유물실에서 개최했다. '양산의 역사와 지리', '양산에서 살다간 사람들과 삶'이라는 테마로 묶인 특별전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대구 경북 본 · 말사 주지 연수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구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대구경북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이 개최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본 · 말사 주지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신도조직화와 활용방안 등이 실시됐다.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맥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 입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자원봉사는 또다른 수행"

직장불자들 亞洲경기 서포터즈로 '구슬땀'

카타르선수 응원 위해 깃발 제작
물샐틈 없는 보안·방송요원으로

9월 29일 개막된 부산아시안게임에 부산지역을 비롯한 직장불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기준비, 진행, 보안, 정리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등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직장불자들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0억 아시아인의 화합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부산아시안게임을 빛내는 '숨은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청 법우회 회원들은 각국의 서포터즈 또는 지원팀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포터즈' 일원으로 카타르 선수단이 입국하던 9월 24일 50여 서포터즈 동료들과 김해공항까지 마중을 나간 부산시청 법우회 박의봉 총무(44·산업진흥과)는 자정을 넘기는 입국심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선수단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환영 플래카드와 카타르 국기, 응원 깃발을 만드는데 수십일동안 준비해 온 박 씨는 "축구, 육상 등 9개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서포터즈와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하라"며 자신에 찬 모습이다.

부산지역 법우회원들은 일과가 끝나고 각종 응원물품을 만드느라 피로에 지쳐 있지만, 오히려 이번 자원봉사를 자신들의 수행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서 경기가 열리는 배구, 골프 등 4개 종목에 대한 지원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장군청 법우회 송문숙 부회장(46·문화관광과)은 "자신의 신행을 직장과 가정, 사찰에서 사회 속으로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산아시안게임 지원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 손종화 씨는 각종 안전대책 기획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경기장과 숙소, 선수촌은 물론 각국 선수단이 가는 장소에 대한 보안기획 업무가 그의 일이다. 손 씨는 폐막일인 17일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경찰청내 법당에 들러 참배를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2002월드컵 때도 기획단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은 바 있는 손 씨는 "폐막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불교회와 경찰을 대표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부산지역 직장불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청 불심회 안준희(43·서울시의회 공보실) 씨는 멀리 서울에서 방송진행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여름휴가와 연가를 대체한 안 씨는 9월 28일부터 7일까지 사직정구장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을 맡았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 사경 수행을 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안 씨에게 부산아시안게임은 또다른 수행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사경이 인연이 돼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부산교도소 재소자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안준희 씨는 "부산아시안게임을 돕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부산 아시안게임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직장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카타르 서포터즈에 자원한 부산시청 법우회 박의봉 총무(오른쪽)가 9월 24일 카타르선수에게 환영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



"내주변 포교 정토 이루는 첫걸음"

창립 1돌 전남도청불자회 박재순 회장

"직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 회원들은 밝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내 주변의 변화가 불국정토를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2일 창립 1주년을 맞는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의 박재순 회장(56·기획관리실장·사진)은 "불교세가 열악한 전남지역에서 공무원불자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속에 출발했지만, 지난 1년은 전남지역 공무원 불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가능성을 확인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기간동안 전남도청 불자회는 회원이 60여명에서 110여명으로 늘었고, 순천 공양 강진 해남 무안 등 시·군 불자회 창립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 대구 등 타지역 공무원불자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이같은 활동의 중심에는 박 회장의 노고가 숨어있었다. 덕망있는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불자회 지도를 부탁하는 등 모범을 보여온 것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의 불자회 창립과 회원들의 불교 기본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미창립 시·군의 불자회 창립을 위해 해당지역 사찰에서의 전남 공무원 연합법회, 교육교재 발간, 합동수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가을 의료봉사활동 펼쳐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13일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내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을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병불련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발마사지 등 진료를 실시한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강경구)도 19~20일 전남 구례 봄락사에서 수련회 및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수련회를 겸한 이번 진료봉사는 불락사 신도와 구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과, 한방과, 치과 등 진료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 용주사서 수련회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회장 구병수)는 19~20일 화성 용주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30여 회원들이 참가, 108배, 발우공양, 마음나누기 등 도반애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남부署 법당 개원

서울남부경찰서 불교회(회장 권만영)는 9월 28일 법당을 개원하고 아미타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당은 경승실장 원욱스님(호암사 주지)과 조계종 포교사단 경찰포교팀의 후원금, 본교회 성금 등으로 본관 왼쪽 공간에 마련됐다.

우리불자회는요 — 경산조폐창 금강회

금강회(金剛會)는 금강석(Diamond)과 같이 깨지지 않고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신행단체의 구심점이 되어 직장에서 불법홍포에 큰 힘이 되겠다는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직원불자들의 서원으로 창립됐습니다. '실천불교, 생활불교, 가족불교'를 실현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금강회라는 명칭으로 표현한거죠.

창립 멤버였던 30여명의 선배님들은 지금은 대부분 퇴직했지만, 지금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합니다.

'실천·생활·가족 불교' 실현 목표
소쩍새마을 등 어려운 이웃돕기도

직장불교가 태동하기 전인 82년 11월 창립된 금강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체법당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심으로 똘똘 뭉친 도반들의 열성은 140여명에 이르는 회원 확보와 자체법당 금강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요. 대구 앞산의 보문사, 신암동의 정법사를 거쳐 마련한 금강원은 이제 금강회 도반들의 신행공간이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부처님 모신 방이라고 여러워 할 줄만 알았더니,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도반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금강원의 한 풍경이 되었지요.

우리 금강회는 한 달에 두 번 정기법회를 가지는데, 한번은 자체법회로 수지침, 다도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회 참석을 유도하고, 또 한번은 지도법사 증악스님(대구 보리사 주지)께서 오셔서 생활법문과 경전강의를 맡아주어 꾸준히 공부하는 신행생활로 이어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정기법회와는 별도로 틈틈이 열리는 행사가 많습니다. 정월 정초기도와 윷놀이법회, 차량안전 운행기원법회로 새해를 맞이하고, 불교의 5대 명절인 '성도절 욕아정진법회' '출가일에서 열반일까지의 특별기도주간' '우란분절 칠일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매년 두차례 성지를 찾아 떠나는 사찰순례, 수련회, 한해가 저무는 12월 반성의 시간을 갖는 송년법회도 열고 있습니다. 도반의 애사시에는 조문과 함께 천도법회를 열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자랑할께요. 금강회 내에는 '자비회'와 '소쩍새마을 후원회'가 구성돼 있어 장학금 및 후원금을 송금하고 있고, '불교사회복지회'와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이같은 활동이 다른 직장불자회와 나아가 한국불교계 전체로 널리 확산돼 불교의 대외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욱 교육부장(환경관리과)



◇금강회 원들이 정기법회를 이용해 다도 강좌를 열고 있다.

단체장 동정



중앙임원·운영위 개최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12일 오후 8시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중앙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를 갖는다.



봉정·오세암·백담사 순례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12~13일 봉정암, 오세암, 백담사 등지를 순례한다. 12일 오후 9시 광주공원에서 출발한다.



이태수법사 초청법회

민철기 성북경찰서 불교회장은 9월 25일 경승실에서 이태수 법사(입업연구원 불교연구회 고문)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봉사·사랑나눔 경로잔치

박우락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5일 성남 자광원을 위문, 봉사활동 및 사랑나눔 경로잔치를 벌인다.

우리 모임에선

대우종합기계·KAI 법우회 순례법회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법우회(회장 곽차식)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13일 부산 해동용궁사와 장안사를 순례한다.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참하는 이번 순례에서는 해동용궁사와 장안사 종무소의 안내로 참배하며, 약식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 수계법회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임희철)는 14일 무각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을 계사로 회원 및 가족 60여명이 계를 받았다. 광민스님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경찰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씨트리 키토산을 복용하시면 식생활을 제한없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생활로 체질을 빨리 회복시킵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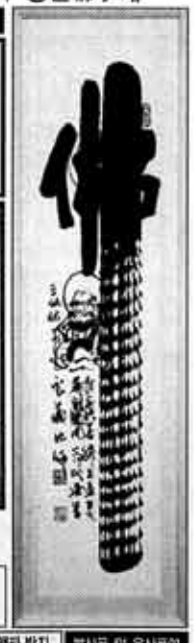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문의 동우회 회장
계림의사(한의사) 박동환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숨, 담배해독
· 파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캐머컬라이프 Co.
(구)반도제약해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붉자 달마(색상지) ▷붉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됩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6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종자 추적)
승복소장자의 꼭 가장 고귀한 진품영품
신기! 영기 발하는 붉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틈자그림 (수백과 차단)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송전합격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함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31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탈 종 공 고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317호
○사찰명 : 광 명 사 (등록번호 : 제13-2966호)
○주지성명 : 정동일 ○법 명 : 청 곡

위 본인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으므로 탈종공고를 하는바 금후 일체 연락을 단절합니다.

불기 2546년 9월 19일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종 단 : 대한불교 총화종 ○사찰명 : 연등사
○주 소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창건주 : 김순원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2002년 9월 23부로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안내

포교당

●위치 : 서울시내
●법당 : 40평
●요사 : 방 1개
●보증금 : 전세 40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외부시설 A급

●위치 : 전북 남원시내
●부지 : 1100평
●법당 : 25평
●요사 : 60평(2동)
●양도 : 2억3천
●산세 및 계곡 좋은 기도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큰방 2개 별채 방 2개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포교당안내

●위치 : 경기도 수도권(신도시 중심지)
●특징 : 인구 85만, 아파트숲, 역세권빌딩 7층
●투자금 : 전세 1억 8천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
●가액 : 3억(절충가능함)

031)978-0530
011)9183-8993

토굴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소재지 내
●대지 : 12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욕실, 창고, 마당, 터밭, 주차가능
주변환경 깨끗, 교통편리, 물공기 맑음
●가액 : 2900만원

054)932-3698
011)513-2929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1)9859-742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양
●대지 : 3,000평
●법당 : 30평
●요사채 : 24평, 사무실 10평
●가액 : 3억 5천
※영양읍에서 3km
※뒤는 산 앞은 큰 개울을 접함

●위치 : 백암온천(울진)
●대지 : 약 500평
●인법당 : 30평(한옥)
(선방용 황토방 4개)
●가액 : 1억 5천
※백암온천에서 10분거리
※목조 황토방으로 아주 잘 지음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건평 : 4층건물에 3층 35평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시설 : 삼존불 봉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 A급, 스님해외빌령

02)955-6411
011)289-0476

포교당안내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3분거리
●평수 : 40평 ●법당 : 25평
●삼존불 봉안, 방 2개, 부엌, 거실, 화장실, 기타시설완비
●가액 : 1억 3천만원

051)512-0437
016)574-0437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대지 : 300평, 법당 8평, 요사채 40평
●가액 : 1억 7천만원

055)744-2167
011)541-8420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 고찰
●구교지임대 : 약 700평
●법당 : 35평 ●요사 : 40평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임지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 찰 안 내 - 포교당 -

●위치 : 진주지역
●법 당 : 15평
●요 사 : 38평
●부 지 : 466평
●가 액 : 2억 5천

●위치 : 경북달성 (대구권)
●법 당 : 10평
●요 사 : 20평
●부 지 : 78평
●가 액 : 1억

●위치 : 인천지역
●법 당 및 요사 : 120평
●임대료 : 6000/150
●시설비 : 1억 2천 사용 (시설비 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특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포교당 안내

●시설 임법당(삼존불) 주방 따로 거실, 다용도실, 다락(총12평)
●대전역 10분거리로 도로변 포교장소로 최적지
●가액 : 시설비 350만원 보증금 : 무, 월세 28만원

011)230-5387

포교당안내

●위치 : 광진구 화양 사거리
●25평(거실, 방, 주방, 욕실, 법당)
●권리금 1700만원
●보증금 : 800만원
월 55만원

011)251-5287

사찰(급)안내

●위치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흰히 보이고 화창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부지 약 3000평(준능림지) 중
●법당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목조)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신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포교당 안내

●위치 : 전주 시내 전통 한옥 구가
사찰이나 포교당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답사하세요
●대지 : 79평 ●건평 : 55평 중
●법당 22평 큰방 2개 법당 연결
별채 방2개 전체 수리 입주 가능
●가액 : 1억 3천 5백만원(융자됨)

063)287-8481

사주명리학배우실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수료후 간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제공함
주 3회(1회 2시간씩) 3개월 완성
개강 10월 4일(금요일)부터

한 국 명 리 교 육 원

☎ 02)336-8484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부지 : 800평
●법당 : 30평(목조)
●요사 : 30평(신축)
●가액 : 4억 4천만원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법당 : 30평(목조, 단청)
●요사 : 2동 60평
●가액 : 3억원
●특징 : 신라시대동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안내

●위 치 : 경북 경주시 동국大에서 10분거리
●대 지 : 170평
●대웅전 : 15평
●삼성각 : 5평
●요사채 : 30평
●가 액 : 7000만원

011)9625-7130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건평 : 60평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포교당 안내

●서울 방배동 교통 요지 아파트 밀집 지역
●법당 : 18평 4층건물 옥상
●요사채 : 80~100평건축가능
●보증금 800만원 월 80만원
●합 3천 오백만원

011)9634-7851

사찰안내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대지 : 150평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건물 및 부지 안내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시 5분거리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토굴안내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면 드현리 명봉사 10분거리
●대지 종문소유, 200여평사용가능
●건물 2동, 방4개, 보일러 기타시설 완비
●부처님 한분 모시고 있음
●해발 600고지, 계곡 띠고 경관이 수려
●가액 : 1500만원

011)541-9457
054)822-7497
054)652-1184

사찰안내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봉암리 388번지 수발사
●전화 문의 및 답사 후 절충

055)271-7375~6

포교당(급)안내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1칸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덕산 옆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대지 : 640평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道 역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목 : 사주, 육효, 관상, 작명, 궁합
◆교 재 : 千江月 (본인 저)
◆장 소 : 보림선원(경기도 일산 신도시)
◆문의처 : 031)919-0306 / 011)9701-0603
천년을 이어온 정통역학입니다.

● 금강경, 반야심경(佛)
● 노자, 장자(道)
● 논어, 채근당(儒)
강좌도 개설합니다

道學강좌 교재는 「붉은 화로에 눈 한송이」입니다 (본인 저)

사 찰 안 내

●위치 : 충주댐 강변 진입 도로변
●사찰시설물 : 칠성삼신각 (3칸 콘테이너 박스)
●노상 석불상 15척입상(좌대 3척), 좌(석)불상 3척(좌대 4척)
●석굴암 50M 굴 중 10M 위치에 5척 좌불상 있음
●법당 3층 콘테이너 15평 박스 건물, 5층석탑(좌대3.5척)
●종교사찰부지 703평 : 1억 5천만원
외 부지 1300평 별도포함 : 2억원정(가격불변-30%세일가)

연락처 043)848-1766/043)853-2896

사찰부지안내

●서울 관악산 10,000평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평당 : 25만원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부지 : 약 320평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토굴안내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평수 : 20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기와집)
●특징 : 삼면이 산으로 되어있음 수행처 및 절집 가능
●주차 : 바로 집앞 120평
●텃밭 : 150평(일년도지 5만원)
●가액 : 전세 6백(시설비 약간)

054)855-0109

사찰안내

●위치 : 남원시 소재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주차장 완비 ●가액 : 7천 5백만원

016)850-877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권대창불교건축 권대창목재

●사찰대웅전 건축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중합개발 이중봉 합장

사찰안내

●위 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법당 : 30평
●요사채 : 25평(2동)
●대지, 임야 : 5000평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보증금5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7)217-2219

포교당(급)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건물 : 3층 건물 2층(40평)
●석가모니불, 소불 108불 지장, 신중탱화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 2000만원(절충가능) 보광사

053)636-9306
011)9598-4193

사찰양도안내

●부지(종교용지) : 2013坪 ●法堂 : 13평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위치 : 서해안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남 활법사·지부장모집 여

고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참)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사찰안내

●위치 : 포천
●법당 : 25평
●요사 : 30평
●산신각 : 10평
●가액 : 2억(절충가능)

016)9669-3917

사찰안내

●위치 : 마산시 진동면
●대지 : 210 평
●법당 : 15평
●요사 : 1동
●도심사찰 최적지
●가액 : 1억 9천만원

016)830-1174

포교당 안내

●위치 :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에서 약 500 m)
●평수 : 약 35평
●특징 : 아미타 주불,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598-1326

사찰안내

●위치: 서울시 성북구
●대지 : 85평
●법당 : 40평(3층)
●요사 : 80평(1, 2층)
●가액 : 7억(융자가능)
●오래된 역사의 좋은 사찰임

011)530-1975

암자안내

●위치 : 충북
●법당 : 20평
●요사 : 20평
●부지 : 1000평
●가액 : 8500만원

033)372-6494

포교당안내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388-1597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판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8.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금화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경남 진주시 금곡면 석계리
055)753-9826, 754-2997
휴대폰 016-546-9826

향용사 법회안내
매월(음)초하루 오전10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 767-5
063)243-9152
017-658-9152

덕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7/2)
063)463-5907 / 011-684-1408

염창사 법회안내
매월(음)초삼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염창산 용정마을)
063)584-6571
011-659-6571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구인 구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신심있고 건강한 50대 보살
031)964-9155

불심 많으신 사찰가족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 공양주 한분 (부부가능)
● 운전기사 한분 남자 ● 부부휴양자 3가족
02)577-0007/578-5508
011)9864-1095 심복사

마음어질고 성실한 부전스님 구합니다
● 월 80만원 보시
● 45-65세 ● 경북 구미
054)452-0845
011)539-08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같이 수행하실 행자스님 구합니다
041)566-0722
041)566-63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안동)
054)841-4413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모십니다
신세좋은 조용한 임자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십니다
041)952-4197
016)9311-4103
02)996-3813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 의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회회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현도제 등 각종 의의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겸행해 주실 분들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신심이 돈독한 50대 운전기사 모십니다
▷ 숙식제공
031)573-8901

알림정보
[이전, 강좌]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법왕정사 참선캠프 수련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 7층
031)771-7745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특별수련회
지도 묘원법사
10월 3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02)517-2841

호두마을 주말수련
천안 호두마(www.vmcwv.org)
10월 4일부터 2박 3일
주말 위파사나 수행
041)567-2841

정토수련원 '일상에서 깨어있기'
10월 19일
오후 2시~20일 오후 9시
서울 정토회관
02)587-8994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나눔의 집 수강생모집
10월 11월 매주 수 목
조계사 불교대학강의실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실시연락처
031)768-0064

국청회 '천수경 강좌'
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 정각스님
초청강좌 - 매주 수요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
02)730-1249

대구 여래선원 불교 수행학교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정통수행법(위파사나 및 참선)
053)255-0442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퇴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대한불교조계종
정욱사
주지: 정욱스님
017-217-2219

제9차 화엄광장 '오늘의 눈으로…' 개최
10월 4일 조계사 소설법전
02)737-6181

가정 법률상담소 '결혼강좌'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02)580-5688

조선 불화 초본 전시회
10월 12일 까지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02)2260-3462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참마음 수련 심전 대광사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033)435-3166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우곡선원 초심자 참선교실
10월 5일부터 26일
매주 화, 토요일 오후 8~10시
서울 본원과 부산 해운대 선원
02)529-5027, 051)740-6288

강남포교원 불교 특강
10월 4일부터 12월 13일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경각
02)539-2631

국제포교사고시 11월 10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
접수기한은 11월 1일까지.
02)720-7060

보문선원 어린이 법당 개원법회 및 점안식
2002년(불기2546년)
10월 3일 오전10시 30분
경기도 안산 031-401-2540

영혼결혼식
[중매에서 천도식까지]
한국 가족협회
02)835-9797

화엄기도도량 해원사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031)336-3734
011-9711-3734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해인서림
www.hoedang.or.kr
02)942-0127

불교용품 총판 견지불교사 이전안내
건물 증축 관계로 조계사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775-4242

불교 용품



동성불교사
개금 현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신비한 운석 염주, 단주
전신의 오오라와
경맥 유통 및 잠재능력
개발에 큰힘이 됨
www.mindforce.co.kr
02)735-6575

목초수액시트
잠자는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佛舍廊 禪宗社
불교용품 제작 판매
불교서적 · 불교음반
각종불사상담
011-9355-1328

삼보기업
호신카드(달마,탑다라니 등),
불교용품 주문 생산 전문 기업
꼭 전화 주세요
011-397-2715



특별합니다!! 을파소
순도 99.9% 약용소금 1000 ㎎ 키토산 고분자 + 합성크림
강력한 심투압작용(몸속 독소제거 노폐물제거 세포재생)
효능 효과 : 미백효과, 여드름, 비듬, 주부습진, 액취, 부인병(타질환 효과), 각질제거 머리빠지는 분
※ 본 제품은 미국FDA에서 안정성입증 된 식품용 소금과 키토신의 합성크림으로 부작용이 전혀없고, 항균성과 보습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생바이오 이제까지 이런 물건 구경도 못하셨다구요? 사용 느끼는 피부탄력!
사용방법
세안, 샤워 하실때 본제품을 바르고 2~3분 맛사지 하신후 씻어주시면 됩니다
(주)을파소 문의 02)942-5470~1

쑥담배 BULE(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 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청동불상 제작 전문
성화불교전시관
02)2209-0080-1

승복 · 한복
유 마
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02)730-9994

연지플라우어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우리곁에 온 - **동판(銅版)달마 대사**
종류 : 포켓소지용, 중형액자, 대형액자, 특대액자
동판공예 연구회 02)2203-7821

알뜰 정보



Mo 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전국사찰주소
그 많은 주소를 펜으로 쓰고 계십니까?
깔끔하게 인쇄된 전국사찰 주소를 라벨 용지에 출력하여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사찰 9천3백여곳 가격10만원
02)733-2211

소중한 이치과
진료과목 : 턱관절질환
구취, 치아교정, 심미보철
서울 강동구 성내동
02)3784-2828~9

생활 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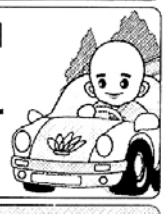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낙 화(민속촌 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여행 정보

(성지순례)



◎ 1차 출발 :
불기 2546년 11월 7일 ~ 15일
(8박 9일)
◎ 2차출발 :
불기 2546년 11월 21일 ~ 29일
(8박 9일)
◎ 3차출발 :
불기 2547년 1월 9일 ~ 17일
(8박 9일)
※예약마감은 출발전 30일 전까지

(주) 실크로드여행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Tel : 02)720-9600
Fax : 02)734-9937

인 도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

■ 부처님 7대 성지 순례

날짜	지역	여행일정
제 1일	인천 뉴델리	인천 국제공항 집결, 인천 출발, 인도의 수도 뉴델리 도착
제 2일	뉴델리 바라나시	바라나시 도착 후 부처님의 초전법륜지 녹야원, 아쇼카석주, 다메크대탑, 영불탑 등 순례
제 3일	바라나시 보드가야	갠지즈강 보트유람, 성도지 보드가야 도착 후 마하보디대탑, 금강보좌와 보리수, 니련선하, 전정각산 등 순례
제 4일	보드가야 파트나	왕사성 도착, 법화경의 설법지 영축산,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 및 세계최대의 나란다대학 유적지 순례
제 5일	파트나 쿠시나가르	유마경의 설법지 바이살리 도착, 원형의 아쇼카석주, 불사리탑터 참배 후 쿠시나가르 열반사원, 다비터인 라마브하르 대탑 등 순례
제 6일	쿠시나가르 기원정사	네팔 입국,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 순례 후 인도 귀환, 카필라성터와 불사리탑 참배 후 기원정사(사위성) 도착
제 7일	기원정사 아그라	금강경의 설법지 기원정사 참배, 수닷타 장자의 집터, 앙굴리마라 스투파 등 순례 후 아그라 향발
제 8일	아그라 뉴델리	16세기 무갈제국의 도성인 아그라성,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인 타즈마할 등 관람 후 뉴델리로 이동
제 9일	뉴델리 인천	뉴델리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구비서류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함)과 사진 3매 ※ 여권이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5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선수촌 불교관 매일 禪 특강

亞洲 경기 중 범어사 등 14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백양사 국제수련장 개설 외국인 유치
혜원정사서 6차례 영산대재 시연
부산불교교육대 태국서포터즈 구성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영산재 시연, 선수촌내 불교관 운영 등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해 성공적인 개최를 발원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2002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템플스테이를 부산아시안게임과 합창올림픽(10월19~27일) 기간에도 운영한다. 부산지역의 범어사, 내원정사, 삼광사를 비롯해 통도사, 동화사, 전등사 14개 사찰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는 9월 26일부터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월드컵 템플스테이에 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 조계사와 봉은사는 숙박 제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발우공양, 참선실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둔사, 월정사, 남양주 보광사는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백양사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 선수련장을 개설, 심도깊은 선수련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유치한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에게만 개방됐으나, 이번에는 내국인에게도 개방된다. 예약은 월드인 홈페이지(www.worldinn.com)를 통해 이뤄진다. (02)732-9925

영산재보존회와 부산불교연합회도 4~6일과 11~13일 총 6차례에 걸쳐 부산 혜원정사에서 영산대재를 시연한다. 태고종과 조계종의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선수촌내 초등학교 교실을 개조해 참가선수들을 위한 불교관도 9월23일 문을 열었다. 법당, 참선실, 전시실, 휴게실 등을 마련한 불교관은 조계종과 천태종, 법화종이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특히 대회기간중 매일 오후 2시에는 선에 대한 특강과 문화행사가 마련돼 한국불교와 참선법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70여 동문 · 재학생으로 태국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사물(四物) 등을 이용해 응원전을 펼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하나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성화 봉송한 문수암 대활스님

"아시안 게임 성공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달렸습니다."

9월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문화회관앞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달린 울산 문수암 주지 대활스님(사진). 이날 스님은 11명의 봉송 주자들과 함께 1.1km를 달렸다.

마라톤 풀코스 14회 완주 기록을 갖고 있는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10km을 달리며 마라톤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쓸데없이 뛰어 다닌다고 좋지 않은 시선도 있다"며 웃어 보이는 스님은 그러나 마라톤이 곧 수행방편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를 목표로 염불로 호흡을 조절하며 달리고 있다. 천미희기자

전등강맥 전수법회 봉행

5일 송광사서 능허·현진 스님 등 9명에

경허스님으로부터 한암, 탄허,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으로 내려오는 강맥이 능허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 등으로 이어지는 전등강맥(傳燈講脈) 전수법회가 봉행된다.

5일 오전 11시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되는 법회는 능허스님의 고불문, 무비스님의 훈화, 현진스님(송광사 승가대학 강주)의 발원문 순으로 봉행되며, 총무원 관계자 및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강주스님등이 참석해 강맥 전수를 축하한다.

행사와 관련 원철스님(조계종 종정 예경실장)은 "조선시대에는 강맥 전수식이 공개적으로 봉행되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행해졌다"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대중 앞에서 강맥의 권위를 높이고 공의에 동감을 얻기 위해 이번 행사가 봉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강(傳講)이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의미한다. 즉 부처님과 스승의 학적 토대를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행사에서는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린다. 전강 제자는 개당설법을 통해 공인을 받는다.

이번 강맥 전수자로는 능허, 현진, 원철, 지상(전 은해사 승가대학 강사), 용하(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정한(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지성(불광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상현(전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현석(동화사 승가대학 강사)스님 등 총 9명이다.

남동우 기자

항일기념식·횃불행진

제주 법정사 등

제주 중문청년회의소(회장 오상호)는 5일 오후 3시 서귀포시 하원동 법장사와 법정악, 천제연 광장, 중문초등학교 등지에서 '제 8회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횃불행진'을 개최한다. 무오 법정사 항쟁은 1918년 10월 4일부터 3일간 제주지역 스님과 신도, 주민 등 4백여명이 봉기했던 제주도 최초의 항일항쟁이자, 3·1운동 이전의 최대무장 투쟁이다.

유족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성역화추진위,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법정사에서 추모제, 어린이 웅변대회, 봉화제, 횃불행진 순으로 진행된다.

오상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선조들의 항쟁정신을 이어받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일기자

멸종위기 가시연꽃

경주건천에 군락형성

멸종위기의 가시연꽃 군락지가 경주에서 발견됐다.

산림청이 보존우선순위를 1순위로 지정할 만큼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이 발견된 곳은 경주시 건천읍 신평 2리 부처못(불지)과 서면 아화 4리 곤돌못(앞못)으로 3~4년 전부터 자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야 발견된 이유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희귀식물인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

가시연꽃의 여러부분이 한약재로 쓰이고 있어 혹 무분별한 채취로 이어질 공산이 커 실태파악과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원구기자

불국사 자원봉사단 월내 발족

호스피스 지원등 사회활동 적극 참여

경주 불국사에 자원봉사단이 결성된다.

불국사 교구 대중스님과 산하 16개 신도단체 회원 300여명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단은 이달내 결성식을 갖고 호스피스 지원, 불국사 자체 안내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키로 했다.

불국사는 특히 지역별 중심사찰을 지정,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조정을 통해 적절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국사 스님들을 비롯 보현회, 진여회 등 16개 신도단체의 사부대중은 9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자원봉사단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시급하다고 보고 자원봉사단을 구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박원구기자 bak09@buddhapia.com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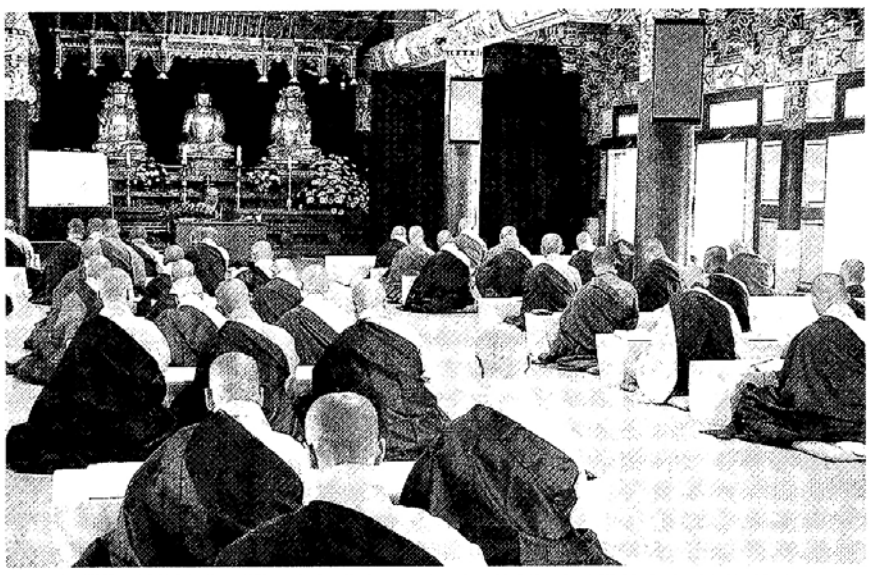
위치싸고 양론…사안전체 다시 논의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된다.

문화재청은 9월 26일 문화재위원회 1분과(건조물) 회의를 열어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문제를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히 건립 위치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건립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건립 위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건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10월 건조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석굴암에서 동남쪽으로 105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역사유물전시관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올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 일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권형진 기자



◇해인사 개산 1200주년을 맞아 개최된 무비스님 임제록 산림법회에 전국에서 10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했다.

무비스님의 '임제록 산림법회'

해인사 개산 1200주년 기념…전국서 100여 스님 동참

법보종찰 해인사가 개산 1200주년을 맞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연 무비스님 '임제록 산림법회'에 전국에서 100여명의 스님이 법석에 참가, 눈길을 끌었다.

법회에서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임제 의현 스님 가르침의 핵심은 견성성불과 무위진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하고 "거친 사바를 숨쉬며, 무상의 세월을 견디는 힘 또한 우리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원력 또한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이라며 견성한 이의 삶이 바로 '진인(眞人)'이라고 강조했다.

5일간에 걸쳐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산림법회는, 그 내용이 심오해 불교계 학자들조차 다루기를 꺼리는 선어록인 〈임제록〉을 설파하는 자리. 이제 갓 스님이 된 사미(니)부터 승랍 30~40년 이상된 교계 중진 비구(니)스님들까지 청강생들이 다양했다. 참가스님들은 강의시간 내내 진지한 눈빛으로 무비스님의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 산림법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일을 뒤로한 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는 진각스님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귀중한 법석이 앞으로 자주 그리고 많이 열려 수행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전 스님들은 승풍진작을 위한 다양한 '결사'를 통해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한 곳에 모여 경전을 공부하고 논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기 힘든 사정을 감안, 수행결사의 축소판으로 산림법회가 개최됐다.

'무비스님 임제록 산림'을 주관한 조계종 불학연구소는 앞으로 이같은 산림법회를 매년 전국 사찰을 돌며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구기자

베트남 유일의 한국 사찰인 관음사가 한 · 베트남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씻어낼 월남전 희생 영가 합동 위령재를 봉행해 관심을 모은다.

베트남 호치민市 개원 관음사

월남전 희생영가 합동위령재

1년전 베트남 호치민시에 개원한 관음사는 한 · 베트남 불교문화교류 협의회(회장 정각 · 틱.히웨인팝)를 구성하고 8일 제1회 월남전 희생 영가 한 · 베트남 합동 위령재를 연다.

이날 천도재는 한국의 전통적인 범음 범패 의식을 베트남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의미도 있어 한층 뜻깊다.

위령재 봉행위원회 집행 위원장 보각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잘못된 역사를 고리를 푼다는 마음으로 위령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음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불교경전 번역, 양국 불교수행법 교류 등 다각적인 문화 교류를 펼쳐 나가게 된다. 동참 문의:055)245-1470

천미희 기자

"천년의 울림" 다시 듣는다

개천절 성덕대왕신종 타종

3일 개천절에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 국보 제29호) '천년의 울림'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타종은 성덕대왕신종의 진동 및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종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

신종 타종식에는 현향, 현다, 대금 독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비롯해 김석현교수의 '성덕대왕신종의 진동 및 음향특성 분석'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종의 상태를 진단하고 원주상에서 신종의 맥놀이 분포 데이터를 확보, 맥놀이 지도를 작성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원구기자



◇오미야 총무(맨 왼쪽)는 주지 스님에게 배운 수묵화를 흡사는 대로 신도들에게 가르쳐 준다.

"절에서 보내는 시간 더 많아요"

흥천사 대구포교원 신도회 오미야 총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찰에 나와서 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지 매일 마주 대하는 신도들이 친형제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충주 흥천사 대구포교원 신도회 오미야 총무(46 ·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도반 사랑은 이처럼 각별하다.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넘어가질 못한다. 소식을 듣는 즉시 달려가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 또 절 행사가 끝난 뒤 음식이 남으면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두었다가 신도집은 물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보시행을 펼치기도 한다.

"흥천사는 대구지역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에 따로 포교원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일터로 가면 저도 40분 거리에 있는 포교원으로 출근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제 본업(?)이 시작되지요"

절에 들어서자마자 오 보살은 사시불공 준비, 사찰 재정 관리, 공양간 일 등 특별히 일에 경계를 두지 않고 맞닥뜨리는 대로 팔을 걷어부친다. 또 일을 하다 신도들이 힘들어 하는 기색이라도 목격하면 걸쭉한 입담으로 웃음을 유도하는가 하면,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한다. 이따금 짬이 생기면 주지 스님에게 배운 어설픈 솜씨지만, 서예와 수묵화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 포교원에 있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충주 본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충주까지 모시고 간다. 이렇듯 절 신도들에게는 넉넉한 오 보살이지만 사찰의 재정문제 만큼은 짠순이 소릴 들을 정도로 엄격하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오 보살이 판단해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찰의 지갑은 열리지 않는다.

"사찰의 삼보정재는 신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생각에 집에서 살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긴축재정을 펼치지요. 보시금은 되도록이면 불사나 신도들의 복지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신경을 씁니다."

오 보살은 자신의 신행생활에도 게으른 법이 없다. 매일 사찰에 나오기 전 집에서 1080배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30분 독송한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불교기초교리' 강좌에도 빠지지 않는 건 물론이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보살은 이렇게 말하며 월례행사중의 하나인 충북 증평의 군부대와 전경부대 위문을 위해 사찰문을 나섰다.

김주일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불공준비 · 재정관리등 모든일 열성

삼보정재 신도의 피와 땀 "아껴야죠"

추천의 말

동봉스님 흥천사 주지



보통 주부들은 사찰일에 몰두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가정일을 대충할 수도 있고, 개인의 신행생활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오미야 총무는 사찰에서는 모범신도이며, 가정에서도 모범 주부로서 1인 다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보정재를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모든 신도 하나하나가 귀중한 보배와 같지만 이들을 불협화음 없이 한마음으로 이끄는 오 보살이야말로 우리절을 튼실히 해주는 기둥이라 생각해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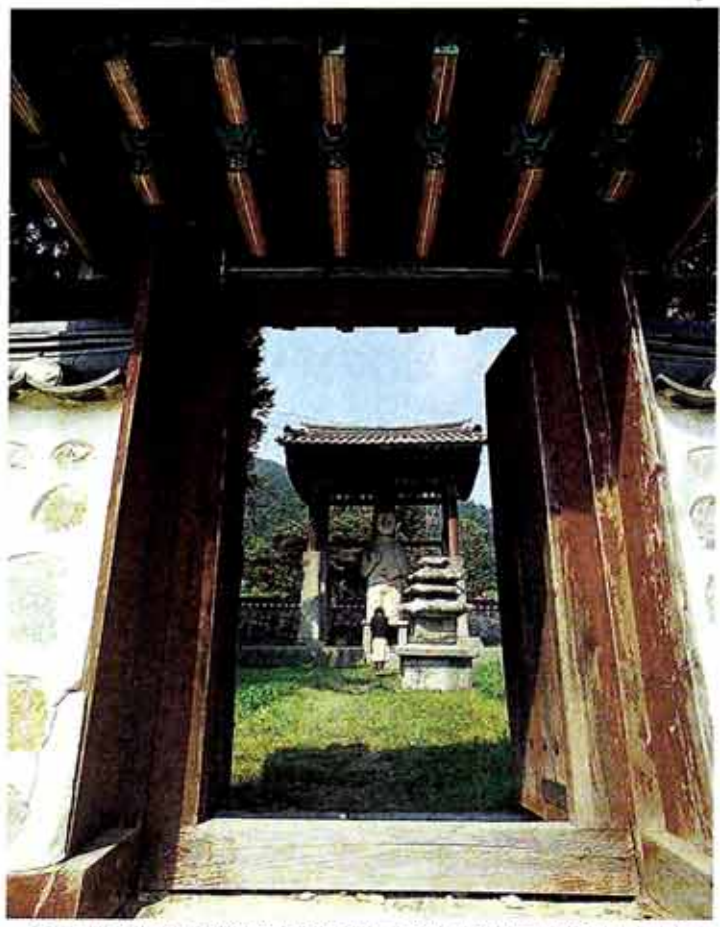
미륵들의 꿈·비원 서린 절터

황금 물결 일렁이는 저 들녘 어딘가에서 옛 절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 오솔오솔 익어가는 나락들은 용화세계(龍華世界) 미륵부처님께 올릴 공양미인 듯 탐스럽고, 들녘을 비켜 선 한 쌍의 당간지주는 농부들이 받쳐놓은 지게목발인 듯 한가롭다. 긴 세월 오로지 한번 맺은 인연의 법도만을 지키는 의좋은 당간지주와 저 승 꽃 만발한 오층석탑 1기가 아니라면 여기가 옛 절터인 줄 누가 알겠는가. 전각과 도량의 경계였던 담장은 기왓장, 유구를 모아 논둑길로 빚었고, 그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걷다보면 그새 한철 안거에 들었던듯 개구리떼들이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고해의 바다로 뛰어든다.

메시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안성 봉업사 터



◇미륵세상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가. 매산리 비봉산 봉업사터의 태평미륵도 용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자비의 손짓을 하고있다. 보호각 사이로 태평미륵이 보인다(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

삼국통일 대업이룬 고려왕실 원찰
두 석탑 · 석불입상 제자리 떠나 산재
寺跡전체 농경지…두차례 발굴조사

안성 땅은 미륵동네다. 백운산 비봉산 서운산으로 울을 삼고, 하늘 아래 선민(選民)들의 심성처럼 붉고 차진 토질의 안성 들을 안마당 삼아 각양각색의 미륵불들이 다투어 세속 살림을 차리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기솔리 쌍미륵과 궁예미륵, 대농리 미륵, 미륵당의 태평미륵, 아양동 미륵 등 올망졸망 미륵들이 동네어귀마다 고만고만한 살림을 차렸다.

미륵들 중에 인간 세상의 호구(戶口)에 가장 가까이 들어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함께 했던 승속동행의 미륵은 궁예 미륵이었다. 궁예는 칠현산 칠장사에 들어 머리를 깎고 일찍부터 활쏘기를 익혔다. 안성 들 주변의 야산에는 유난히 조릿대(竹) 들이 많다. 미륵의 화신임을 꿈꾸던 '미완의 미륵' 궁예가 허공에 날린 무량무수의 화살이듯 키 작은 조릿대들이 함부로 뿌리를 내리고 아직도 허리를 곧추 세우는 것이다.

궁예에 이어 남사당패를 따라 운수행각을 하던 황석영의 '장길산'도 서운산 청룡사에 들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장길산의 스승 운부대사는 "미륵의 세상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미륵 세계의 역동성을 일깨웠다. 의적 임꺽정에게 병든 세상을 주억거릴 의기(義氣)를 북돋웠던 인물도 칠장사에 은거하던 그의 스승 갖바치였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실 속으로나, 전설 속으로나 이렇게 이 땅으로 강생했던 민중의 인도자인 미륵들이 몰려들었던 강한 흡인력이 안성 땅에 있었다.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은 오랫동안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며 군사요충지이기도 하다. 팔도의 물건들이 모여들고 또한 깔고 앉은 텃밭에서 질 좋은 농산물과 수공품들이 양산되기에 유기그릇과 가죽꽃신 등 꼭 입에 맞는 물품들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라 하였던 것이다.

충청북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목에 위치한 죽주산성은 군사 요충지인 까닭에 숱한 역사의 상흔이 돌 틈마다 서려 있다. 신라 말기에는 궁예가 한때 몸을 의탁했던 기훤이 이 곳을 본거지로 삼아 9년을 머물었고, 고려 말 몽고군의 침입 때는 송문주 장군이 민초들과 함께 파죽지세로 몰려오던 몽고군을 이 곳에서 물리쳤으며, 임진왜란 때는 황진 장군이 기습 공격으로 이 곳을 탈환하여 왜군이 더 이상 용인과 이천으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비바람 몰아치는 역사의 구비마다 천박한 민초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온 몸으로 지켜낸 안성 땅은 이곳이 더 이상 단순한 중생들의 살림터가 아닌 미륵들이 거처하는 성지며, 그 미륵들이 '미륵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알깨움을 송두껑 같은 그네들의 가슴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50-1번지 입대에 산재한 봉업사(奉業寺)터는 이 땅을 오갔던 모든 미륵들의 꿈과 비원을 기리는 절터다. 악업(惡業) 만이 업이 아니라 용화세계를 꿈꾸었던 영웅들의 선업(善業) 또한 다스려야 할 업이기에 그들이 남긴 엄청난 대업(大業)을 부처님의 뜻으로 섬기고 간직하고자 지은 절이다. 봉업사에는 오랫동안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眞影)이 모셔져 있었다. 대업을 역사 속에서 현재시제로 가장 강하고 투박하게 실현시켰던 인간속의 진정한 미륵이 왕건이었기 때문이다. 개성의 봉은사, 논산의 개태사와 함께 고려의 진전사원(眞殿寺院)이었던 봉업사는 고려의 존립 475년 동안 왕실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선왕에 대한 예를 올렸던 왕실의 원찰이자 호국사찰이었다.



◇봉업사터는 사지 전체가 현재 농경지이다. 멀리 보이는 탑이 보물 제435호인 오층석탑.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을 지나 일죽IC로 들어서면 곧바로 죽산면 죽산리에 도달하는데, 38번 국도 오른편의 매봉산 자락에 이르는 방대한 농경지가 전성기의 봉업사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봉업사터는 언제 어떻게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연을 간직한 채 지금은 수만 평야의 논밭이 되어 팔만사천의 나락들을 키우고 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금빛으로 출렁이는 봉업사 터는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 도솔천에서 대기하던 미륵보살이 강림하여 용화삼회(龍華三會)를 설하는 화림원(華林園)의 법연장을 연상케 한다.

봉업사터는 1997년 9월과 200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있었다. 사지 전체가 농경지이기에 농한기인 겨울철에 극히 일부 지역만 표본적인 발굴작업이 가능했는데, 70여점의 유구 유물이 출토되어 봉업사터 성격 규명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부족한 예산으로 무턱대고 드넓은 농지를 매입하여 발굴작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고준한 역사 유물이 땅 속에 들어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묻어둔 채 마냥 곡식만 경작하는 것도 속 편한 노릇은 아니다. 사지 발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기 보다 정작 그 주인되는 불교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봉업사터 가운데 지난 번 2차 발굴 조사된 436평의 땅을 1백5만원에 임대했었다는 땅 주인 천정래(57세, 죽산리 461번지 거주)씨는 다시는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이번 태풍 '루사'에 그 위에 심은 벼포기들만 넘어졌다는 것이다. 천정래씨처럼 봉업사터의 등기부상 실제 주인이 있는가 하면 돌보는 이 없는 산밑의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을 14년째 홀로 돌보는 장일선(76세) 할머니 같은 이도 있다. 우연히 이 산밑에 들렀다가 부처님이 좋아 비닐하우스를 짓고 내리 14년을 살았다는 것이다.



◇봉업사터에 있는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 장일선할머니가 14년째 돌보고 있다.

업이 어찌 육도 중생의 것만이겠는가. 석불은 석불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인연의 모양새를 지어놓은 그 순간부터 업이 태동하는 것이니 봉업사의 업은 뿔뿔히 흩어지는 것이었던가. 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석불입상(보물 제983호, 칠장사 소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등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다. 고해의 징검다리인양 띄엄띄엄 죽산리 일대 농경지에 적당히 터를 잡고 또 다른 세월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봄 다녀온 강릉 신복사터와 학산 굴산사터 석정(石井)이 이번 큰 물로 인해 토사에 휩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봄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감은사지 대탑도 1°정도씩 기울었다는 보도이다. 멀쩡한 성보들도 소리없이 기울고 토사에 휩쓸리는데, 발굴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폐사지들은 또 얼마나 소리없이 땅 속 깊이 가라앉고 있을 것인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 눈앞의 명리만 좇는 현대인의 사고체계 또한 기울어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 = 고영배 기자
다음은 강화 선원사터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Chogye Order of Korea Buddhism Hanmaum Sean 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 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 화 : 사무처(031)470-3100 팩 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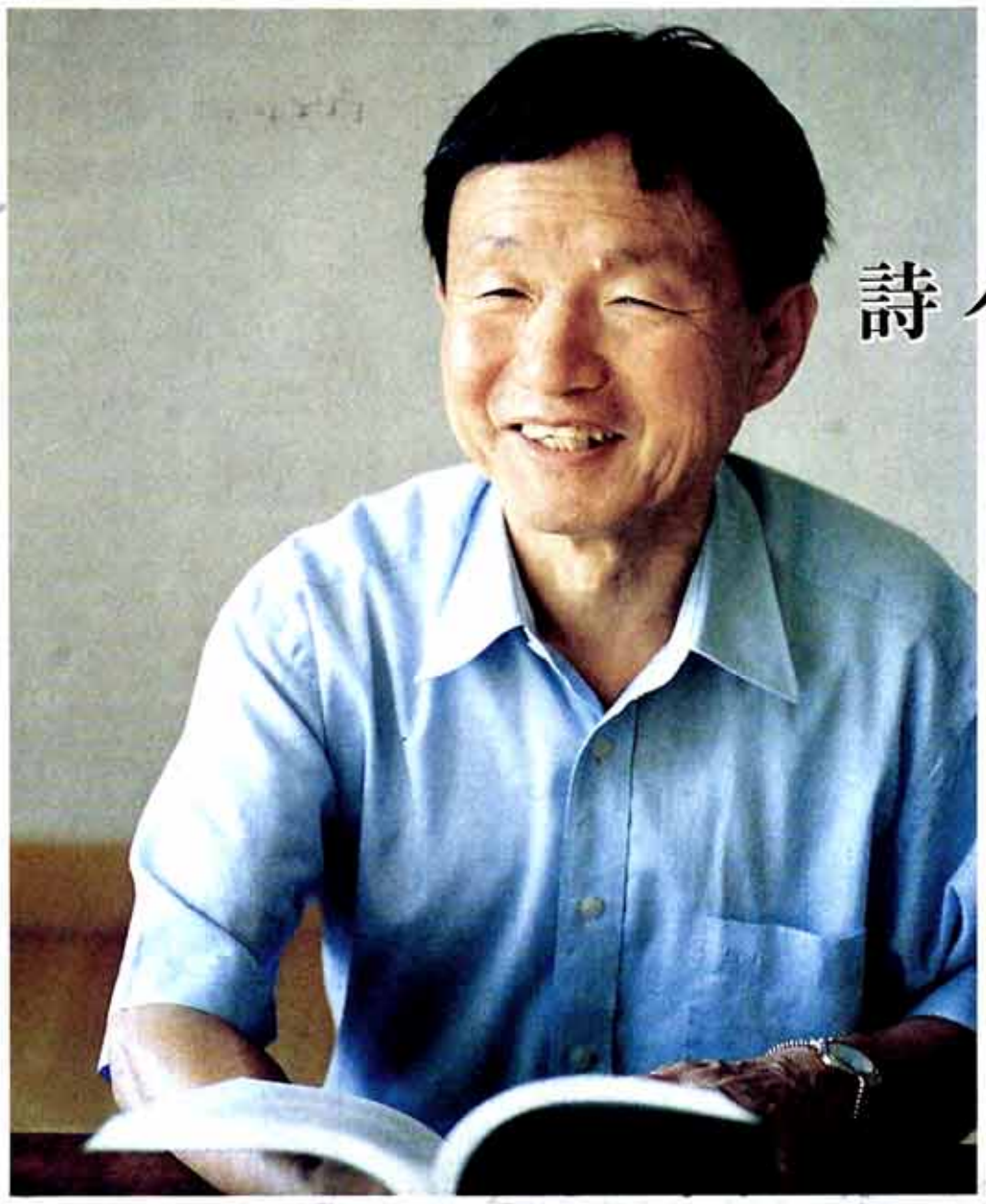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경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93-0 FAX : 055)345-9900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6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 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outh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6
TEL : 323-766-1316 / FAX : 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FAX : 662-381-8588

대전광역시 시법남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법석 조대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선지식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전수하고 의심처를 풀어주는 것이 무차선 법회의 진정한 뜻입니다."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해 나가다 홀연히 마음 밖(心外)을 돌아가는 것이 화두를 깨치는 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24·25면



詩 사랑은 '하나 더 갖게 된 행복'

신경림 시인

동국대 석좌교수

56년 '낮달' '갈대'로 등단

첫시집 '농무' 서민의 아픔 노래

신경림 시인은 —— 1956년 '문학예술'에 시 '낮달'과 '갈대' 등이 추천돼 등단했다. 그러나 전쟁 직후 폭격으로 허물어진 집과 사람들 사이에서 '시 쓰는 일'에 회의를 느낀 시인은 10여 년 간 시골을 떠돌았다. 공사장과 장터를 전전하며 만난 사람들의 삶을 아파했던 시인은 '만약 다시 글 쓸 기회가 온다면 이런 사람들의 정서, 설움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쓴 시가 '파장'과 '농무' 같은 시였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파장)

이후 유신과 독재에 맞서는 무기로서의 시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시 사이의 갈등으로 80년대를 지냈으며, 도시 외곽지대 빈민들의 삶을 노래한 '가난한 사랑노래' 같은 서정이 넘치는 시를 쓰기도 했다. 이제 작가 생활 40년을 넘긴 시인의 시를 사람들은 '넉넉함', '포용' '여백' 등으로 읽어내고 있다.

시집으로는 〈농무〉(1973) 〈새재〉(79) 〈달넘세〉(85), 〈남한강〉(87), 〈가난한 사랑 노래〉(88), 〈길〉(90), 〈쓰러진 자의 꿈〉(93),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98), 〈쨀〉(2002)이 있다.

외손자 위해 동화 쓰고파

시인 신경림(67).

칠순을 바라보는 시인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8살 된 외손자의 일상이다. 손자가 자전거를 탈 때는 축구공을 지키고, 축구를 할 때는 자전거를 지키는 완벽한(?) 우리네 '할아버지'다. 월드컵 이후 "도깨비 얘기해 줄까?"하면 "도깨비가 축구한 얘기 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 머리 속이 온통 축구 생각뿐인, 그래서 '책 읽는 게 제일 싫다'는 외손자를 위해 시인은 동화를 쓰고 싶다고 한다. "생각은 많은데 게을러서 잘 안 써진다"고는 하지만, 그는 내심 특별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매년 8월이면 열리는 만해시인학교의 교장인 시인은 올해 그 일과 무관하게 백담사를 찾았다. 지난해 발표한 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에서 평범한 시어로 불교적 직관을 펼쳐냈다는 평가를 받아, 만해상 시문학 부문의 수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시인'이라는 일부의 평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극히 따르려는 시인일 뿐'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풀어낸다.

"제 시가 특별히 불교적 가르침을 표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문화의 저변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작품에 불교적인 요소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불교계 게으름 안타까워

"불교야 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종교 아닙니까. 환경이나 생명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런 불교적인 가르침을 문학을 비롯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더욱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이런 면에서 뒤쳐지는 것은 불교계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아직 부족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불교가 '낡은 종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기도 한 시인은 이번 학기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시 창작론'을 강의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시에 대한 열정과 희망도 발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 문인들이 하듯 억지로 시를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최근 펴낸 시집 〈쨀〉에 실린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산문이 생각나는 구절이다. 시인은 이 글에서 시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자폐적인 글쓰기'가 요즘의 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시도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화입니다. 단 몇 마디로 힘 있고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고 읽으면 자폐증은 어느 정도 풀어지겠죠."

또한 시란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고 믿는 시인은, 다양성의 시대에 시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 더욱 넓어졌으며, 그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詩도 대화 … 감동적이어야

"결국 시가 시대의 삶에 깊이 뿌리박는 것, 그 이상의 대답은 있을 수 없겠지요"

시인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택한 것은 시인의 시세계를 찾아 나선 일이다. 최근 펴낸 〈시인을 찾아서〉 2권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고은, 김지하 등 스물세 명 시인의 시세계를 탐색하며, 시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재미를 하나 더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행복을 하나 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자신이 심은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에게 있어 '시 쓰는 즐거움'이기도 할 것이다.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떠도는 자의 노래

외진 별정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다
어느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좁은 골목을 서성이고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잣거리도 기웃댄다
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

아니,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 저 세상 끝에
무엇인가를 나는 놓고 왔는지도 모른다
쓸쓸한 나룻가에 누군가를 버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이 세상에
버리고 간 것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닐는지도 모른다

— 현대불교 독자에게 시인이 권하는 詩 —

마곡사 병진스님 소장 朝鮮 佛畵草本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Joseon Dynasty Underdrawing of Buddhist Painting

모시는 글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가을을 맞이하여
병진스님 소장 조선불화초본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의
새롭고 다양한 불화초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장 충 식 올림
장안사 주지스님 황 병 진 합장

■ 개 막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전시기간
2002년 9월 24일 (화)
~ 2002년 10월 12일(토) 일요일은 휴관
■ 전시장소
동국대학교 박물관 제2전시실
■ 문 의
동국대학교 박물관
Tel : 02-2260-3462
Fax : 02--226-8783



릴레이 수행일기



김광하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상임운영위원

첫 직장 내던지고 보림선원서 눈틔워

그때 경험이 평생 내 삶의 길잡이 돼

필자는 대학에 다닐 때, 독서모임에서 동양사상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불교 경전을 읽게 되었다. 1976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학교선배와 불교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불교의 깨달음에 관해 꽤 심각한 토론을 하던 중, 그 선배가 "너는 그렇게 불교를 잘 아니 마음 속에 번뇌가 없겠구나"하는 말에 직장생활을 접고 그 선배를 따라 나섰다.

그 때 그 선배는 부산 보림선원의 백봉 김기추 선생님으로부터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부산에서 일년 반 동안 백봉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당시 백봉 선생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과 저녁에 두 번 설법을 하셨으며, 일요일에는 유마경과 금강경을 강독하셨다. 또 토요일에는 반드시 철야정진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선생께서 제창하시는 거사불교의 기풍으로서 재가불자가 생활 속에서 수행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방편이었다. 백봉 선생님께서는 누구든지 학식의 유무를 상관치 않고 기복신앙이 아닌 견성을 수행목표로 이끄셨다. 또 설법은 〈선문염송〉을 위주로 하셨는데, 아무리 작은 견해라도 자신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당시 보림선원에는 매일 법회에 참석하며 수행하시던 보살님과 거사님이 여러 분 계셨다. 대인화 보살님 등 보살님들은 가족들에게 저녁밥을 해주고는 선원에 오셔서 설법을 듣고 밤늦게까지 참선수행을 하셨고, 거사님들 중 송암 선생은 생업을 마치신 후 선원에 오셔서 매일 장좌불와로 밤을 새우셨다.

비록 세속적 학문의 잣대로 본다면 그리 높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어른들에게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자비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여든 살에 가까운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오셔서 함께 선원에서 수행했는데, 이 분은 유학과 도학 그리고 한의학에 조예가 깊으셨다. 퇴계 선생의 후손으로서 당시 영남유림과 한의학계에서 상당한 명성이 있는 분이었다. 그럼에도 몇 살 연하의 백봉선생에게는 스승으로서 예를 다했으며, 당시의 필자와 같은 젊은 사람과 수행 및 학문에 대해 토론할 때면 예의를 잃지 않으셨다. 이런 어른들이 당시 패기에 넘치던 20대의 필자에게 베푼 하심과 그 깊은 도량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수행의 힘이요 사람이 살면서 얻어야하는 어른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때의 수행경험은 20여년간 생업을 마친 후, TV를 보지 않고 오락에서 벗어나 사색하고 수행하며 가족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대인화 보살님 등 보살님들은 가족들에게 저녁밥을 해주고는 선원에 오셔서 설법을 듣고 밤늦게까지 참선수행을 하셨고, 거사님들 중 송암 선생은 생업을 마치신 후 선원에 오셔서 매일 장좌불와로 밤을 새우셨다.

비록 세속적 학문의 잣대로 본다면 그리 높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어른들에게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겸손, 자비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여든 살에 가까운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오셔서 함께 선원에서 수행했는데, 이 분은 유학과 도학 그리고 한의학에 조예가 깊으셨다. 퇴계 선생의 후손으로서 당시 영남유림과 한의학계에서 상당한 명성이 있는 분이었다. 그럼에도 몇 살 연하의 백봉선생에게는 스승으로서 예를 다했으며, 당시의 필자와 같은 젊은 사람과 수행 및 학문에 대해 토론할 때면 예의를 잃지 않으셨다. 이런 어른들이 당시 패기에 넘치던 20대의 필자에게 베푼 하심과 그 깊은 도량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수행의 힘이요 사람이 살면서 얻어야하는 어른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때의 수행경험은 20여년간 생업을 마친 후, TV를 보지 않고 오락에서 벗어나 사색하고 수행하며 가족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계속)

"오로지 들숨·날숨 관찰하세요"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연방죽선원의 **아나파나사티수행**



◇인터넷과 현실공간에서 근본불교 수행법을 널리 알리고 있는 연방죽선원. 수련생들이 법주스님의 지도아래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통증·번뇌·망상 극성

점차 마음집중·고요…삼법인 체험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을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통증과 번뇌와 망상으로 힘이 들겠지만 점점 마음이 집중되어 고요해질 겁니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 2동에 자리한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出入息念) 전문수행처인 연방죽선원. 20여 불자들이 선원장 법주 스님의 지도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날은 처음 이곳을 찾은 이들을 위해 수행의 기초부터 설명하는 법회. 참선, 염불,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한 이들이 섞여있어서인지, 행법에 앞서 수행법의 원리와 의미에 대한 문답이 약간의 긴장 속에서 오고 갔다.

"아나파나사티는 무슨 뜻인가요?"

"'아나(Ana)'는 들숨을, '파나(pana)'는 날숨을, 그리고 '사티(sati)'란 관찰, 알아차림, 마음집중, 마음챙김을 뜻합니다. 들숨과 날숨,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입니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따르면서도 '위빠사나'라는 말 대신 '아나파나사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연방죽선원. 이 곳에서는 미얀마의 마하시 선사 계통의 위빠사나 수행법처럼 관찰 대상에 '명칭붙이기' 등의 특별한 테크닉도 없고, 경행(걸으면서 발을 관찰)에 치중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sati)하라고만 한다.

한역으로는 '안반수의(安般守意)'라고 번역하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는 특별한 기교나 방법은 없고,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 스스로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통증과 번뇌와 망상으로 힘이 들지만 관찰의 힘이 강해지면 마음이 집중되어 고요해 진다. 성성하게 깨어 집중된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달아 궁극적으로는 법(삼법인)을 직접 체험하게 하며,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의 최종 도달처다.

스스로 '고귀한 여덟 겹의 길, 팔정도 실천모임'(Noble Eightfold Way Society)을 자부하며 수행법의 차이는 물론 종교의 같고 다름도 묻지 않고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곳. 연방죽선원의 이런 넉넉함 탓인지, 이곳을 찾는 불자들은 유독 구법(求法)을 향한 원력이 높다. 선원을 직접 찾아오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지식인층으로, 신행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다.

예를 들면 지난 5월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정기 수련회에 참석중인 신익찬(46) 제일투신 준법감시인은 20여년간 화두선을 닦았으며, 하순식(45 · 동불사 상임법사) 현대자동차 차장은 미얀마에서 직접 위빠사나를 배웠을 정도로 수행 이력이 깊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lotuspond.compuz.com)에는 초보에서부터 스님 등 전문수행자에 이르기까지 230여 회원들이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연방죽선원의 정기 수행시간은 월~토요일 오후 7~10시와 일요일 오후 2~10시, '불교와 수행'에 대한 정기 설법은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10월 3일부터 한 달간(매주 수 토 일 오후6시)은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인 김사철 박사를 미국에서 초청, '붓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의 특강을 한다. (02)334-1763

김재경 기자

"조급한 득도 허황된 욕망 특정 수행방편 집착도 문제"

연방죽선원장 **법주스님**



"수행은 기법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테크니션을 경계하셨어요. 기법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죠. '아나파사나티' 수행에는 그러한 기교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법을 찾는 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일이라는 법주 스님. 스님은 조급하게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기법을 닦는 자들의 허황된 욕망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또 수행의 원리를 모른 채 곧바로 화두선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비판하며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지에서 한 분야(한국의 경우 98%정도가 마하시 전통)의 위빠사나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주 스님 역시 특정 위빠사나를 수행하다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에 부딪쳐 고통을 당한 후 부처님께서 직접 닦은 '출입식념'을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모든 수행법의 근간은 경전이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연방죽선원에 오면 우선 열권의 불서를 기본적으로 읽어야 한다. 〈사성제〉 〈여름에 내린 눈〉 〈붓다의 옛길〉 〈싯다르타의 길〉 등 근본불교와 관련된 주요 저서들을 숙지해 원리를 알고 수행에 임하도록 돕는다.

15여년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중국, 티베트 등으로 구법여행을 하다 가진 모든 것을 날려버린 법주 스님은 3년전 연희동에 작은 수행처를 마련, 길을 찾는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수행 캘린더

10월 2일 (수)

■불교 수행학교=대구 여래선원은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와 7시30분~9시30분, 목요일 오전 7시30분~9시30분 비구 붓다빠라 스님을 지도법사로 불교 수행학교를 연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정통 수행법(위빠사나 및 참선)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 (053)255-0442

■참선캠프 수련=소리산참선캠프 법왕정사는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에서 정기수련회를 연다.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참선, 염불 및 독경 자세법, 행선, 와선, 위빠사나 등을 지도한다. (031)771-7745

10월 3일 (목)

■위빠사나 특별수련회=보리수선원은 묘원 스님의 지도로 10월 3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위파사나 특별수련회를 갖는다. 주간반은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야간반은 오후 7시30분~오후 9시30분, 선원 숙식자는 오전 4시~오후 9시30분. (02)517-2841

10월 4일 (금)

■호두마을 주말수련=천안 호두마을은 10월 4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전 12시까지 주말 위빠사나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월 첫째주는 초보자를 위한 입문 과정이며, 둘째주는 초보자와 경험자 모두를 대상으로, 마지막 주는 수행과 경전 공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주에는 6박7일의 일주일 집중 수행 코스를 운영한다. (041)567-2841



◇천안 호두마을 전경.

■불교 특강=강남포교원은 10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경각에서 '위빠사나를 향한 두 번째 걸음마'를 주제로 불교 특강을 연다. 수강료 2만원. (02)539-2631

10월 5일 (토)

■초심자 참선교실=우곡선원은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 토요일 오후 8~10시 서울 본원과 부산 해운대 선원에서 초심자를 위한 참선교실을 연다. (02)529-5027

10월 19일 (토)

■일상에서 깨어있기=정토수련원은 '깨달음의 장' 후속모임으로 '일상에서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10월 19일오후 2시~20일 오후 9시 서울 정토회관에서 진행한다. 정토수련원은 또 10월 2~6일, 10월 23~27일 '깨달음의 장'을, 10월 2~6일 '나눔의 장'을 연다. (02)587-8994

10월 25일 (금)

■태극권 주말수련=남양주 보광사는 9월 27일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1박2일 또는 2박3일) '숲과 태극권 그리고 참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수련회를 연다. 모집인원은 25명 내외. (031)594-1316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갑용
경기도 가평군 하천 1리 418-2
☎ 031)584-3952

불원미술원
원장 김진구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136-6
☎ 02)477-9178

선불화공방
탱화 / 벽화/개칠
내 마음자리가
정토를 볼때
손끝의 붓은
그곳을 그렸습니다
참나 박경귀 합장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 택 733-0731

바라밀현장

식당운영 **명법사 신도들**

스님은 서빙, 신도는 주방 일

신도 100여명 무주상보시 1천일 정진

산채식당 '속리산'서 장보기·조리·청소

결식아동에 도시락 제공·노인 무료급식도

법좌에 올라 근엄하게 법문을 해야 할 것 같은 스님의 자리는 돈 계산하는 카운터. 음식 서빙을 맡은 종업원들 아름은 '무슨 보살님', '무슨 거사님'. 서로에게 떠넘기기 일쑤일 것 같은 설거지, 음식 쓰레기 버리기도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평택시 도심포교당인 명법사의 신도들이다. 그리고 지금 다투어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 활동이다. 식당 일이 어떻게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까?

명법사 신도들은 지금부터 2년 전인 2000년부터 새로운 신행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식당 운영을 통해 불자들 각자가 보시를 실천해 보자는 것. 이런 생각은 식당 운영을 하며 신도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수행도 함께 하되,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래서 2000년 10월 명법사 신도 1백여 명은 명법사(주지 순형스님) 스님들 앞에서 '무주상 보시 1천일 기도정진'을 서원하고 지금까지 산채음식점 '속리산'을 운영하고 있다.

명법사 총무 화성스님은 "혼자 하다보면 쉽게 지쳐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자끼리 모여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자"는 생각에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한다.



◇명법사 총무 화성스님과 신도들이 손님들을 위한 점심 상을 준비하고 있다.

명법사 신도들의 보시 바라밀 실천은 단순하다. 식당 문을 여는 새벽 6시부터 문을 닫는 저녁 12시까지 새벽반,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청소반으로 나뉘어 장보기, 청소, 음식 조리, 서빙, 계산 등 식당일을 한다. 그리고 임금으로 받을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물 보시를 실천한다.

명법사 신도들은 식당 운영 시간을 쪼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평택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평택기계공고, 청담중학교 결식학생 80여 명에게 매일 도시락 배달로 점심을 해결해 주고, 일요일마다 열리는 노숙자 무료급식을 통해서는 매번 2백여 명 이상이 식사를 한다. 이런 명법사 신도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개신교와 천주교까지 무료급식에 가세, 현재 평택역 앞에서는 매일 무료급식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의 봉사는 식당 '속리산'에서 일한 대가로 받을 임금 전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다. 지난해 명법사 신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결과로 모은 3천여 만원을 결식학생 지원 사업, 실직 가정 학생 장학금 사업, 네팔 대성석가사 조성 등을 위해 썼다. 올해도 벌써 매달 3, 4백만원씩 빠짐없이 불우 이웃 돕기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명법사 신도들은 매달 한번씩 일요일 예불 시간에 참석, 이달의 봉사활동 중에 잘못된 점이 없는가를 살핌으로서 봉사를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평택=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생활속 불법 실천이 참된수행 아닐까요"

주방장 **김대자행** 보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 아닐까요?"

산채음식점 '속리산'에 가면 유독 바쁜 보살이 한 명 있다. 하루 내내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 김대자행 보살(52)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많은 불자들이 파트 타임으로 봉사를 한다면 김 보살은 풀 타임 봉사자인 셈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속리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을 조율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건만 김 보살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그 비결은 "2년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참가했던 1천일 기도정진"이라고 밝힌 김 보살은 "봉사를 통한 마음공부가 부처님의 해탈법 같다"고 말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난관 극복이 마음 공부의 요체란 것이다.

김 보살은 "자원봉사 활동만으로는 수행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불교의 보시 바라밀 수행은 '상'을 내세우면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법사 신도들은 1천일 기도정진을 봉사와 함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무주상 보시를 내세웠지만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던 김 보살은 명법사 총무인 화성스님의 권유로 '속리산' 운영에 참가해 오늘까지 이곳을 이끌고 있다.

心 마음비추기

'나'를 죽이면 '모두'가 산다

얼마 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여 불자는 물론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스님을 두고 시비하는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언짢았다. 평소 스님의 올곧은 불교관과 청정한 생활, 그리고 불교인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운 갖가지 구제 사업의 결과를 눈여겨 본다면, 스님의 승적 소지 여부는 지엽말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스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은 종단의 소속이나 제도적 자격 요건보다는 스님의 스님다운 '행위'다.

스님은 일찍부터 불문에 들어와 종단의 명망 있는 큰스님으로부터 삭발을 하고 부처님과 함께 살며 어느 스님 못지않은 수행과 원력으로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연재 첫머리부터 한 스님을 두둔하는 듯한 말로 시작한 감이 없지 않다. 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스님의 지난 얘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스님은 지난 날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절에 집시법 위반인가 뭔가 하는 죄로 모처에 끌려가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은 일이 있다. 두려움과 억울한 심정이 뒤섞인 가운데 매맞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바라는 것은 되도록 덜 아픈 부위를 때려주든지 매를 그쳐주는 일밖에 없었는데, 웬걸 매 가운데 하나가 스님의 급소를 때려 비명조차 지를 사이 없이 쭉 뻗어 버리고 말았다. 숨이 콱 막히면서 온몸을 땅에 대고 부르르 떠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엉뚱하게도 그것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서 장난으로 개구리들을 잡을 때의 광경이었다. 스님의 막대기에 맞은 개구리들이 죽을 때 사지를 떨며 뻗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아, 내가 죽인 개구리들이 지금의 내 모습이구나, 그냥 죽자'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신기한 것은, 스님이 이렇게 목숨을 놓으니까(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몽둥이를 땅바닥에 던졌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스님은 나를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늘날 자신이 펼치고 있는 일련의 불사들은 그때 얻은 순간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씀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행위 가운데 선행의 결과인 기쁨은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려고 하지만, 악행의 결과인 고통이 찾아오면 이를 회피하려거나 모면하려고 발버둥친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악업의 결과가 찾아올 때 이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인과를 받으면 그 인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 앞에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올 악업의 결과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참회는 자신을 속이고 부처님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위다. 인과를 믿는다면 인과를 받겠다는 자세가 참회의 본질이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는 신행의 좌표

"내게 오는 고통의 원인을 내 안으로 돌리다보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찬불가 모임인 '자비실천 찬불가회'를 이끌며 교도소 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진력하고 있는 한 대각행(65) 회장. 절에 다닌다고는 해도 육신을 괴롭히는 병고와 주변을 향한 원망으로 편할 날이 없었던 한회장의 삶에 변화를 부른 것은 '진실한 참회'였다.

삶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로 들리려 노력하다 보니 '지금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주며 살아왔구나'하는 자각이 일었다. 곧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몸이 허락하는 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살겠다는 신행의 좌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한회장에겐 자신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타인에 대한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졌다.

이처럼 참회는 잘못된 신행이나 수행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인 셈이다. 따라서 참회 없이는 그동안의 거짓과 허물을 다 제거할 수 없고, 허물을 그대로 둔 변화란 사상누각처럼 공허한 것이다. 참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허물과 악연으로부터 깨끗하고 선한 인연의 바탕으로 마음의 통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참회는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화 작용을 해준다. 참회가 공론화되고 대중속으로 녹아든 의식이 초기불교부터 착실히 이행되어온 의식이 포살법회다. 매월 보름과 그믐 2차례씩 열렸던 포살법회는 대중이 모인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타인의 허물을 감싸안아 주는 대중 화합의 장이 되어왔다.

광복이후 50회째 매년 3천배 참회기도를 열고 있는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은 "참회는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가꾸는 노력이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된다"고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 해친 무거운 죄 참회하옵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삿된 음행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거짓말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꾸밈말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이간질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나쁜 욕설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탐욕부린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나쁜 성냄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어리석어 지은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옵니다." (십악참회(十惡懺悔))

천미희 기자



◇매년 부처님오신날 전야에 부산역 광장에서는 '3천배 참회정진 법회'가 열려, 부산 시민의 심성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회는 반성아닌 마음 바꾸는 일

보다 나은 삶을 살게하는 원동력

동안거 선수행 동참안내

도피안사 수광선원(壽光禪院)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인 달공거사 조홍식 박사와 함께 이번 동안거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공 거사님은 올해 83세로 일찍이 송광사 구산대선사 문하에서 선수행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게 줄곧 정진해왔습니다.

또한 평생 생떽쥐베리를 연구한 불문학자로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달공 거사님은 오랜 선수행의 체험을 토대로 특히 초심자들에게 자세하고 쉬우며 깊이 있는 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원하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입방인원** | 10명(재가 불자, 접수순에 의함)
●**동 참 금** | 30만원(90일, 결제기간)
●**입 방 일** | 11월 18일, 11시까지 도착
●**연 락 처** | Tel · 031-676-8700 / Fax · 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 달공거사 조홍식 박사의 저서인 '선심시심' 출판기념법회가 10월 6일(일)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있습니다.
(당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8번 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 정각, 도피안사행 차량이 출발합니다.)

불교식 실버타운(수광원) 등장

1. 도피안사는 금하당 광덕대선사를 개산조로 모신 보현도량입니다.
2. 수광원(壽光院)은 가족같은 친밀감으로 형성된 불자형제들의 수행공동체입니다.
3. 서울에서 가까운 안성시 죽산, 용설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 서울행 직행 노선버스가 15분마다 다닙니다.(남부터미널 - 진천행)
5. 법회가 자주 있어서 입주자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6. 입주 비용이 다른곳에 비교하여 저렴하고 청소년 수련원이 함께 있어 활기가 넘칩니다.
7.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황토 기와집에 입주하여 살 수 있습니다.
8. 나이제한이나 성별구분이 없으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입주 할 수 있습니다.
9. 의학박사가 상주하여 건강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합니다.
10. 도량돌리를 통해 누구나 적절한 운동을 자연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 청소년들과 신도들의 봉사활동이 끊이지 않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광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 Tel · 031-676-8700 / Fax · 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반야바라밀결사보현도량 **전법대본산 도솔산 도피안사** · 법 주 금하광덕 · 주 지 송암지원
우456-89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혜경스님의

경 전 읽 기

법화경 ⑮ 분별공덕품 17



복덕의 구분

부처님 공덕 12가지로 나눠 설해

듣는 사람 능력에 따라 복덕얻어

앞의 '수량품'에서 석존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입멸이 가까운 석존께서 아득한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미래에도 지금까지의 수명보다 배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 항상 영축산에 계시며 부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수량품'의 내용이다. 이 설법을 들은 대중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얻은 저마다의 공덕을 각각 구별하여 설하신다. 또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미래세에 이 법문을 듣고 함께 기뻐(수희, 隨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믿어 간직하며 남에게 읽고 외워주고 설법해 주는 사람들의 공덕이 설해져 있다. 이것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으로 공덕을 사유(事由) 따라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그 공덕이란 직접적으로 앞의 '수량품'을 들은 공덕이며 넓게는 〈법화경〉 실천의 공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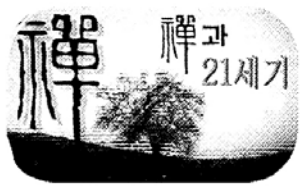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첫머리에 미륵보살을 향해 '수량품'의 법문을 듣고 얻은 공덕을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로 나누어 설하셨다.

1) 6백 80만억 나유타의 항하사와 같은 수의 중생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다는 무생법인, 즉 '공'의 진리를 깨달았다. 2) 그 중생의 천배가 되는 보살들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지녀야 할 기억력인 문지(聞持) 다라니문을 얻었다. 3) 하나의 세계를 아주 작은 입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들은 자진하여 가르침을 설하되 어떤 장애도 없이 자유자재로 법을 설하는 요설무애변재를 얻었다. 4) 하나의 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들이 백천만억 한량없는 가르침을 원만히 익혀 자유자재한 지혜의 능력인 선(旋) 다라니를 얻었다. 5) 3천 대천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이 번뇌를 깨뜨리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6) 중천 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들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7) 소천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들은 여덟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8) 네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들은 네 번 다시 태어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9) 세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이 세 번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0) 두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이 두 번 다시 태어난 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1) 한 개의 4천하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보살이 한 번 다시 태어난 후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2) 여덟 개의 삼천 대천세계를 미립자로 부순 수만큼의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상의 열두 가지이다. 엄청난 수의 보살들 가운데 어떤 보살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으며 어떤 보살들은 몇 번씩이나 다시 태어난 후에 그 깨달음에 도달하며 또 어떤 보살은 가르침을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을 듣는 사람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허공으로부터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 위에 뿌려졌다. 아울러 다보탑 속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불과 다보불 위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위에도 흩어져 내렸다. 전단과 침수향과 천신들의 옷이 쏟아져 내렸으며 천신들의 북이 스스로 아름답게 울렸다.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비단 해 가리개를 든 보살이 줄을 이어 범천에까지 이르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한량없는 시를 읊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천태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까지가 〈법화경〉 본문의 정종분이며 이하 맨 마지막 장인 '권발품' 제28까지의 11품 반이 유통분이다. 여기서 〈법화경〉을 크게 나누고 이하의 내용은 경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여 설한 것으로 해석한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㉘

닦음도 깨달음도 없다

'눈(眼)'으로는 눈을 볼 수 없다

그대들 여러 곳에서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설사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업 짓는 일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만행(六度萬行)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역시 모두가 업 짓는 일이다.

부처를 찾고 법을 찾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찾는 것 역시 업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 짓는 일이다.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루유위(有漏有爲)와 무루무위(無漏無爲)가 모두 청정한 업이 되는 것이다.

어떤 눈먼 중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관행(坐禪觀行)을 하여, 생각을 꼭 쥐고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外道)의 법이다. 조사께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마음을 멈추고 고요함을 살피며, 마음을 들어서 밖으로 비추고 마음을 붙잡아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삼매에 든다면, 이와 같은 짓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을 닦겠으며 깨달겠으며 장엄하겠는가? 그 사람은 닦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장엄하게 한다면 모든 것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행한다. 그 목적이 어떤 생각을 추구하는 때이든, 어떤 동작을 취하려는 때이든, 늘 그렇다. 이 점은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마음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음공부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따라 수행을 한다. 그 방법들은 대개 의도적으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여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거나, 하나의 관념적 대상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육체의 어떤 부위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자기 암시적인 문구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암송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하는 등등이다. 물론 여기에는 육체적인 수련이 동반되기도 한다. 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런 의도적인 행위들은 모두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의식을 움직이고 육체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미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이미 마음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의식과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이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적 수행이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마음을 찾는 일이란 비유하여 말하면, 눈(眼)을 찾는 일과 같다. 눈은 항상 자기 밖의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을 볼 수는 없다. 눈이 자신을 찾기 위하여 온갖 곳을 두리번거리거나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나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고 하여 눈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이 눈을 찾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보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다는 행위가 바로 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본다는 행위만으로 눈의 존재는 드러난다. 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식이 활동하는 순간 마음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음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길은 의식의 활동일 뿐이고, 의식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⑯

숙면과 좌일주칠(坐一走七)

적당한 식사 · 규칙적 생활 숙면가능케

깨어있는 시간중 좌선2 · 일과 14시간

인간의 일생을 살펴보면 잠자는 시간이 거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즐겁고 깊게 자는 '숙면(熟眠)'은 '호식(好食)' 및 '쾌변(快便)'과 함께 장수의 3대 비결 중 하나다. 대개 수면(睡眠)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며 꿈을 꾸는 렘(REM: Rapid Eye Movement) 상태와 그렇지 않은 논렘(NREM: Non-Rapid Eye Movement) 상태로 구분된다. 논렘 상태는 다시, 쉽게 깨울 수 있는 1-2단계 수면과 좀처럼 깨우기 어려운 3-4단계 수면으로 나뉘어진다. 정상적인 수면은 1-2단계에서부터 3-4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은 잠자는 동안 3-5회 반복된다.

한편 인류는 토마스 에디슨(정작 본인은 낮잠을 즐김)이 1879년 전구를 발명한 이후 점점 더 잠자는 시간을 단축시켜왔다. 그러다가 현대인들은 점점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잃어버리고 매우 심각한 불면증(물론 원시시대에는 인류의 생존수단이기도 했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체력을 기르고 정보를 보관 및 재정리하며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한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체력 저하, 판단력 둔화 및 졸음이 이어지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9 · 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스트레스, 불안감 및 악몽 등으로 야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면증 관련 시장규모가 2001년 18조 8000억원(14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수면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면시 1주일에 하루 이상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한 사람들은 테러 이전에는 19%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에는 75%로 급증했다고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예방차원 및 약물 등을 이용한 의학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행을 통한 종교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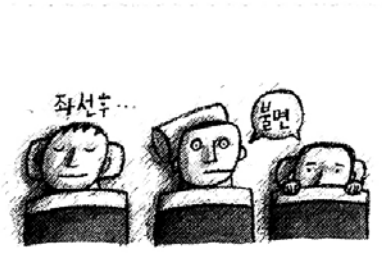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후자인 불교수행자의 경우 알맞은 식사와 함께 하루하루 규칙적인 수행생활 속에서 숙면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이나 보조요법을 쓰거나 따로 지키려고 애쓸 조목조차 필요가 없다. 굳이 이런 수행태도를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좌일주칠(坐一走七)'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선어(禪語)는 깨어있는 16시간 중 2시간 정도 좌선하고(坐) 14시간 '주어진 하루 일과에 100% 뛰어든다(走)'라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하루에 2시간 좌선한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나머지 14시간 가운데 출퇴근 2시간과 휴식을 포함한 식사시간 3시간 정도를 제외해도 충분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9시간 정도가 남는다. 필자의 경우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에 입문해 매일 아침 1시간 좌선, 저녁 1시간 좌선을 통한 간화선 수행을 지속하여 10년이 지나자 '숙면'과 '좌일주칠'을 반복하며 일상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좌일주칠坐一走七)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한국불교관음대성종
종 정 석법산
총무원장 석정산
신도일동합장
■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708-486
전화 02)594-6211, 587-6211

대한불교 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석종후
신도회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 353-5016, 4924
FAX : 02) 386-4198

광운정사
주 지 청 운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운불교대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9-8966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 원 사**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신도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전화 041-561-3545 / 팩스 041-556-1425

강화 **전 등 사**
회 주 장 윤
주 지 계 성
신도회장 윤재상
사부대중 일동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 937-0125,0025
FAX 032) 937-5450
www.jeondeungsa.org

대한불교 조계종
내 소 사
회 주 우 암
주 지 진 원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정 각 사
주 지 광 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수미산 **불 국 사**
회 주 연봉 태현
주 지 가섭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 1리 573
전화 031)441-0408

대한불교 총화종
정 은 사
주 지 이기태
신도일동
■ 인천시 남구 숭의4동 13번지 13호 7통 5반
전화 032)875-5280, 3459



'위빠사나 바람' 그 원인은…

김재성씨 서강대 종교연구소 월례발표회서

일상서도 수행가능… 초심자 접근 쉬워

간화선 단점 드러날수록 관심 증가

남방 불교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는 일반인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다. 위빠사나 전문 수행처인 서울 보리수 선원의 참가자 중 25%는 타종교인이거나 일반인이다. 뿐만 아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위빠사나를 응용한 참선 프로그램을 통해 시합 전 불안을 없애고 집중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기도 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의 어떤 점이 현대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일까. 위빠사나는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서강대 종교연구소(소장 길희성)가 9월 24일 개최한 2학기 첫 월례 발표회는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최근 변화 모습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강의실을 가득 메워 위빠사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위빠사나 수행의 위상을 중심으로 본 최근 한국불교 수행 경향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사진)씨에 따르면,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 증가는 역설적으로 간화선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행의 지도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김 씨는 이를 "한국에 훌륭한 선승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간화선을 수행하는 이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도해 주는 스승이 적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화선의 특징 자체가 들어서는 문과 나가는 문만 있지, 중간 단계를 점검해 주고 지도해 주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 씨는 "현대인들은 수행에서도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간화선은 이러한 현대인의 사유구조를 채워주기 위한 자세한 설명 체계가 없다는 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며 "이해도 안 되고,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 화두를 무조건 들고 참구하라는 간화선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빠사나의 가장 큰 매력은 체계적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빠사나의 기본 수행법은 '마음을 집중하는 관찰로 집착과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의 대상은 몸, 느낌, 마음, 법 등 크게 네 가지이며, 수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변화상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마다 지도자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좌선뿐 아니라 행선을 번갈아 하기 때문에 지루함도 덜어주고, 초심자도 접근하기 쉽다.

김 씨는 "1988년 한국에 전해진 위빠사나는 미얀마에서 1950년대를 전후로 부흥된 수행법으로, 남방 상좌불교의 풍부한 교학을 바탕으로 자세한 실천 수행의 체계가 정립되어 전해졌다"며 "수행 상태의 점검을 통한 수행의 지도는 위빠사나 수행자들이 수행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1991년 미얀마에서 마하시 스님의 수제자인 우 빤디따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한 김 씨는 "간화선의 문제점을 다른 수행법으로 풀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진 질문은 위빠사나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이 중국에서 발달했듯 한국에 소개된 위빠사나는 1950년대 미얀마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한 위빠사나가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는 수행법이라고는 하지만 낯설긴 마찬가지다.

"선 불교가 주류를 형성하기 이전 한국에도 천태지관처럼 위빠사나와 같은 관법 수행이 있었다.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선이 정착된 방식으로 우리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관찰만으로 열반을 얻을 수 있는가? 일시적인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라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기 힘들지 않나?

"열반을 얻는 것은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위빠사나 역시 궁극적으로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뿌리 뽑는 수행의 방식이다. 선정을 닦은 뒤에도 지혜가 없으면 열반이 안 되는데, 위빠사나는 지혜를 얻는 데 탁월한 방식이다."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심법인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을 해야 하나?

"호흡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하는 고엔카 수행법에서는 무상을 따라 관찰하고, 사념처(몸, 느낌, 마음, 법)를 근거로 한 마하시 수행법은 관찰 자체가 무상인 차이가 있다. 고엔카 방식은 생각의 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마하시 방식은 관찰만 하다보면 무상, 무아, 고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현대 한국 불교의 변화된 모습을 특집으로 다룰 〈한국종교연구〉(종교연구소, 연간) 5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몽산화상, 14세기 이후 한국불교 선풍에 큰 영향

최연식씨 중국자료 '몽산화상보설' 발굴·공개



고려말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몽산덕이(蒙山德異, 1232~129?)에 대한 새 자료가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 임제종 승려였던 몽산화상이 편집한 〈육조단경〉은 고려는 물론 조선 불교계에서도 가장 널리 읽혔던 책이었으며, 현재도 국내 강원의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다.

수선사 요암스님에 의해 고려불교와 인연

최연식(서울대 강사 · 사진)씨는 9월 28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48차 학술발표회에서 몽산 화상의 설법집인 〈몽산화상 보설(蒙說)〉(이하 보설)을 발굴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최 씨가 일부를 복사하고 나머지는 필사해 공개한 〈보설〉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귀중 도서로 소장돼 있는 자료로,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9개의 설법이 수록돼 있다. 이 중 국내 학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려 충렬왕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설해진 8번째 보설이다.

최 씨는 "몽산 화상과 고려 인물들과의 교류가 시작되는 1290년대 중반에 설해진 이 보설은 고려 수선사 출신의 승려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몽산 화상과 고려 불교와의 연결에 수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기존의 추정에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이 8번째 보설은 1296년 중국 평강 휴휴암에 머물던 몽산을 찾아간 고려 승 요암원명 장로가 충렬왕을 위한 축원을 청해 설해졌다. 그런데 〈보설〉의 내용을 보면 요암원명 장로는 바로 수선사의 승려다. 일연 스님의 상수제자인 혼구를 비롯해 고려불교계의 중요 인물과 지배층이 몽산을 방문한 것도 요암 장로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이후 몽산 입적 후 그의 제자인 철산소경(鐵山紹瓊)과의 교류를 지속시켰던 인물 역시 수선사 승려로 추정되는 원명국사 충감이었다.

최 씨는 "몽산 화상과 고려 불교계의 만남이 수선사 승려에 의해 출발했다는 사실은 몽산의 선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수선사가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원 간섭기를 지나면서 몽산의 선풍이 14세기 이후 한국불교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14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조선시대의 독특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는 북장사 괘불탱(1688년, 마에 채색, 1,337×807cm, '한국의 불화 9').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섬세·단아·독특한 공간' 고려전통 계승

세월따라 변화 거듭 독특한 조형미 간직

한국불화의 대표격은 고려불화이다. 특히, 13 · 14세기에 제작된 고려후기 불화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에 비하면 조선불화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회화사나 한국미술사를 보면 고려불화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조선불화는 빠져 있다. 이러한 평가와 대접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는 분명 절름발이식 회화사이다. 조선불화가 전개된 5백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만 떠올려도 그처럼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개론서는 이미 20년 전에 집필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조선불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소장 학자들의 의욕적인 연구에 의하여 조선불화의 정체가 한 꺼풀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그 뿐인가. 불화는 일반 회화와 달리 사람을 압도하는 장엄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색다른 감동을 자아낸다. 앞으로 출간되는 한국회화사나 한국미술사는 반드시 일반회화와 불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불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여 도록으로 출간한 〈한국의 불화〉 전집이다. 이 전집은 탐험가에 의하여 갓 발견된 보석상자처럼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신비로운 보석을 갈고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하나는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연속하여 개최하고 있는 '괘불탱 특별전'이다. 우리 미술을 연구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점은 유적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돈황막고굴, 용문석굴, 운강석굴과 같은 웅장한 미술은 없는 것일까? 황룡사 9층목탑이 79m의 높이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흉하니 주춧돌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스케일 콤플렉스를 단번에 깨부숴 주는 것이 17, 18세기 괘불이다. 15m에 달하는 크기도 놀랍거니와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보존된 찬란한 색채와 크기를 뛰어넘는 정교한 문양이 어우러진 조형세계는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케 한다. 두 프로젝트는 현대 불교미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쾌거로 평가받을 만하다.

조선불화의 역사는 고려불화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 섬세한 장식성, 단아한 형상, 그리고 독특한 공간구조 등은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초기인 15세기에 그칠 뿐 16세기에 이미 조선적인 특성이 정립되었다.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 변화의 진폭도 커서 더욱 다채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가 역사의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그 맛이 전혀 다르듯이, 조선불화도 고려불화와 다른 독특한 조형세계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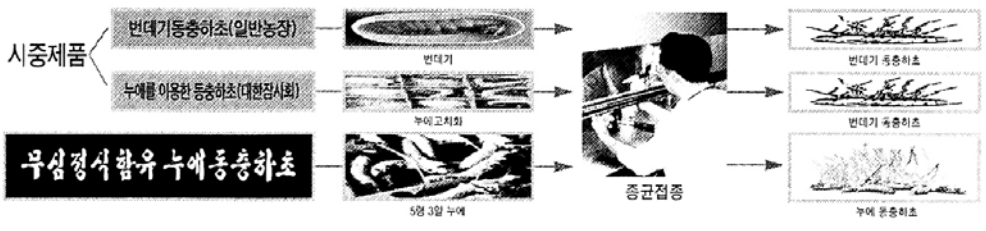
우리는 더 이상 조선불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조선인의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움으로 엮어진 조선불화의 세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상상력과 아름다움은 조형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정병모 교수는 서울시립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에서 '조선시대 풍속화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풍속화와 판화, 민화 등 민간 회화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경주대학교 박물관장을 거쳐 현재 같은 학교 문화재학부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풍속화〉(한길아트, 2000),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다할미디어, 2001), 〈KOREA ART BOOK-회화〉(도서출판 예경, 2001) 등 여러 권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약·화학센터와 공동연구개발 "누에동충하초" 함유

특허출원 "당뇨치료효과를 가지는 누에동충하초 및 그 재배법" (특허출원번호 10-2001-26194)



무심정식은 현미, 녹두, 호박, 미역 등 골고루 영양의 균형을 이룬 27여가지 자연식품에 우리의 전통식품, 그리고 첨단 생명공학 연구의 산물인 신기능성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필수영양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건강식으로서 드시는 모든 분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탄탄한 구성



시중동충하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누에동충하초" 함유

번데기가 아닌 고가의 5령 3일째 누에만을 원료로 누에동충하초는 비타민, 무기질 및 우리몸에 꼭 필요한 1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중 동충하초제품 1박스분량 함유 : 함유량 76g)



곁에 두고도 몰랐던 우리의 전통식품 붉은 누룩 "홍국"의 힘 …

홍국은 우리의 전통 식품으로 조상대대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홍국의 핵심물질인 "LOVASTATIN" 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국균 배양쌀 LOVASTATIN 500PPM이상 함유/시중제품 50PPM이하)



두채로 새롭게 경험하는 든든하고 시원한 느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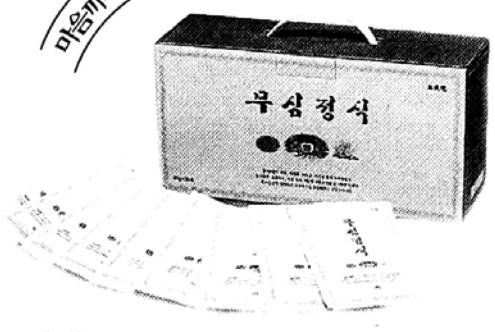
두채는 아밀라제, 숙취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등의 여러효소와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과 더불어 장청소효과로 몸을 가뿐하게하고 맑은 정신을 가꾸어 드립니다.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의 씨앗 "연자육"

연자육(蓮子肉)은 자양, 강장식품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기능을 도우며 여성들에게도 좋아서 식품원료, 한방차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다스리는 바른 식생활



• 제조원 : ㈜한국바이오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16
• 연구개발원 : 기술평가 벤처기업 ㈜엔에스케이텍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74D
• 판매원 : 무아원(대한중의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91-16

※구입시 유통기한이 경과 되었거나 변질, 변폐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상담 및 문의 : (02)2215-8510 ● 권장소비자가격 : 105,000원

元 누에 동충하초



元누에 동충하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특허원출 번호 : 10-2001-26194
(당뇨치료효과를 가지는 누에동충하초 및 그 재배방법)

※ 시중의 유사품인 번데기 동충하초와는 엄격한 효능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元누에 동충하초 섭취방법

◆ 달여서 섭취하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악탕기에 물 3,000cc를 붓고 여기에 원누에동충하초 3갑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였다가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여 하루에 머그컵으로 반컵씩 드십시오. 이것이 번거로울 때는 주전자(3~4ℓ)에 3갑을 넣고 여기에 둥글레차, 보리차 등 기호에 맞는 차를 함께 넣고 끓여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물대신 마십니다. 끓이고 남은 것은 재탕해서 드셔도 됩니다.

※ 충초 전압탕 만들기

충초전압탕은 중국 등소평의 건강식으로 유명한 요리로 귀한 손님을 접대할 경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요리법은 내장을 제거한 오리에 생강과 양파를 뱃속에 깔고 그 속에 동충하초 적당량(1~2갑)을 넣고 고기뼈를 고추어 요리합니다. 오리 대신 닭으로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 동충하초주

소주 1.8ℓ에 동충하초 2갑 정도를 넣고 2주일이상 숙성한 후 하루 1~2회 소주컵 크기로 1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대추나 인삼 등을 함께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 분말로 섭취하기

동충하초를 하루 1갑씩 가정용 믹서에 갈아 1일 3회 간편하게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 250,000원



속속들이 보고 배우는 우리 문화유산의 모든 것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



선사문화 · 사찰 · 민속 · 복식 등 15개 분야 총정리
사진 · 일러스트 자료 4천점 … 영문판도 발행

사찰의 법당에서, 박물관 전시실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불상을 대한다. 앉았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쪽 다리에 올려놓은 모습이기도 하다. 이외에 또 불상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을까?

용맹좌, 엉거주춤 웅크린 채 꿇어앉는 자세로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세운 자세를 말한다. 강릉 신복사지 석불좌상(보물 제84호)이 바로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오도하는 순간 취한 자세인 길상좌, 왼발이 오른발 밑에 숨어서 오른쪽 발바닥만 보이는 반가부좌, 한쪽 손으로 땅을 짚고 다리도 편안하게 풀어놓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앉은 안락좌, 불상의 목 · 허리 · 무릎의 세 부분에서 몸을 튼 삼곡자세 등 세심히 살펴보면 불상도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2〉는 자세 뿐 아니라 불상의 구조와 명칭, 종류, 조각법, 배치, 광배, 수인, 입은 옷의 모양새까지 '불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 · 설명하고 있는 친절한 안내서다.

세계문화유산 · 궁궐 · 전통가옥 · 사찰 · 성 · 선사문화 · 묘제 · 건축 · 공예 · 민속 · 복식 · 과학 · 악기 · 서화 · 문화일반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그야말로 우리 문화유산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4,000여 점에 달하는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안내한 책들이 불교미술, 공예 등 특정주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친 반면, 이 책은 선조들이 사용했던 머리장식, 농기구, 작은 식기류까지도 담아내 선조들의 자잘한 일상까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처음 자료집 형태로 만들었던 것을 재편집하고, 더 많은 자료들을 추가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발간하면서, 영문판 〈Korea Cultural Heritage 1,2〉도 출간했다. 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집대성한 영문 안내서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나온 영문판은 자료적 차원에서 큰 수확이다. 〈시공테크 刊, 각권 2만5천원〉

이은자 기자 ejee@buddhapa.com

고봉화상 선요



〈고봉화상 선요〉는 중국 남송 말기에 선풍을 드날린 고봉 원묘 선사(高峰 原妙 禪師 , 1238~1295)의 법문집이다.

고봉 선사는 중국 조사선 임제종의 선맥을 이은 임제 선사의 18대 적손이자, 육조 혜능의 23대손이다. 〈선요(禪要)〉에 나오는 법문은 주로 고봉 선사 만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禪)에 대한 입장이 체계화되고, 깨달음이 완전히 성취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조사선의 핵심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저서로 평가되어왔다. 이 〈선요〉를 조사선의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 강원의 사집과에서도 일찍부터 필수 과목의 하나로 정해 배우고 있다.

〈선요〉에서 고봉 선사는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는 입장을 근본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이미 선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 '순간(瞬間)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參究) 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드러냈다.

이 책의 주된 내용도, 화두를 참구해서 일념이 되고 은산 철벽을 부과하여 확철대오(廓徹大悟)에 이르는 공부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 화두 참구에 필요한 대신심, 대의정, 대용맹심의 삼요소, 일대사, 화두 참구 과정에서 만나는 각종 병, 향상사 등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전재강씨(동양대학 교수)가 역주한 이 책은 그동안 번역됐던 〈선요〉와 달리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고,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는 등 깨달음의 길을 가려는 현대인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일지사 刊, 7천원〉

이은자 기자

선(禪)의 핵심 꿰뚫은 고봉선사의 가르침

본격적 禪學 입문 · 개론서

선학의 이해



선(禪)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불교학 분야 전반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동안 선의 경우 그것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재 선학은 새로운 불교학의 한 분야로 다양한 응용학문들을 배출해내며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현각스님이 펴낸 〈선학의 이해〉는 선학에 대한 본격적인 입문서이자 개론서다.

이 책은 선의 역사나, 선사들의 이야기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선 관련서와 달리 선의 역사와 수행, 선전(禪典), 선학의 방향 제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격을 갖추었다.

현각 스님은 "선이 학문의 분야로 등장한 이후 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류적인 해석의 작업과 더불어 선의 의의와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선학 강의를 담당하고부터 틈틈이 준비해 둔 강의안과 단편적인 이론서 등을 참조하면서 학문으로서 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선학의 이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선의 사상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선의 근원으로부터 봇다의 수행, 인도선, 선법의 중국전래, 중국선종, 한국선법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제2부는 선경(禪經)과 선어록, 실제 수행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선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제3부에서는 마음에 대한 선적 고찰과 간화선의 성립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여시아문 刊, 값 1만5천원〉

어느 바람



시력(1958년~2002) 44년을 결산하는 고은 시인의 고희 기념 시선집 〈어느 바람〉이 나왔다.

시선집은 김승희 · 안도현 · 고형렬 · 이시영 네 명의 시인이 고은의 시 세계를 시기별로 대별하여 일차 수록작을 뽑고, 평론가 백낙청씨가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백두산' '만인보' '머나먼 길' 등의 서사시 · 장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읽는 이의 부담을 덜고, 수록작에 대한 시인 자신의 개고(改稿)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난 시기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선집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다.

고은 詩曆 44년 결산 … 150편 선정

첫 시집 〈피안감성〉(1960)부터 〈두고 온 시〉(2002)까지의 단행본 시집에서 150편을 뽑았고, 시집 말미에 가장 최근의 활동까지를 담은 상세한 연보를 실어 시인의 복잡다단한 생애를 간추렸다. 〈창작과 비평사 刊, 8천5백원〉

해외 봉서

젠 골프

명상 통한 마음다루기 골프경기서 좋은 결과



골프와 선(Zen)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골프에 박세리, 김미현 등 한국의 불자 낭자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이 대답에 '아니다'라는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젠 골프(Zen Golf : Mastering the Mental Game)〉는 골프라는 '정신 게임(Mental Game)'을 마스터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젠 골프〉의 전제는 강한 집중과 이완을 하나로 묶는 명상이 골프에도 적용된다는 점. 이 책은 현대심리학과 전통적인 불교의 통찰과 교리를 응용함으로써 평정심 유지하기, 나쁜 샷을 유발하는 방해들을 인식하기, 잘못된 습관과 정신적 실수 제거하기 등 골퍼의 마음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 Doubleday 출판.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신간소개



문수기도 공덕

오대산 상원사 주지 정념 스님이 펴낸 〈문수기도 공덕〉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37가지 영험담을 통해 이야기 한다.

책의 앞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영험록 가운데 문수보살 기도를 통해 얻은 공덕과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했으며, 뒷부분에는 〈문수보살발원경〉을 수록했다. 〈민족사 刊, 6천5백원〉



옛 시 읽기의 즐거움

옛 사람들이 지은 시를 통해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책이 바로 〈옛 시 읽기의 즐거움〉이다. 저자인 김풍기 씨(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다산 정약용, 매월당 김시습, 만해 한용운 스님 등의 시 50편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높은 정신 세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했다. 〈아침이슬 刊,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미오지간	성 운	봄 광
3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선원
4	편지	명정스님외	고요아침
5	바로 이번생에	우빤디따	봄 광
6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7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8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9	산중에서 길을 묻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10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우선동이
글 원성스님 원동회 그림 원성스님 /225쪽/값8,500원
잊혀진 동심을 화폭에 담는 원성스님, 그 맑은 감동을 글로 빚어낸 또 하나의 책!

차 있어 아름다운 세상
차한잔의 풍경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차향이 넘치는 맑은 햇차와 같은 진한 감동의 글과 그림!
글 담원 김창배와 다인들 그림 담원 김창배/305쪽 /값13000원


솔과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276-1 계진B/D 5층 전화 02)725-8655 / 팩스 02)725-4656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의식의 두 얼굴
저자 밀풍 리농(密峰 理農)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현재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세계를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불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효 · 경허 · 성철 · 서옹 · 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면 큰일 아닌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수련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 · 간경화 ·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밀풍 리농(密峰 理農) 著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의단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 032-347-8118~9 Fax · 032-341-8117
• 저자 상담 : Tel · 011-559-8118, E-mail · reenong@mindbody.co.kr
• 도서 주문 : Homepage · http://www.mindbody.co.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 의단원

윤회의 질곡에서 서성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소설 〈카르마〉의 주인공 '완'은 산골 오지 마을 민박집에서 가족이라는 굴레로 얽힌 자기 부모형제의 환생을 만난다. '몽당한 절굿공이 같은 팔'을 가진 민박집 주인 박씨와 '머저리 같은' 박씨의 형 내외가 바로 그들이다.

박씨는 심한 관절염으로 땅을 기어 다니며 '축생 같은 생애를 살다간' 어머니를, 박씨의 형은 태생적 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한 이복 맏형의 모습을 닮아 있다.



박영한의 소설 '카르마'

윤회 질곡에 선 인간 군상

이야기는 우연히 강원도 산골의 오지 마을을 지나던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이끌림에 의해 박씨의 민박집에 머물게 되고,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모진 목숨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면서 전개된다.

민박집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니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자신의 가족사를 되돌아본다. 마치 오래된 활동사진을 보는 것처럼 박씨 가족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과거 속의 그날들. 주인공이 애써 외면하고, 극복하려 했던 가족들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가족사를 통해 윤회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이 소설은 윤회를 모티브로 실상과 허상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그것이 있기는 한지를 묻고 있다.

가족사의 굴레에서 찾은 인간 존재의 실상

과거 · 현재 · 미래 뒤섞인 삶, 시간의 의미는?

박씨의 형을 '거대한 짐승'으로 착각한 주인공은 그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알고 〈선가귀감〉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우습구나 이 몸뚱이/아홉 개의 구멍에선 늘 더러운 물이 줄줄 흐르고/온갖 종기가 한 조각 엷은 가죽에 싸였구나/가죽 주머니엔 오물이 하나 가득/피고름조차 뭉쳐 있구나/우리 몸뚱이란/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것/탐내고 아낄 게 아니로다'

인간이란, 아홉 개의 구멍에서 오물을 흘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꿰뚫은 서산대사의 가르침은 주인공 '완'에게만 아니라 읽는 이에게로 전이된다. 주인공이 바라본 박씨의 형은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인공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

두 달여간 민박집에 머물던 주인공이 사라진 박씨의 형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려 떠나려 할 때 박씨의 반응은 소설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박씨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원망은 마치 주인공의 죽은 어머니와 형이 자신에게 퍼붓는 것처럼 들린다. 어머니에게 형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주인공에 대한 원망이 박씨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에겐 장애도 많은 법이라며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릴 정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윤회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임자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며, 전생 없는 현재가 어디 있겠소"라면서.

몇 달 후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온 민박집에서 주인공은 또 다른 환생을 본다. 딸의 얼굴에서 죽은 어머니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전생 갚기도 하고 내세 갚기도 한 윤회의 흔적들. 소설 속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던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전생인가, 현생인가, 내생인가? 〈이름 꿔, 7천8백원〉

이은자 기자 eiee@buddhapia.com



'카르마' 작가 박영한 씨 인터뷰

소설 〈카르마〉의 작가 박영한 씨는 "근래에 와서 인간 본성의 문제 뿐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고, 나와 같은 이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생명있고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불교를 신앙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카르마〉도 불교 소설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이지만, 그의 삶은 구차한 대답 따위를 떠나 이미 '불교적'이다. 집 앞의 뜰에 피어난 작은 꽃과 이름 모를 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도 그러한 그의 변화된 삶의 한 모습이다.

이번 소설 또한 그러한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소설의 무대인 산골 오지마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군상의 모습은 지난해 그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소설로 일구어낸 것이다. 그리고 인간군상과 순간순간 오버랩 되는 주인공의 가족사도 그 자신의 가족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의 삶에서 자신의 지난 삶과 현재의 삶을 읽어내는 작가의 통찰력은 소설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곧 불교의 인연법, 업보 · 윤회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불교사상은 내 소설의 '아우라'

타인의 삶에서 나의 흔적 찾아

다음 작품도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작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교적 소재나 주제를 담은 것이 아닐지 몰라도 마치 '아우라(aura.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나 '그림자'처럼 앞으로도 나의 소설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한다. "현재의 내 삶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는 거리가 멀지만, 만약 그것이 운명적으로 다가온다면 결코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은자 기자

'인간 = 지구의 주인' 생각 버려야

전문가 서평

이영경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 길가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원시림의 삼나무를 베어낸다.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지은 사람들은 삼림 파괴의 결과를 신의 저주라는 형식으로 예언했다. "그대들이 먹을 양식을 불이 먹을지어다. 그대들이 마실 물을 불이 삼킬지어다." 길가메시는 소원대로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겼으며 신의 저주대로 숲의 고갈은 토사침적과 토양내 염분침전 등을 유발시키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숲의 서사시〉는 이러한 숲의 파괴와 문명의 쇠망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인 존 펄린에 의하면 모든 문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울창한 숲이었다. 숲에서 베어낸 나무가 제공하는 온갖 풍요로움으로 문명이 시작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무의 벌채가 가속화되면서 숲의 고갈과 문명의 쇠락이 나타난다.

숲의 서사시



저자는 청동기 시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차적인 연료이자 건축 자재였던 나무가 인류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크레타,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료에 따르면 숲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남벌과 파괴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문명에서 산림은 왕궁과 신전, 그리고 고급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로 이용되었으며, 석회와 도기를 굽고, 청동 · 구리 · 철을 제련하기 위한 연료로 대규모의 나무가 벌채되었다. 해상 교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나무는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의 군함을 만들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 자재였기 때문에 나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동맹,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삼림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쟁이었다.

숲과 인간의 공생만이 살 길

세계문명사 다시 공부하는 재미도

풍성한 숲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나무부족은 자연스럽게 사회나 국가의 쇠락과 직결된다. 숲이 파괴되면 생활의 편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강이 범람하며 토양과 토양내 영양소가 유실되면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숲이 울창한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나무 교역을 했던 크레타나 그리스 숲의 고갈을 통해 부상한 마케도니아, 그리고 영국의 나무 부족을 보충하던 미국 등은 울창한 숲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된 나라들이다.

숲의 고갈은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는데, 주로 재활용과 건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청동 제련에 필요한 나무가 부족되면서 사람들은 청동기 파편을 재활용했으며, 구리슬래그에서 철을 제거하면서 철기시대를 여는 기회를 마련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철 제련에 필요한 땔나무가 부족 될 때 석탄이용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화석연료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했다. 주요 건축자재로 이용된 나무가 부족하게 되면서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설계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으며, 남쪽사면을 이용한 건축 시공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었다.

저자가 숲과 인간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희망하는 것은 숲과의 공생관계라 생각된다. 숲과의 건전한 공생은 일방적인 파괴가 아닌, 보다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러한 행동의 첫걸음은 인간이 지구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숲을 파괴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리스의 서사시 〈키프리아〉에서는 "제우신은 지구를 구하는 길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없애는 것이라 결론짓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죽음으로 세상이 비워지도록 했으며, 이로써 지구는 회복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고대와 현대의 나라들이 숲을 대책없이 파괴했을 때 맞이한 결과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이 서사시는 미래의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방대한 자료를 제시한 까닭에 쉽게 읽혀지지는 않으나, 숲과 문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외에 세계 문명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재미도 적지 않은 책이다.

〈숲의 서사시〉는 나무가 우리 사회의 문화, 인구학적 특성, 경제, 정치, 외교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찰하고, 역사속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를 읽어내는 책이다.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인 존 펄린이 13년 전 쓴 것으로, 미국 노턴 출판사에서 출간될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도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계속 찍어내 환경학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도서출판 따님 刊, 2만원)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 성 합장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存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재물께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부처님, 세상 속으로…

인도 비하루 주의 수도인 파트나는 인도불교사에서 제3결집이 시행된 파탈리푸트라의 유적이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캘커타행 기차를 타고 두어시간 달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가야가 나온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곳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불교의 서막이 열리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필자는 모처럼 주어진 연재의 서두을 어떻게 시작할까 궁리하다가 불교의 발상지에서부터 사건을 더듬어 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롭게 역사적 해석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붓다가야에서 완성된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불교라는 종교도 없었을 것이며, 부처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설에 의하면 출가수행 당시의 부처님은 많은 여정을 거쳐 다섯 비구와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고행으로 육신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그때까지의 고행을 포기하고 네란자라강에 들어가 목욕을 한 뒤에 기어서 간신히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수자타란 처녀의 공양을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당시의 수행풍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다섯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부처님은 "저 나무 아래에 앉아 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근처에 있던 나무 아래에 앉아 선정삼매에 들어가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때 그늘 삼아 앉았던 나무의 원래 이름은 핍바라수였지만 이후에는 깨달음의 나무란 의미를 지니는 '보리수'로 개명되어 수많은 불교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현재도 이 나무는 보드가야에 건재하고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 중국의 순례승 법현스님과 현장스님도 이 나무에 합장했다는 기록이 〈〈법현전〉〉과 〈〈대당서역기〉〉에 남아 있다. 그러나 불교의 쇠퇴와 이교도의 범람으로 이 나무는 근대까지 정글에 묻혀 있었으며, 1881년 영국인 커닝햄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소개되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도를 이루지 못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약한 심성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불전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악마가 유혹하는 장면이다. "세상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없소. 목숨이 있어야만 종교적 수행도 가능하오. 당신과 같은 고행 방법으론 천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없소. 마음을 억제한다든가 번뇌를 끊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한 일이오. 그러한 짓은 그만두도록 하시오. 훨씬 즐거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소. 바라문이 하는 것처럼 불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이 쌓일 것이오" 이러한 유혹에 "악마여,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다. 목숨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물이 많더라도 쉴새없이 바람이 불어닥치면 마침내 말라버리듯이 고행을 계속하면 육체나 피는 말라버리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의욕과 노력과 정신통일이 내게는 갖추어져 있다. 그 위에 지혜도 있다. 헛되이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용감한 군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너와 결전을 하리라"고 선언한다. 이로서 악마는 물러났다고 한다.

이상의 대화를 살펴보면 악마는 부처님에게 평범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욕망과 관습과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삶이다.

마왕 유혹=일상의 즐거움
마왕 물리침=세상 구제

사실 누구나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세상에 오욕락에 대한 달콤함 보다 더한 유혹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이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인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범속한 이익만이 아니라 청량한 정신과 번득이는 지혜가 있어야만 욕망으로 점철되는 역사의 바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악마의 유혹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현실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인간들의 욕망이 절제된 평화와 안락이 넘치는 사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회는 어쩌면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너무 커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이익이다. 마왕 파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결심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가까이서 뵌 큰스님

진 제 스 님 (동화사 조실)

"禪은 부처님 진리

◆10월 20일 해운정사에서 국제 무차선 법회가 열립니다. 이번 무차선법회를 여는 목적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동양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룬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무차선회입니다. 이처럼 동양 3국의 정신세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지식인들이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선수행의 가치를 값지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국제 무차선법회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선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은 다 참여해서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선 수행의 묘미를 맛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진정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참나를 닦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 수행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모든 지구촌 사람이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제 무차선법회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탐진치를 소멸하고 지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세계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법석이 될 것입니다."

◆무차선법회는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문답인 법거량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심처를 묻고 답하는 문답에서 어떠한 질문과 대답이 진정한 의미의 법거량인지 또 법거량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선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살림살이입니다. 그 깨달은 살림살이는 선지식이 아니면 설파하지 못합니다. 최상승의 진리는 도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차선법회는 최고 경지의 법문을 듣고 의심처가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지식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전수하고 의심처를 풀어주는 것이 무차선 법회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때 오가는 문답들은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묻는 이와 대답하는 이 모두가 밝은 지혜의 눈으로 진리의 실체를 꿰뚫을 수 있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의 경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거량은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되어 진리의 세계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선문답은 일반인들의 알음알이로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차선법회의 백미인 법거량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무차선법회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법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생은 성인의 경지를 모릅니다. 진리 자체는 성인의 세계이니 중생과 성인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알려면 일생 동안 참나를 밝히는 선을 꾸준히 수행해서 참모습을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대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 끝에 참나가 드러나면, 모든 진리는 자신의 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무차선법회를 발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 무차선 법회를 통해 선의 묘미를 맛보고 어떠한 선문답에도 막힘없는 자재권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대발심을 하십시오. 그러한 발심으로 선 수행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는 몇 생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깨달음은 신비한 무엇이다'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소식을 했다거나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실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언구로써 표현하자면, 깨달음의 실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밥 먹고, 잠자는 모든 일상이 그대로 깨달은 경계를 생활화하는 것일 뿐 특별한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로 중생과 범부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막연한 알음알이보다는 화두 일념삼매를 통한 생생한 깨달음의 체험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화두참구에 전진할 때 마음의 지혜가 계발된다고 진제 스님은 강조했다.

10월 무차선법회 발심계기로
내면의 참나 찾아 각성하길

한국 불교는 특정 교리나 교단에 치우치지 러나 한국 불교는 선우위의 분위기가 강하다 승의 수행법으로 인식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하는 수좌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존경의 교의 많은 병폐는 전통적인 선수행법이 제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간화선 무용론도 대 간을 지나치게 강조한 선불교는 수행방법론 한 나무를 키워놓은 모양새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를 걱정하는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부처님 심인법(를 세계에 알리고자 10월 20일 국제 무차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 해월 운봉 향곡 스님을 만나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쭈었다.

향상(向上)의 일로가 있고 향하(向下)의 일로가 있고 그 밑에 여래선(如來禪)의 경지가 있고 그 밑에 법신(法身)의 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계단으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인데, 법신의 경지와 여래선의 경지는 향상의 일로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향상의 일로를 알아야 부처님의 바른 살림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쪼개서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향상의 일로나 향하의 일로의 테두리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인들은 깨달음의 실체를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쉽게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의 까막눈으로는 곳곳에 드러나 있는 깨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연화의 세계(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신사의 꽃향기(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도량(大 小)


대불(大 小)


관음도(小)


북한의 사찰(小)






석굴암(小)


금강산의 사계(小)


만다라(小)


나한도(小)

■사진 : 안장헌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대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고수의 작품이다. 안고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감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 협회 자문위원으로 있다

동자승 탁상용 주력 2003 신제품





매주마다 펼쳐지는 54컷의 천진한 동자승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연말, 연시 선물로 최고입니다.

8절 대지 마닐라



종류 1 지혜동자 2 천진동자 3 동심동자 4 금강산 보덕암 5 도솔암 지장보살 6 낙산사 해수관음 7 연꽃 8 백련 9 연꽃

미니 차걸이



종류 1 동자승의 세계 2 산사의 향기 3 염화미소

■크기 : 대(30×31cm) 국6절
소(26×26.5cm) 사륙12절
■매수 : 표지포함 13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 : 100부 이상(먹1도 인쇄)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주력은 50부이상 주문시 금박인쇄)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 · 7 · 9 FAX (02)738-8682
홈페이지 : http://www.gamro.net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부산불교전시관(051)632-7393 · 부다가야(051)865-4383 · 백광(051)868-8518 ■전남 · 광주-무등원(062)232-0904 · 부다기획(062)225-8825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대구-마야불교(053)256-6555 · 대일불교(053)426-7486 ■경북 · 문경-고려문헌사(054)556-5599 · 안동-보리수불교(054)854-2114 · 구미-대주불교문화원(054)455-1068 ■경남 · 밀양-밀양불교전시관(055)355-5742 ■충주-충원불교마당(043)851-8477 ■의정부-삼보불교사(031)856-1020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

02 · 737 · 8881

무차대회란?

출 재가자 · 상하 구별없이 불법 논하는 자리

무차선법회는 출가자와 재가자,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불법을 논하는 자리다. "무차선법회의 차(遮)자만 봐도 그 의미를 알수 있다"는 진제 스님의 말처럼 무차선법회는 일체 막힘이 없는 법회를 의미한다.

깨달음을 이룬 선지식을 모시고 법문을 진행한 후 깨달음의 경지를 문답으로 주고받는 법거량으로 이어지는 무차선법회. 한국에서는 근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12년 한암 스님에 의해 금강산 건봉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두차례 열린바 있다.

'불성(佛性)의 실체는 있는가' '진정한 나, 즉 참사람은 무엇인가'라는 1, 2차 무차선회의 주제를 이어 이번 국제 무차선법회는 '부처님의 심인법 선양과 참사람의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세계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원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일본 불교계의 거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불교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국제 무차선법회여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 동화사 ·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중국을 대표하는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 스님이 각각 30분씩 설법하고 20분동안 사부대중과의 법거량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1만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인데 특히 이번 법회에는 제방선원의 선객들이 대거 참석, 법회의 위상을 높힐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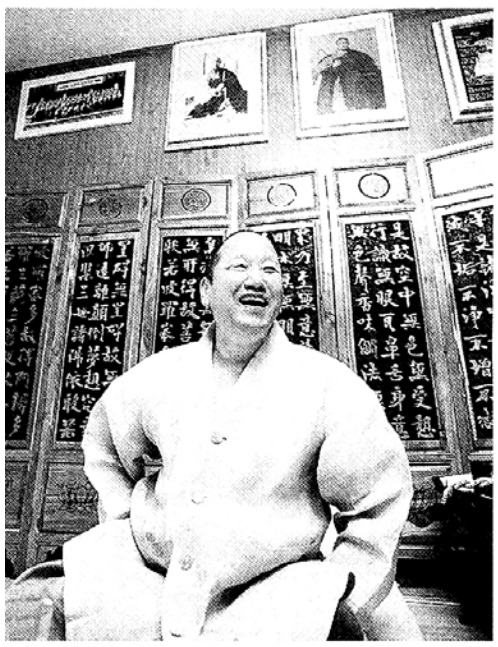
깨달은 살림살이"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
어디를 가도 선(禪)을 최상
란 어렵지 않고 선을 수행
되고 있다. 반면, 한국 불
승되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있는 실정이다. 오도의 순
를 불러 뿌리는 없는 무성

의가 높은 가운데서도 부산
을 선양하고 선수행의 가치
禪)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내려오는 법맥을 이은 진제
! 한국 선수행 체계를 정립



◇10월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릴 국제 무차선법회를 준비 중인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불법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으므로 재가자들 또한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일상중 일어나는 생각
화두로 삼아 참선하면
사심 저절로 없어져

창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선불교가 보여주는 현실은 과연 선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선불교가 갖고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여겨지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십시오.

"지금 한국불교, 특히 선불교의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불교도 물질적 풍요만을 좇고 외형적인 형상을 좇다 보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서만을 좇아 중노릇을 한다든지, 산사에서 모든 물질을 갖추고 한가로이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다 못난 중노릇입니다. 모든 것에 초연하고 도를 깨닫겠다는 철두철미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이는 부처님 국토에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를 알고자 하는 이는 첫째 발심을 하고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법을 지도 받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른 길잡이를 만나지 못하면 허공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에서 최고봉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선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제 한국 선불교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제 무차선법회가 갖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선불교가 안고 있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무차선법회라는 큰 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3국의 선의 거장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허심탄회하게 전 세계의 안목을 보고 듣게 해서 새로운 발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국의 선사들의 깨달은 살림살이를 듣고 더욱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해서 도(道)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이 법회의 목적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는 도심에 해운정사를 세우고 시민선방을 열었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차선법회를 통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새로운 발심을 일으켜 바른 수행을 이어가는 공부인이 많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지만,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 방식은 실제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재가자들이 생활 가운데 선 수행을 이어가며 참다운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가자는 혼자의 몸이니 홀가분하고, 재가자는 처자가 있어서 생활을 해야 하니 번거롭지요. 그러나 최상승법에는 출가 재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발심을 해서 도를 깨닫겠다는 확고한 신심이 자리잡았느냐가 문제지, 머리를 깎고 산사에서 수도한다고 특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 되게 화두를 참구했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직분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가지가지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 참구에 전력할 것 같으면 마음의 지혜가 계발됩니다. 시간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일어나는 생각을 화두로 돌리면 사심(邪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몸뚱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는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을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 모르고 낮이 오는지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화두 일념에만 푹 빠져 흐르고 흐르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어서 홀연히 마음땅心地을 돌이키는 것이 화두를 깨치는 때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화두를 타파해 진리대로 생활하고 더욱 많은 이들을 선의 세계로 이끄는 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글=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휘광스님 (2)



휘광스님은 열정이 많고 부지런한 분이다. 많은 스님들이 포교의 현장에서 또는 불사를 일으킴에 그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휘광스님은 특히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후배스님을 돕는데 주저가 없고 헌신적이다.

몇년전 한 후배스님이 미국행을 결심했다. 부족한 공부와 미국포교의 원력이 어우러져 인연을 맺은 것이다. 차근히 준비를 했지만 마음이 급했던 그 스님은 종교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여행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먼저 짐을 옮겨 놓겠다고 눈에 띄게 많은 양의 책을 가져간 그 스님은 공항에서 제지를 받게 되었다. 종교비자 발급을 마무리 짓지 않고 들어간 까닭에 불법체류 목적자로 오해받아 입국을 거부당해 공항에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입국거부로 인해 기존의 여행비자도 취소당하고 이미 신청한 종교비자를 받는 일도 힘들게 되었다. 가뜩이나 힘든 종교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만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시 무불선원에서 함께 지내던



미국인 현각스님과 상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미국 스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덕사 주지스님까지 나서서 결국 그 어렵다는 종교비자를 받아 그 스님이 미국행 비행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음으로 양으로 휘광스님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뉴욕에서 절을 운영하며 포교에 수고하고 계시는 휘광스님은 잘 알지도 못하는 후배스님을 위해 사찰의 재정 및 신도, 시설현황에 관한 복잡하고도 적지 않은 서류들을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쉼없이 격려해주었다. 결국 그 인연으로 후배스님은 휘광스님이 계신 뉴욕 불광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국입국 후에도 어려움 없이 정착이 가능하도록 거처와 학교, 운전면허취득 등의 세세한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다.

휘광스님 자신이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여건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귀국길에 오르기보다는 뜻을 돌려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절을 창건하여 교민과 현지인 포교에 투신한지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나는 95년말부터 달라스에 있던 수덕사 포교당에 인연이 되어 6개월 정도를 살게 되었다. 마침 1년여의 동남아 불교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래지 않았고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한 철 정진하며 좀더 폭넓은 경험을 갖기 원했던 까닭이었다. 하지만 6개월의 미국생활은 10여년의 출가생활 중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넓다고 하는 미국 땅은 한정된 공간과 폐쇄된 인간관계만을 허락하였고, 내게 주어진 일은 조석예불, 기도와 일요법회뿐이었다. 도량청소와 간혹 있는 교민불자와의 식사자리 외에는 생필품을 구입하러 나가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 달 두 달 갑갑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갈 때 우연히 만난 인쇄물에서 휘광스님의 뉴욕 연락처를 얻게 되었다. 풀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듯 꽉 막혔던 가슴이 풀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님께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전화에서 들리는 휘광스님의 목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었다. 스님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미국은 어려운 곳이야, 하지만 출가 승려가 마음만 먹으면 헤쳐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힘내서 열심히 살아" 격려해 주셨다. 그 후 근처의 대학을 찾아 어학코스도 다니

공부 · 후배돕기 남다른 열정

전화 한통화 美생활 큰 위안

고, 교민신문에 매주 기고도 하며 미국생활의 활기를 얻게 된 것은 휘광스님이 한 통화 전화로 채워준 기운 때문이었다.

스님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마치지 못해서인지 휘광스님은 후배스님들을 보살피는데 각별하다. 이미 몇 분의 스님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으며, 지금도 스님의 도량 불광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원하는 스님 또는 여행을 하는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늘 개방돼 있다.

지난해 우연히 조계사 앞에서 휘광스님을 뵈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니 담담하게 맞으시며 뭘 하느냐고 물었다. 포교원에서 소임을 본다고 하니 종단일도 좋지만 젊을 때 공부해야 한다며 언제라도 공부하겠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 또 누구라도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후배들과 불자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휘광스님만의 특출한 멋이다.

기독교를 통하지 않으면 정착이 거의 불가능한 미국, 먼 이국에서 불자로 스스로를 지켜가기도, 스님으로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곳, 또 스님이 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귀국해 더 좋은 여건에서 정진 할 수 있음에도 휘광스님은 그 곳에서 포교에 전념하고 계신다.

▩서산 부석사 주지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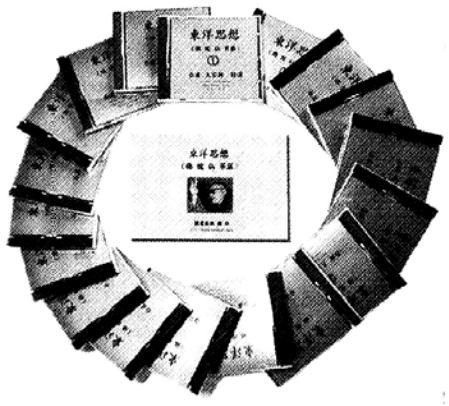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임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맹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덩실 덩실', 신명나는 흥판이 한마당 펼쳐지는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사진은 하회탈춤 시연 장면.

축제열기 전국 '후끈'

들판에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만 들어도 흥미롭고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린다. '고인돌 축제', '지평선 축제', '무술축제' 등. 흥겨운 진치 속으로 훌쩍 떠나가 보자.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축제의 주인이 되어보자.

다채로운 가을맞이 지역문화제



◇사찰이 하나의 거대한 석불박물관인 운주사에서 열리는 '운주대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점토천불 · 천탑.

운주 대축제 점토천불·천탑·만등·석불체작

원효 예술제 풍물·판소리·시낭송·탑돌이

안동국제탈춤 탈춤·음식·민속·伊 베니스 가면극

고인돌 축제 고인돌·돌탑쌓기·토기만들기 진행

◈화순 운주대축제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운주대축제는 화순 최대 이벤트. 운주대축제는 전통범패 의식, 점토 천불 · 천탑만들기, 큰별자리와 석탑배치도 · 석불 제작, 만등봉사, 발우공양 시연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신라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 운주사는 여느 사찰과는 달리 독특한 석탑과 석불이 경내에 흩어져있는 거대한 석불박물관.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곳 지형이 배형국이어서 돛대와 사공을 상징하는 천불과 천탑을 세웠다고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석불과 석탑이 흩어져 있다.

행사기간 동안 국악단 초청공연, 연날리기, 사투리대회, 토속민요경연대회, 제기차기, 윷놀이, 품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향토음식전시회에서는 푸짐한 전라도 음식도 맛볼 수 있다. 화순군청 ☎061)374-0001

◈분황사 원효예술제

원효학연구원과 분황사가 공동으로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문화축제가 9일 분황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분황사 원효예술제는 풍물놀이, 시낭송, 판소리, 무용공연 등이 열린다. 또 국보 제 30호인 모전석탑을 도는 탑돌이 행사도 진행된다. 분황사 ☎054)742-9922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

조상들의 풍류와 전통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는 안동에서 제 '6회 국제탈춤페스티벌'이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너와 나의 탈춤, 우리들의 미소'. 낙동강변 축제장, 하회마을 등 안동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며 다양한 탈춤 공연과 민속 축제, 음식 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탈리아 베니스 가면극 공연단이 공연을 할 계획이어서 미리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3개 단체가 방문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신명나는 우리 탈춤 마당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데, 하회탈춤,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등 중요무형문화재 13개 공연과 새롭게 복원된 현대적 탈춤 7개가 공연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054)851-6393

◈강화 고인돌 축제

4~6일 사흘간 인천시 강화군에서 열린다. 주 행사장은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광장. 강화 고인돌군(群)은 전남 화순, 전북 고창의 고인돌군과 함께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고인돌 광장에서는 5일 오후 2 · 4시, 6일 오전 11시, 오후 4시에 고인돌 세우기를 재현한다. 또 원시마을 재현, 돌탑 쌓기, 토기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계속 펼쳐진다. 관광객에게는 강화 청정 햅쌀 한 봉지(5㎏)를 무료로 선물한다. 한편 5일에는 강화도령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한양길에 오르는 모습을 되살린 첨종 임금 등극 행렬도 보여준다. 강화군청 문화청소년과 ☎032)930-3621

◈충주 세계무술축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의 본고장 충주에서 3일까지 세계무술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술을 주제로 한 축제.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31개국에서 50개가 넘는 무술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무술을 선보이는 인원만 해도 700여명. 충주체육관 광장에 설치된 메인 무대를 비롯해 차 없는 거리와 풍물시장, 수안보온천 등 충주시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또한 이번 축제기간에는 세계의 신기한 무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중 중국무술의 진수인 소림무술과 우슈를 비롯해 일본의 가라데와 거합도, 태국의 무에타이, 브라질의 까보엘라 등 세계 유명 무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충주무술축제 추진위원회 ☎043)850-5171

◈통영 나전칠기축제

4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영의 나전칠기문화를 알리는 축제이다. 올해로 네 번째, 3일까지 도남관광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공방 안에서 만들어지는 나전칠기의 제작과정을 일반에게 공개 전시한다.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나전칠기를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로부터 '승전무' 동작 배우기 및 공연, 고성오광대 탈 그리기, 대풍어제 등을 준비한다. 통영시청 문화관광과 ☎055)640-5101

◈김제 지평선 축제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한 농경 문화 체험 축제다. 3~6일 나흘간 벽골제 일원에서 열린다.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 잡기, 황금벌판 우마차 여행, 연 날리기 등의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 이외에 벼 베기,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망둥어 낚시, 조개 캐기 등의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 김제시청 지평선 축제팀 ☎063)540-3324.



◇동봉스님의 '어락수중천'.

수재민돕기 서화전 열어

동봉스님, 대구 우봉미술관

10여년동안 선서화를 그려온 동봉 스님(일봉선교종 총무원장)이 '수재민돕기 서화전'을 6일까지 대구 우봉미술 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해 '달마도', '구룡도', '나한도', '신선도' 등 불화 20여점과 사군자 30여점, 〈금강경〉 〈반야심경〉 사경 작품 50여점 등 1백여점이 벽에 걸린다. 특히 물속에 있는 부처님 궁궐을 표현한 '어락수중천'에서는 관세음보살 주변 물고기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수 있다. 한달동안 정진 하면서 완성한 3폭의 〈반야심경〉 사경에서는 부처를 향한 수행자의 여여한 기운이 전해진다. ☎053)622-6280

가볼만한 전시회 3곳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약인 '진사(辰砂)'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발색(發色)이 어려워 도예가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12일까지 서울 사간동 불일

홍재표 고희기념 도예전

12일까지 불일미술관서

미술관에서 열리는 '홍재표 고희기념 도예전'은 '진사'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흔치않는 기회다. 하얀 백자위에 입혀져 있는 자줏빛 색깔의 진사를 보고 있노라면 부드럽고 자연스런 선에 취해 화려하게 채색된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홍재표 작가의 '진사도자기'.

이번 전시회는 진사 50여점을 비롯해 백자, 분청 등 총 70여점이 선보인다. ☎02)733-5322

수안 스님의 선서화 '우담바라'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옹산 스님의 '달마도', 타계한 걸레 중광 스님의 그림, 원성 스님의 '동승', 연꽃 그림으로 유명한 수증 스님 등 국내 유명 스님 작가 30여명의 그림과 탄허, 경봉, 숭산 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의 글

한미불교문화원 설립

기금모금 선서화전

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5~12일 · 국제신문사 전시실), 광주(26~30일 ·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미불교문화원 기금 모금전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여지는 4백여점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이기까지는 한미불교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김형근 집행위



◇수안스님의 '우담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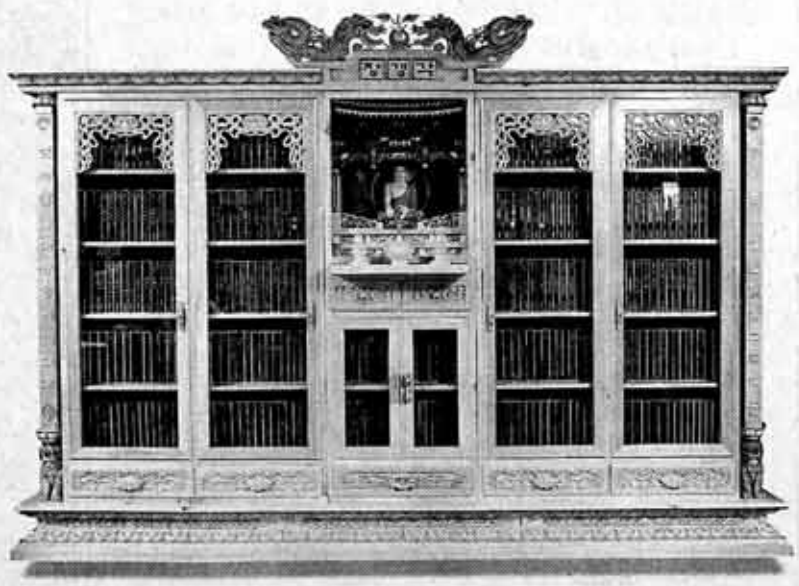
원장(46)이 국내 사찰은 물론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들인 발품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기금 마련 차원을 넘어 승속의 예술세계를 두루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016)350-9199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놀면서 배우는 '책 읽는 재미'

아이들과 함께 읽고 독후감 쓰기 · 연극
'동화를 읽는…' 전국 105지부 · 회원 3300명
월례강연 · 회보발행 등 문화행사 펼쳐

모든 아이들은 '호기심'의 달인이다. 이 호기심을 창의력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화읽기'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엄마와 함께 동화구연교실'에 참가한 어머니와 아이들이 동화 '욕심 부리다가'를 읽어주고 있다.

과천지역 '동화 읽는 어른모임'(회장 박정숙)'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들과 모임을 갖는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은 물론, 독후감쓰기와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연극으로도 꾸미는 행사도 마련한다. 박정숙 회장은 "책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가장 좋은 소재"라고 강조한다.

"무조건 책 읽기를 강요한다고 책 읽는 습관이 드는 건 아니죠. 무수히 쏟아지는 책 중 어떤 책을 골라줄 것인가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운영하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http://www.childbook.org)'은 전국 105개 지부에 3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93년 시흥에서 첫 지역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만 50여 곳의 지역모임이 있다. 매주 동화읽기 모임을 갖고 월례강연과 회보발행은 물론 지부별로 학급문고?학교 도서관 · 마을도서관 살리기 운동과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동화 읽는 어른모임'에 가입하려면 한 지역에서 15명 이상이 모여 입회신청서와 함께 입회비 5만원을 내면 된다. 가입 후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학부모와 동화읽는 어른이 할 일' 등 4회 이상의 신입회원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서점, 지역 사회복지관에도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1994년 문을 연 호세호치어린이 서점은 '동화책 읽는 좋은 엄마'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모임으로 매주 동화책 읽기와 토론 등을 한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올해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동화구연 교실'을 열었다. 매주 5~10명의 엄마들이 '좋은 책 고르는 법'과 '책 읽어 주는 법'을 배우고 있다. 동화구연가 이주연 씨는 "부모들이 직접 읽어주는 동화를 많이 듣고, 따라 해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발달과 지능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 신내동 파랑새어린이도서관(관장 전영순)의 어머니모임 회원들은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박물관과 전시장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영순 관장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부모들이 동화 읽는 모임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실제 도서관을 운영해 보면 아직 시작 단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같이 책을 읽기 위해 학원 보내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기 위한 모임에서 지역도서관과 학급문고를 가꾸는데 힘을 모으는 모임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동화책을 읽을수록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기증하는 책도 집에서 안 읽는 헌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을 내놓아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화읽는 어른 모임

모 임	전화번호
(사)어린이 도서연구회	http://www.childbook.org
동화 읽는 어른 모임	(02)3672-4447
서울 파랑새 어린이도서관	(02)2209-0026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서울 구로인표어린이도서관	(02)862-6326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02)2297-5935
일산 동화나라	(031)919-0518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032)326 -6923
대전 선배어린이도서관	(042)861-6296
부산 들꽃이야기	(051)621-9577
경북 영천 책나무	(054)332-1210
대구 이야기 숲	(053)781-2016
대구 호세호치 어린이서점	(053)629-7850

바람따라 흔들리며 맑은 소리

용무늬 풍경

사찰 건물의 처마 끝에 달려 있는 풍경은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낸다.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용무늬 풍경은 장식품으로도 좋지만 크기가 작아(8.4㎝×6㎝) 가게나 집에 걸어 놓으면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두 개가 한 세트. 가격은 3만원.



마일리지 · 쿠폰 모으면 '현금'

유통 업체부터 카드회사까지 사용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누적점수(마일리지)와 쿠폰. 적립금 등은 가려 모으고 챙기는 것이 번거로워 실제로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와 쿠폰을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마일리지 사용하기

SK가 운영하는 OK캐쉬백은 신용카드나 이동통신 멤버십 카드와 제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식당, 백화점, 서점 등 전국 5만 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또한 캐쉬백 쿠폰이 인쇄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한 후 쿠폰을 모아 가맹점의 수거함에 넣으면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온라인(www.ok-cashbag.com)에서도 적립할 수 있다.

마일리지 5만점 넘으면 현찰 환급 가능
생일때 등 쿠폰제공 · 영화비 할인 혜택

마일리지는 1점당 1원으로, 5만점 이상이 되면 환급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은 신용카드 뿐 아니라 음식점과 의류점, 화장품 가게에서도 물건값의 5~10% 정도를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카드를 제공한다. 정유사들도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무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체나 할인점 등에서 제공하는 작은 포인트들도 수첩을 따로 마련해 적어두면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카드회사의 포인트는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여기저기 자잘하게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는 통합사이트에서 교환비율에 따라 점수로 바꿔준다. 이 점수로 카드요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통합 사이트로는 '넷포인트(www.netpoints.co.kr)'와 '포인트파크(www.pointpark.com)' '굿이야(www.goodia.co.kr)', '마일뱅크(www.mailebank.co.kr)' 등이 있다.

▷쿠폰 사용법

알뜰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던 쿠폰은 이제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커피전문점에서는 10잔을 마시면 1잔을 공짜로 주는 쿠폰을 주고,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대부분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생일이나 행사 때마다 쿠폰을 보내준다.

영화를 볼 때도 쿠폰이나 할인카드를 쓴다. 이동전화 멤버십 카드로 영화비 1500원 할인을 받거나 특정일 무료관람도 할 수 있다.

인터넷 쿠폰 전문사이트 '디씨플러스(www.dcplus.co.kr)', '쿠폰세상(www.cuse.co.kr)', '시티넷(www.coupon.citynet.co.kr)' 등의 쿠폰전문사이트에서 론도 할인권, 패밀리 레스토랑의 음료수나 샐러드 무료 이용권, 학원비 할인권 등을 다운르드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우엉 잡채



재료 : 당면, 우엉, 풋고추, 들기름, 진간장, 물엿, 다시마국물, 흑설탕, 식용유, 참기름, 검은깨, 후춧가루

1. 당면은 물에 충분히 불려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우엉은 껍질을 벗겨 6cm길이로 곱게 채 썬다.

2. 잘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기름이 뜨거워지면 채 썬 우엉을 넣고 기름이 골고루 배도록 젓가락으로 헤쳐가며 충분히 볶는다.

3. 우엉이 거의 익었을 때 진간장 2큰 술과 물엿을 넣어 조린 후 건진다. 물엿은 마지막에 넣어야 우엉이 서로 붙지 않는다.

4. 우엉을 볶는 팬에 다시마국물, 진간장 2큰술을 넣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흑설탕, 불린 당면 순으로 넣어 젓가락으로 고루 저어가며 국물이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볶는다.

5. 조린 우엉을 넣고 살짝 볶은 후 불에서 내려 참기름, 검은깨, 후춧가루, 풋고추 볶은 것을 넣고 잘 섞으면 우엉잡채가 완성된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한방진료소 설치 운영

부산시 한의사회(회장 이정중)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에 한방진료소를 마련, 17일까지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대상은 43개 참가국 선수들과 임원, 보도진, 자원봉사자 등 AD카드 소지자 전원이다.

부산시 한의사회 한방진료 자원봉사팀은 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수촌내 국제지역 2층 진료소에서 한의사 33명이 매일 3명씩 교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방진료팀은 침과 한방요법을 제공하되 1차 진료 및 응급처치에 한해 실시하며, 진료소에는 환자용 침대와 베개, 추나 베드, 적외선등, 전기핌 집기 등 의료기기가 설치된다. (051)466-5966

건강단신

대전시 독감예방 접종 65세이상 노인은 무료

대전시는 환절기를 맞아 각 구청 보건소에서 10월 말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고 고열과 오한, 근육통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집단시설 치료 · 요양 수용자, 폐 및 심장질환자 등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4천원의 접종비를 내야 한다. (042)600-3114

서울삼성병원 건강강좌 '뇌출혈 · 뇌경색 수술' 주제

서울삼성서울병원이 2002 건강공개강좌의 일환으로 23일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의 수술' 건강교실을 연다.

김종수 박사(신경외과)와 변홍식 박사(영상의학과)가 대표적 허혈성 뇌혈관질환인 뇌출혈과 뇌경색의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11월 20일에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12월 18일에는 '잇몸질환의 치료와 보철, 인공치아이식'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02)3410-2114

풍수지리(도법)
여보게
왜 어깨위에 짐을 지고 다니시는가
내가 그짐을 좀 덜어주렴?
이장에서 화장
묘터 선산 건물 집터(음, 양)
모든 감정 및 상담까지 천문지리도법으로 "산소"와 산을 형상으로 보면서 설명과 방법 및 방편법을 선택해 줌 산소 조경 및 이장 화장 분묘 등등 직접 작업함
백두 풍수 연구원
www.vipsaju.net
02)3445-2959
원장 법 진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랑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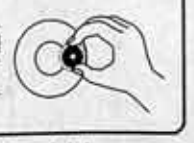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天下名品
수정은 에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名品 名 品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용반침대 5만원 별도)
名 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 에언,예측수련 ·투건강수련 · 소원성취 ·만사형통 · 복부풀기 · 열기풀기 ·차크라수련
50억년 전에 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에언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첨성가들은 수정구로 에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 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수맥, 명당찾기전자로드, 피라미드, 파워봉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 전자로드(1Set) : 350,000원
· 전자로드(1개) : 180,000원
· 허리요통대 : 60,000원
· 수정주 : 45,000원
· 순동L로드 : 40,000원
· 피라미드 : 350,000원
· 파워봉 : 80,000원
韓國氣研究院
☎ 02) 455-6944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지원단체자 경희한방병원원목실, 광시한의원, 현대의원, 태웅한의원, 그랜드약국
배꼽다이어트 탄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히트!!!
⊙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 이학박사 "사카이 미쯔루"증언
⊙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날씬, 냉증
정기 : 69,000원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김건순
☎ 02) 453-5851

부처님 품에서 온가족이 주말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주말을 보내기'에 대한 고민은 사치스런 일이었다. 그냥 일에 쫓기다 하루 맞이하는 휴일, 낮잠을 자든지 몇 달 벌러온 나들이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감지덕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잘 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종교계에서도 특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신행프로그램 준비 활발



◇감포 관음사 주말 가족수련법회인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가족들이 도자기를 직접 빚는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불교계에서도 의례적인 예불 의식이나 법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법회나 수련회로는 젊은 세대와 도시인들의 갑수성과 공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가족수련법회와 부부법회, '영어로 진행하는 법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좌, 생태기행, 문화답사, 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관음사 가족수련법회

대구 관음사가 7월 개원한 감포분원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수련법회인 '템플스테이를 상설운영하고 있다. 1박2일 동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루공양과 간경, 사경, 참선, 산행, 농사짓기 등 복합적인 프로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음사 영남불교대학은 8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53 선지식 특별초청 강좌'를 개설,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배우는 기회도 제공된다.(053)473-5802

◈전국비구니회관 주말 강좌와 봉사 프로그램

최근 개원한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 회관도 주말 가족 신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0월부터 '스님께 배우는 어린이 한자교실', '영어 이야기 교실', '경전 이야기 교실' 등 강좌를 개설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가족 주말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02)3411-8103

◈두레생태기행과 석불선양회의 문화답사와 생태답사

답사모임인 두레생태기행은 사찰 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장으로 영어·부부법회·생태기행·주말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행·휴식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기행과 문화강좌 등을 실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사찰 답사가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석불선양회 역시 전국에 분포한 석불을 가족 단위로 찾아가 살피는 순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친견 후 석불에 관한 강의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02)712-5813, (017)277-6758

◈진관사와 혜원정사의 부부법회

서울 진관사는 부부가 함께 참가하는 '부부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부부 사이에 털어놓기 어려운 말들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고부갈등과 같은 고질적인 가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찰들은 어린이 법회도 함께 열어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의 신행을 유도한다. 부산 혜원정사 '연꽃 부부회'라는 부부법회를 매달 연다.

(02)359-8410, (051)866-7771

◈정토회·재가연대의 주말농장

불교계 NGO단체인 정토회에서는 올초부터 주말 농장을 개원해 운영중이다. 매해 새로운 참가자의 분양신청을 받아 씨뿌리기, 김매기, 추수등 농사짓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환경 관련 강좌도 현지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파주에 주말농장을 개원한 참여불교재가연대도 내년 초 새로운 참가자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02)587-8994, (02)744-3424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정 담긴 편지 써 보세요

행복쪽지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리며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편지를 붙이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전화, 이메일이 편지쓰기를 아주 온시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가을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는 요즘, 하얀 종이에 정성을 담은 편지를 써보자.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친구, 그 누구라도 어떠하랴.

상상해 보라. 쌓인 업무로 지쳐가던 직장에서 아내가 보낸 편지에 감동 받아 들썩해질 가장의 어깨를, 학교로 도착한 예기치 못한 편지 한 통에 활짝 피어날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지금 당장 편지를 쓰자. 정성들인 편지에 예쁜 우표도 한 장 붙여서, 오랜 만에 집 앞에 서있는 빨간 우체통의 외로움도 달래어 주자.

행복한 활동

◆노인잔치=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2일 오전 11시 복지관 특설야외무대에서 연예인 단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노인잔치를 개최한다.(02)385-1351

◆정기 강좌=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셋째 주부터 정기강좌를 시작한다. 일어교실은 15일부터 화, 금 오후 2~3시. 영어교실은 오후 2~3시, 중국어교실은 오후 1~2시.(02)739-9501

◆디동목욕서비스 대상자 모집=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15일까지 65세 이상 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신청을 받는다.(054)633-6415

◆노인 위안 공연=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오후 2시 국민대 체육관에서 춤마당, 풍물, 스포츠댄스 등 노인 위안 공연을 실시한다.(02)929-7950

◆'호수노인문화축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9~20일간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제3 호수노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19일 오전 11시. 전시회, 민속놀이, 초상화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031)919-8677

◆무료법률상담=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상담실에서 박성기 변호사를 초청해 전세, 채무, 상속, 이혼 등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무료 상담시간을 마련한다. 접수는 5일까지.(051)271-0560

◆치매예방체조=부산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금요일 오후 1~2시마다 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이서 치매예방체조를 교육한다. 가벼운 인사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리지르기, 스트레칭 등을 통해 재미있게 체조를 배우는 시간. 자원봉사자 신순하씨의 지도로 진행된다. (051)628-6737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우울증에 빠진 어느 부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 4년간 열애한 끝에 결혼한 부인은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남편은 수입도 좋은 편이어서 부인은 결혼 초부터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성실한 노력파들이어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가정에 불행의 그늘이 쓰워지기 시작한 것은 가장인 남편이 폐암선고를 받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부터는 불행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35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 오던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혼자 남은 시간을 힘겨워하던 부인은 맏동서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간 첫 날, 예배가 끝난 후 몇 몇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하나님 품으로 온 부인을 환영하면서 곧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큰 맏동서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고 남편과 여행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서 식성이 다른 남편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부인은 그 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는, 부인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을 잃은 후에 겪었던 갖가지 슬픔과 외로움, 주위로부터 받았던 상처 등을 털어 놓았습니다. 가슴 속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난 부인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다니,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네요."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혔던 혈관에서 피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부인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표정에서까지요.

그런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남편이 그렇게 훌륭하셨다면 아드님도 훌륭하겠네요? 하며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부인 얼굴은 한 순간에 화사해 지면서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두아들 모두 외국 유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뛰어난 아들을 두셨으니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겠네요?"

제가 부인을 쳐다보며 웃자, 부인은 그랬노라고 대답하면서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말을 듣고 상처 받은 사람도 많았겠군요.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지 못한 부모들은 더욱 더요."

제가 부인을 쳐다보며 묻자 "그랬겠지요. 특히 제 형님은 더욱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게 사촌간인데도 형님 아이들은 공부를 못했거든요."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인한테 눈을 감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한테 상처를 준 말을 했던 기억도 하나하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은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군요. 특히 자랑을 하는 말이요. 제 아이들 얘기를 듣고 형님이 그동안 받았을 상처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하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 부인은, 용서의 마음도 함께 알은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업(口業)은 꼭 악담으로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것 역시 틀림없이 구업이 될 것입니다.

무심코 뱉은 말 타인에게 상처될 수도…

※ '내안의 너, 너안의 나'는 소설가 남지심씨가 운영하는 불교상담기관 '화연'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됩니다. 소설 〈우담바라〉 〈탑무갈〉등의 저자인 남씨는 지난 8월부터 서울 마포에서 번뇌로 괴로워하는 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화연 (02)704-3577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러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에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질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처자식을 헐벗게 놔두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음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통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천역동역자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효사 배상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나를 밝히면 조상도 더불어 밝아져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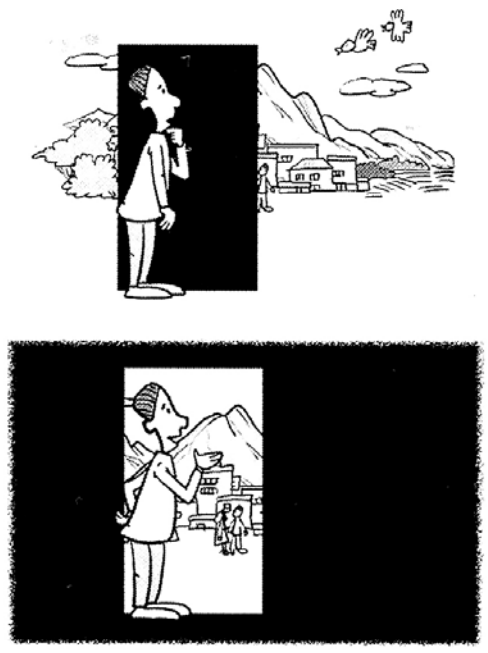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아니면 안된다" 생각 버려야

착 · 욕심 · 아상 세우는 사람에겐 부처님 법의 문 절대 열리지 않아

하나라도 실천하는 공부를

속속들이 다 안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마실 수 없다면 무효

추석을 지내는 마음

문 저는 이번에 선원에서 거행하는 추석 합동 천도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천도재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면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돌아가는지 그 점을 여쭈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 인생이 끝간데 없이 살아나가면서 구르는데,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많고 뿌리가 있습니다. 위로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백중에 그 묵은 은혜를 갚는데 팔월 추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를 많이 차려놓아서가 아닙니다. 하다 못해 초 한 자루 켜놓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향 한 개비를 피워 놓더라도, 절을일 배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생각으로 일 배를 올리면서 그 감사함을 생각한다면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또 자식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만 귀하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심어 놓은 나무가 거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데는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어떤 문제도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지말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때로 어떤 집안에서는 총에 맞아 죽은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 죽은 분도 계시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계시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무섭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되죠.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월에나 백중, 팔월 추석 때 잘 모셔드린다면, 자기 조상이라면 자기네들 뿌리나 똑같은데 그분들을 은혜로이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아니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두를 가릅니다. 시아버지는 이랬고 시어머니는 이랬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다 갈라놓으니깐 갈라놓는 대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자손들도 쌈박질이나 하고 나가서 일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보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들을 낳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한탄을 하지만, 그거는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건데 천냥 빚은 못 갚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자비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하루도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엔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지수화풍과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마음이어야겠죠.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는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과 일체 제불에게 또는 일체 권속 일체 중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을 안해도 생각을 한 게 되고, 생각한 사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생각도 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생각을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지고 창조력이 길러지는 거니까 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은 상당히 뜻이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본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까 우리가 정신차려서 앞으로 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영령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 나가 과거에 살던 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 자재권을 얻어서 자유인으로써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다 응신으로서 나투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을 섭류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느냐 하는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인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기가 가설돼서 불이 들어오듯이 부모라는 마음이 가설돼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 더불어 같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밝히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두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밝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재료로 삼고 항상 행주좌와 참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법이요, 우리들 육신이 바로 부처님의 형상이니 다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밝혀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온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밝히면 자식들도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별의별 일들도 마음의 불을 밝히고 열심히 마음공부를 한다면, 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바로 재료로 삼아서 공부한다면,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지고 바뀌지면서 화하고,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간다면 욕을 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착한 심성의 자식들이 되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자기와 더불어 천도가 되게 됩니다. 나를 밝힘으로써 조상이라는 연줄도 더불어 같이 밝아지는 마음의 도리를 정말 다 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뜻 자꾸 놓치는데…

문 저는 바른 뜻을 자꾸 놓치는 듯해서 요즘은 법어집을 자주 보며 뜻을 새겨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데, 놓았다고 생각하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래서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하고 저런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놓는 데에 장애물이 돼서 놓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제일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아니라면 이것을 꾸려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망녕된 생각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착과 욕심과 애착 또는 내가 안다는 아상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법인데 그런 법을 그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터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고등동물이면서도 앞으로 비가 올지 또는 태풍이 불어올지 또는 가정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병이 생길지를 예측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놓는다는 거는 그냥 맥없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으라고 하니깐 맥없이 그냥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데 그냥 놓으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놓는다는 건 대치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대치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지 무덤덤하게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든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보이지 않는 데서 대치를 해서 해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계에서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실천을 자꾸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놓겠다는 생각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안 놓고 있다는 생각에도 끄달리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변소에 앉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해도 오로지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 잘 되는 일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간에 얼마나 근본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고, 나라는 것을 손톱만치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생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함이 없는 공부라는 것을 진실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끄시는 방편에 대해…

문 스님의 가르침을 서툴게나마 실천해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굴리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가르침이 있지만 성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투신 모습, 시대,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스승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절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돌아가는 대로 용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게 표현이 돼야죠. 예전에는 달구지에 짐을 실어 날랐지만 지금은 사람도 태우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똑같으나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고 말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만이 완성을 하면서 가정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조상들도 완성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도 완성된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깐 이거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거양득이죠. 삼거양득이란 거는 삼심이 일심으로 통하고 돌아가니까 전체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현상세계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 무의 세계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인생이 다 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무의 법을 먼저 가르쳤고 다음에 무의 법 유의 법을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법화경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에 동일하게 그냥 하자는 겁니다. 행주좌와를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발전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린 거지 딴 사람이 하고 가는 거에 기대고 그거를 본 따서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빠르면 빠른 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고 하지마는 옛날에 달구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달구지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도 방편도 바꾸라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돌 하나도 버릴 게 있습니까? 전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의 법이 따로 있고, 현재 법이 따로 있고 과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찻잔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똑배기에 물도 마시고 차고 마시고 했지만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찻잔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찻잔이라는 이름을 전자에 똑배기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똑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 같아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똑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그 방편이 자꾸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갓 낳아놓은 애는 아기라 그러고 조금 자라면 꼬소년이라 그러고 조금 더 자라면 청소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그게 물질이 변하는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처음의 아기를 보고 어떻게 늙었다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물질 과학보다도 심성과학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못 보고 태양열이 들어오는 걸 모르죠? 못 보죠? 보지도 못하고 쥘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죠? 그러나 바탕만 태양열을 받을 장비를 해 놓는다면 태양열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음이라는 광대하고 묘한 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죠, 아주. 절대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당에 들어가니까 부처가 법당에 있는 거고 내가 변소간에 가면 부처는 바로 변소간에 있는 겁니다. 평등하게 생각하면 부처요, 한 생각 냈다면 법신이요, 또는 한 생각 내서 움죽거리겠다 하면 화신입니다. 그런데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그래서 진짜로 들어가서 진짜 함이 없이 하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이지 그대로 내가 목마르면 얼른 꺼내서 물을 마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컵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물은 얼마나 담기고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무리 속속들이 잘 안다 하더라도 내가 목이 말라죽겠는데도 그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다면 무효라는 걸 아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영혼이 나뉘어지는지…

문 불교에서는 생명은 윤회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일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영혼은 여러 개로 나누어 분열증식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 원인이기도 하오니 철저한 답변을 청하옵니다.

답 윤회라고 해서 나쁘게 되는 것만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윤회요, 나쁜 것도 윤회인 것입니다. 요즘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것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단들 수도 있고 아주 작게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무전자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계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살면서 '아, 나는 이게 참 아쉽다.' 이러면 아쉬운 거를 보충해 주는 그 무전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 나오기 이전과 더불어, 예전에 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 하나 드는 데에 모든 우주가 들린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알았기 때문이고 한생각에 진화돼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는 또 살지 못하고 껍데기가 없어지죠. 모습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지면 영혼이 살게 되죠.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게 돼 있어도 진짜로 마음공부를 한 사람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어떤 돌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또 어떤 산도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집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지로 부어진다는 얘깁니다.

☞ 30면으로 계속

나를 버리면 오히려 성공

자성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춰가지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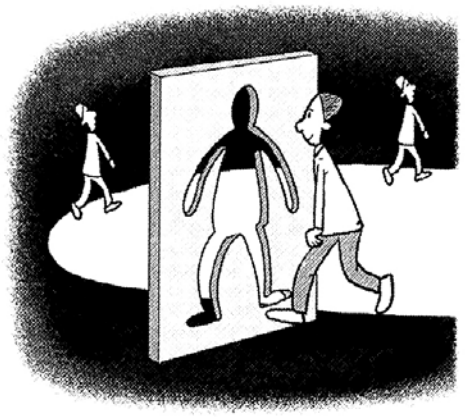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 있는 그 자리가 극락

한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간 순간 극락도 지옥도 돼

☞ 29면에서 계속

그런데 사람으로만, 생명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체 에너지로도 태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돌이든지 흙 속에 묻혔든지 어떠한 나무 속에 묻혔든지 각각 모두 그것이 에너지로다가 화해서 생명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생각이라는 것이 유전공학으로서의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한 자체도 없으면서 진화되고 바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화력을 가지고 우리가 찰나찰나 진화되는 것을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만이 윤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찰나찰나 고정된 관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버려야 하는지…

문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부를 하셔서 도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모든 것을 버려야만 공부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마음공부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은 생각지 마라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번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는 못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산으로 다니면서 공부할 때 넓은 길이 길이 아니라 갈대가 많고 온통 그냥 돌수덕 다리인 그런 데가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스승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로가 있는데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하면 그거 믿겠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나를 내버렸다면,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버렸다면, 진짜로 내버렸다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갔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움죽거리지지 않아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버리려면 아예 그렇게 버리고 안 버리고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그대로 거기 놓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다 놓으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엔 그렇게 해도 죽는 거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밤에 따뜻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천야만야한 데를 한발 내려 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버렸기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거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발짝 턱 내디뎠더니만 뭐 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진다는 게 나뭇단 있죠? 예전에는 나뭇단을 묶어서 산 밑에다가 쌓아놓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쌓여져 있는 데에 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어이가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와서 생각을 하니까 '아하, 고마워! 나무 한 단 빼놓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랬구나! 참 이렇게 신기한 법이 어디 있는가. 내 몸은 모두 너의 시자일 뿐이야. 시자를 따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나무를 하나 빼고선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여러분이 자기가 함이 없이 지금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살아오던 집착과 번뇌라고 할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꽁지가 꽁지를 물고 꽁지가 꽁지를 물고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 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었다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입니다. 내가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버려지고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항상 하는 말이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듣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죽거리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어머니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아우 노릇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니까 뭐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 하고 대답을 하고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여보' 하면 남편으로서 대하는 그 남편이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그대로 여러분은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버렸다 취했다 하는 것도 고정돼 있는 법이 아니고 찰나찰나로 돌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일 뿐입니다. 뭐가 붙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버려서 잘하는 것도 아닌, 본래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지 않는 것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실존하는지…

문 지성으로 삼배 올리오며 질문드리옵니다. 극락세계는 실존하는 세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설법에 "지옥, 극락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 말라, 현실세계에 모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경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 놓은 세계로, 엄연히 영계가 실존하는 세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계에 대하여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극락세계가 어디 먼 곳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 극락에 갔다가 순간 또 지옥에 간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상세계에서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 테며, 갇혀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이 어디 멀리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이 없습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잘못해 가지고 자기 육신을 얼마나 고생을 시킵니까?

저승이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윗눈썹하고 아랫눈썹하고 깜짝거리는 거와 같이 바로 저승과 이승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승과 이승을 까맣게 모두 생각을 안하니깐 멀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과 극락도 멀게만 느껴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면 과거로 인해서 인연을 두고 고리를 걸어서 현실에 나오고 그것이 미래를 돌아서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주 삼세가 다 공해서 일체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따지고 현재를 따지고 미래를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걸려서 넘어져서 깨지고 아파서 울고 온통 고통을 겪지만 깨달아서 왕창 결정이 난 사람들은 삼세를 홀딱 다 그냥 껴안았으니까 걸려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걸림이 없는 겁니다.

불성 어디서부터 왔는지

문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성, 불성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물질 세상에 젖은 우리들로는 인식하기 힘들겠지만 스님의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삼배 올립니다.

답 예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이 행자였을 때에 삼경에 들라고 해서 찾아가니 금강경을 설해주셨는데 그 끄트머리에 육조 스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움죽거림이 없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 그걸 듣고 뜻을 감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들으시고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자성이 무엇인 줄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성은 어디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또 가야하는 것이 붙지 않겠습니까? 본래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내는데 손색이 없고 여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일체 다 알고 있죠. 잘못되고 잘된 걸 다 놔라 이랬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를 다 놔라'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도 나오고 잘되는 것도 나오고, 잘하는 것도 나오고 못하는 것도 나오고, 높은 것도 나오고 얕은 것도 나오고, 일체 평등하게 거기에서 그르고 옳은 게 다 나오니, 나오면 바로 나오는 대로 제깍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오는 것도 알고 들이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성의 원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싼대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자리입니다. 일체제불이 같이 하고 있고, 일체제불이 다 있는 자리에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따로따로 이름은 있으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고 네 가지고 종류가 한데 합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으나 이름도 따로따로 있으나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속해 가더라 이거예요. 또 무슨 시각이니 청각이니 감각이니 촉각이니 하는 것도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 보면 척 들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을 하기 이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의 자성, 아주 묘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묘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을 좋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좋게 해라, 꿈을 꿔서 언짢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놓으면 그대로 회전이 돼서 보이지 않는 50%에서 보이는 50%로 나온다. 나오니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 말하기 이전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위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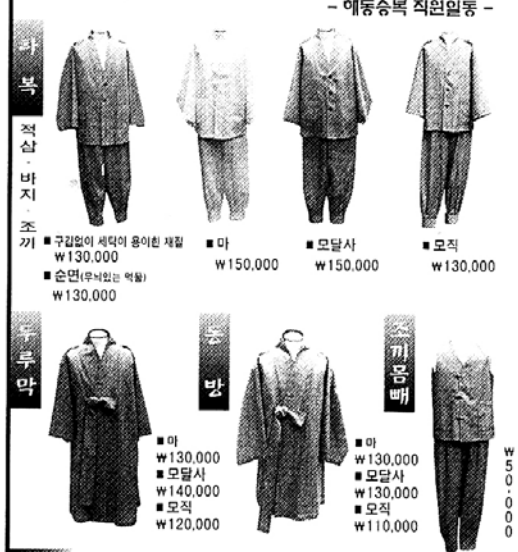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러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마 ₩150,000
■ 모달사 ₩150,000
■ 모직 ₩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130,000
■ 마 ₩130,000
■ 모달사 ₩140,000
■ 모직 ₩120,000
■ 마 ₩130,000
■ 모달사 ₩130,000
■ 모직 ₩110,000
₩50,000
※ 장삼, 가사, 백팔 및 기타 염주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개인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좌담

영상시대의 불교

KBS · MBC · SBS 불자회장에 듣는다

21세기는 영상의 시대이다. 불교는 영상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영상을 다루고 이해해야 할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KBS, MBC, SBS방송 3사 불자회 회장에게 들었다. 〈편집자 주〉


◇황진욱(MBC 불교연구회장)


◇정종철(KBS 불교연구회장)


◇허원제(SBS 법우회장)

불교 고유콘텐츠 개발 영상화해야

사회 등불역에 초점 프로 제작
불교문화재 가치 알리기 급선무

언론사 불자연합회 결성 추진
타종교와 연계 봉사활동 폈으면

◆불자회 활동이 불교신행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요.

정종철(KBS): 회원구성 및 근무여건이 여타 언론사와 달리 너무 다양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24시간 방송을 위한 4조3교대 근무 환경, 근무장소도 산재되어 있으며, 직종도 다양하여 한자리에 모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불자회 집행진은 부단히 타 불자회 및 타종교계 신행단체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사불자회 연합회" 결성을 추진하여 불자회가 미 결성된 언론사에 불자회 결성을 유도 촉구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타사 불자회와 몇차례 준비모임 등도 진행 중입니다.

황진욱(MBC): 연구회 회원들의 각자 성향이나 깊이는 다르겠지만 1박2일의 명찰순례 법회나, 삼목법회, 불교서적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불교신행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명찰순례법회에서는 큰스님의 말씀을 통해 느슨한 마음을 조이고 삶의 갈피를 찾고 있지만 스님들과 같이 그날 스케줄을 함께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제(SBS): 활동은 미력하지만 방송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여,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감로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인의 불규칙한 근무여건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자회 활동이 바른 방송문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요.

정: 불자회 활동이 점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유로 KBS를 찾는 스님에게 불자회 회원들은 본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예의를 갖추며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 적극적인 도우미 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종단과 관계가 있는 사건 사고에 종단에 누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며, 불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은 시대의 변화여건에 맞춰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황을 골고루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불자들은 사회의 등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송사내에서 참다운 비판정신을 갖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신인 존재의 참다운 진리를 구하는 것과 어리석음 속에서 상호 경쟁하며 분열하고 싸우며 불행한 중생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틀을 방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 SBS는 종교방송이 아니어서 종교방송을 제작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자 방송인들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시켜서 사회를 맑게 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각각의 종교에 대한 편파방송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이의 해소를 위해 불교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 지상파방송은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종교물 정규프로 제작은 거의 없으나, 드라마 등 일반프로 중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간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단차원의 방송작가 세미나, 포럼 개최 또는 템플스테이 사업으로 불교의 참된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기사물은 화합된 종단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대부분 사건 발생이 방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경우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관계자들의 이해와 함께 불교의 위치가 왜곡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회원 각자의 위치에서 소쩍새마을 건등에 대해 적기에 종단에 승적이 없다는 사실자료를 제시하여 사태악화를 조기수습한 적이 있지요.

황: 종교를 전드하는 모습으로 보면, 타종교는 능동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지요. 연령층으로는 타종교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고, 불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방송인들은 타종교인들의 숫자가 많죠. MBC동호회의 경우 기독교 모임이 52명, 천주교 모임이 67명, 불교모임은 70명으입니다. 그렇다해도 방송인들 사이에 종교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파방송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쪽에서 방송사에 홍보 등을 통해, 소재를 제공하고 큰 행사에 초청하는 등 방송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불교적인 소재도 더 많이 방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오늘날 방송의 공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성장하는 기독교의 경우는 서구식의 합리주의 문화와 결합하여 영화, 드라마, 문화행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타종교가 전파를 많이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있는 문화 창조를 위해 자연환경 지키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정계율 지키기 등의 좋은 사례의 모범을 보이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물 주제로서의 불교는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 불교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의 보고이며, 동아시아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을 훌륭히 유지 계승하고 있으므로 영상물 주제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고증을 거쳐 완벽한 영상물로 제작 보관해야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 등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 수요층 및 언론사에 유무상으로 지속적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 불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는 다양하고 품위가 높습니다. 영상물 주제로 본다면 다방면에 여러가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없는 것, 잘 보존된 것, 훼손된 것,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야 할 값진 보물 등입니다. 이 수많은 문화재들을 영상물로 제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국가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독특한 영상물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수준급의 프로그램도 나왔지만 좋은 기획, 많은 시간, 노력을 투입한다면 더 훌륭한 작품이 생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송 뿐만 아니라 영화로 혹은 비디오로 제작해 그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 내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허: 불교 영상물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80~90%가 불교유물과 유적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사장되어가고 심지어는 도굴꾼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않게 일어나는 것은 슬픈일입니다. 따라서 영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로 등록된 불교유산에 대한 그 고유의 가치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관련 신문에서 불교유산에 대해 알기쉽게 분류하여 계속 홍보를 하고, 해당사찰에서는 절을 찾는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사찰 안내와 함께 문화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지면서 불교 포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영상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방송화면에도 많이 사용되리라 봅니다.

덧붙여서 법문도 함께 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우 월드컵 열기로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날 관련 특집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듯 사회 현안과 맞물렸을 때 불교관련 특집들이 외면당하는 경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정: KBS의 경우 올해 부처님 오신날에도 10여편의 특집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물론 시의성 문제로 다른 특집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자들을 의한 특집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황: 올해 부처님 오신날 각 방송사 편성을 확인해 보면 MBC는 봉축법요식을 중계 각사로 분배했고, KBS1TV는 길위의 불자들, 영화 화엄경, EBS는 발우공양, 영화 석가모니 등을 방송했습니다. 크리스마스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월드컵 준비 관계로 약간 소홀해진 면이 있겠지만 예년 수준에 비해 크게 약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전야제 등에서 세계 각국으로 불교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죠. 불교계가 홍보전략을 이런 방면으로 세운다면 부처님 오신날 그날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복된 점은 있지만 불교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허: 축구와 불교,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불교 전파를 위한 큰 기회라고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교신자 개개인의 아이디어로는 큰 특집에 걸맞는 불교행사를 진행하기는 무리라고 느낍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아이디어 또는 행사 공모를 통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불교 공익광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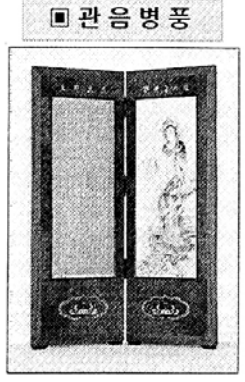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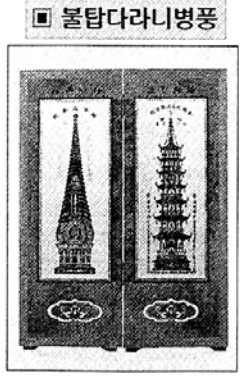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 음 병 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Let's KT

KT
14th Asian Games BUSAN 2002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공식 파트너

이제, 시내·시외전화 마음껏 통화하세요!

KT집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탄생

요금걱정 없이 마음껏 통화하는 집전화, 상상이나 해 보셨어요?
지금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시면 매달 월평균 수준의 요금으로
시내 · 외 전화를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비싼 휴대폰 대신 꼭 저렴한 집전화로 통화하세요.

각 고객의 월평균 통화료에 맞춰 합리적입니다 (기업 고객 제외)

■KT 집전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 월평균 통화료 + 맞춤요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02. 3. 10 이전) : 기간 내 월평균 통화료 + 맞춤요금

저렴한 맞춤요금으로 시내 · 외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맞춤요금은 월평균 통화료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차등 부과
■KT집전화 가입자의 90%가 맞춤요금 최소액(1,000원)에 해당
■시내 및 시외전화를 한꺼번에 가입하거나 따로 가입 가능
※ 지능망 통화료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 2002년 9월 10일~12월 9일(3개월 한정)

가입 및 문의
국번없이 100
www.kt.co.kr